

#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가락 연구




— 용왕맞이에 한하여 —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音樂教育專攻

金 美 英

上記者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所 屬	職 位	學 位	姓 名
審査委員長	全南大學校	教 授	音樂學碩士	成心溫 
審 查 委 員	全南大學校	教 授	音樂學碩士	金鶴仁 
審 查 委 員	全南大學校	副教授	音樂學碩士	金字振 

1995年 8月



#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북가락 연구

## - 용왕맞이에 한하여 -

全南大學校 敎育大學院  
敎育學科 音樂敎育專攻

金 美 英

指導敎授 金 宇 振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의 여러 무속 중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매년 음력 2월 14일에 행하여지고 있는 '칠머리당 영등굿' 중 김영수가 치는 〈용왕맞이〉의 북가락을 채보하여 그 구성 및 가락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두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문화예술킨흥원에 자료관에 비치되어 있는 VIDEO TAPE와 95년 나이스에서 제작된 「제주도 칠머리굿」의 CD를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매년 음력 2월 14일에 행해지는 송별제로 해녀들과 어부의

# 目 次

국문초록 .....	i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범위 .....	5
3.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	7
II. 칠머리당 영등굿의 개요 .....	14
1. 영등굿의 유래 및 개설 .....	14
2. 절차 및 구성 .....	16
가) <초감제> .....	17
(1) [베포·도업침] .....	17
(2) [날과 국 섬김] .....	17
(3) [연유닭음] .....	17
(4) [군문열림] .....	18
(5) [주잔 권잔] .....	18
(6) [분부 사뭇] .....	18
(7) [새드림] .....	18
(8) [신청궤] .....	18
(9) [열명 올림] .....	18
(10) [추물공연] .....	18
나) <본향뚬> .....	19
(1) [베포·도업침] .....	19
(2) [날과 국섬김] .....	19
(3) [연유 닭음] .....	19
(4) [군문 열림] .....	19



(5) [신청퀴] .....	19
(6) [자손들 소지 올림] .....	19
(7) [분부 사림] .....	19
(8) [석살림] .....	20
다) <용왕맞이> .....	20
라) <마을 도액 막> .....	20
마) <영감 놀이> .....	20
바) <씨드림> .....	21
사) <배방선> .....	22
아) <도진> .....	22
3. 제주도 굿에 사용된 악기 .....	23
가) 징 .....	23
나) 장구 .....	23
다) 북 .....	24
라) 설쇠 .....	25
마) 요령 .....	25
바) 바라 .....	25
III. <용왕맞이>의 구성 및 가락 .....	27
1. <용왕맞이>의 개요 .....	27
2. 절차 및 구성 .....	28
가) <초감제> .....	28
(1) <베포 · 도업침> .....	28
(2) <군문 열림> .....	30
(3) <추물공연> .....	35
(4) <나까도 전침> .....	36
(5) <용왕 질침> .....	37

(6) <용왕문 열림> .....	39
(7) <소지> .....	40
IV. <용왕맞이>의 복가락 연구 .....	41
1. 「늦은석」가락 .....	41
2. 「3채-2채-1채-1채」 .....	42
3. 「군채」 .....	43
가) 유형별 분류1 .....	43
(1) 강박으로 시작하는 장단 .....	43
(2) 약박으로 시작하는 장단 .....	45
(3) 강박을 세분하는 장단 .....	45
나) 유형별 분류2 .....	46
다) 종지형 .....	47
라) 기타 .....	48
V. 결론 .....	50
참 고 문 헌 .....	53
ABSTRACT .....	55
참고 사진 .....	59
참고 악보 .....	62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무악이란 무속음악의 준말로써 무당이 굿할때 사용하는 음악<sup>1)</sup>으로 무당에 의하여 무의식에서 불리워지는 노래와 무당이 춤 출때, 사설을 읊조릴때, 노래를 부를때, 의식 절차가 진행 중일때의 반주 음악을 이른다.

이러한 굿의 모습은 중국 진나라 陳壽의 『삼국지』 권30 위지 동이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sup>2)</sup> 여기에는 부여·고구려·예의 제천의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부여·고구려·예와 같은 초기 국가 형태에서는 부족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권능을 함께 지녔기 때문에 제천의식이 국가적 종교의식 행사로 치루어졌으며, 농사나 목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가무로서 하늘에 비는 큰 규모의 굿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굿 형태는 사회구조와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점차 축소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他 종교와의 갈등과 향유층의 감소로 인하여 간소화되는 실정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굿은 각 지방의 생활양식(生活樣式)과 관습(慣習)의 차이로 음악과 춤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각 지방 굿의 특징을 설명하는 기준에는 인류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음악학적 관점 등이 있다. 음악학적 관점의

1) 장사훈, 한만영, 『국악개론』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75) P. 176.

2) 『三國志』, 卷 30.

夫餘…(中略)…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 (21b 9-10)

高句麗…(中略)…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羣聚, 相就歌戲…(中略)…其人潔清自喜, 善藏釀, 跪拜申一腳, 與夫餘異, 行步皆走.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21b 10- 27a 3)

濊…(中略)…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36a 9)



기준은 음계(音階), 악기(樂器), 장단(長短) 등이다. 이 중에서도 현재 학계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음계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음계에 따라 전국을 몇개의 무악권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1975년 한만영, 장사훈의 『국악개론』<sup>3)</sup>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전국을 경기, 서도, 동부, 남부의 네 곳으로 나누었으며, 후에 한만영은 제주도 무악의 음계에 대해 재정리<sup>4)</sup>하였다. 이보형은 1976년에 “시나위권의 무속음악”<sup>5)</sup>을 시초로 하여 1982년에 “경서토리권의 무가, 민요”<sup>6)</sup>, 1983년에 “메나리토리 무가, 민요권의 음악문화”<sup>7)</sup>를 이어 발표하였으며, 1988년 “한국 무가의 음조직”<sup>8)</sup>에서는 무악권을 경토리권인 서북부, 육자백이권인 서남부, 메나리권인 동부, 제주권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 1995년 『전통음악개론』<sup>9)</sup>에서는 창부터령조(솔음계), 육자배기조(미음계), 메나리조(미음계), 허튼타령조(라음계)와 수심가조(레음계), 제주도 지방의 오돌또기(혹은 서우젯소리)로 나누고 있다. 무악권의 구분에 제주도가 삽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다른 지방과는 달리 확실한 토리나 조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무악에 관한 연구가 근래에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곳은 종교적 산물이기 때문에 비교적 전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편이다. 또한 제주도는 한반도 서남해상에 위치한 섬지방이라는 지

3) 장사훈, 한만영, 앞의 책, P. 178.

4) 한만영, “제주도의 무속연구 -토산당굿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 8집 (서울 : 국악학회, 1979) PP. 5-32.

5) 이보형, “시나위권의 무속음악” 『문화인류학』 제 15집 (서울 : 한국문화 인류학회, 1976), PP. 79-86.

6) 이보형, “경서토리권의 무가민요” 『나운영박사 회갑기념 음악학 논총』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2), PP.

7) 이보형, “메나리토리 무가, 민요권의 음악문화” 『문화인류학』 제 15집 (서울 : 한국문화 인류학회, 1983), PP. 232-249.

8) 이보형, “한국무가의 음조직”, 88 예술분야 학술연찬,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p 11-22.

9) 백대웅, 최태현, 김해숙, 『전통음악 개론』 (서울:어울림, 1995), P. 102.



역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내륙지방과의 교류가 적고, 여러가지 문화적 충격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곳이었다. 따라서 내륙지방에 비해 古 문화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미루어보아 제주도 무악(巫樂)이 지닌 고유성과 특징은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무속은 크게 당제와 일반제 두 가지로 나눈다. 전자는 각 부락을 수호하는 당신에게 지내는 무의(巫儀)로서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 영등굿, 마부림굿, 신만곡대제(新萬穀大祭)가 있고, 후자는 일반 가정에서 생사, 질병, 생업등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신을 청하여 기원하는 의식으로 <영감놀이>, <귀양풀이>, <성주풀이>, <칠성새남>, <연신제> 등이 있다.<sup>10)</sup>

그리고 제주도의 당굿은 정월달의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와 음력 2월달의 영등굿이 주된 것인데, 칠머리당 영등굿은 영등굿이면서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의 제차까지 끼어 있다.

제주도 영등굿은 어부나 해녀의 해상 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주는 신으로 믿어지고 있는 영등신에게 지내는 굿으로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곳이다. 영등굿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지역에서 해마다 두 차례씩 행해지는데, 그것은 각각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sup>11)</sup>로 영등환영제는 영등신을 맞아들이는 굿이며, 영등송별제는 영등신을 환송하는 굿이다.

영등굿은 각 부락에 있는 본향당의 이름을 붙여 OO영등굿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영등굿 중에서 칠머리당 영등굿이 가진 특징은 첫째, 칠머리당 영등굿이 가장 규모가 크고 구성이 다채롭다는 점과

10)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서울 : 집문당, 1986), P. 232.

11) 칠머리당에서는 1년에 두차례 굿을 하는데 그것은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다. 영등환영제는 음력 2월 1일날에 행해지는 영등신을 맞아들이는 굿이요, 영등송별제는 음력 2월 14일에 행해지는 영등신을 치송하는 굿이다.

둘째, 신년과세제(新年過歲祭)에 행하는 제차(祭次)까지도 끼어 있어 제주도 당곳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칠머리당 영등굿이 원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큰 규모의 굿으로 행해져 내려온 이유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항구인 제주항에 정박하는 선박의 선주, 선원들과 시내의 해녀들이 주동이 되어 굿을 해 왔기 때문이다.

제주도 무속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과 민속학 분야에서 일찍부터 연구대상이 되어 왔지만, 음악학적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주도 무속음악에 관한 연구 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만영의 “제주도 무속연구”<sup>12)</sup>에서는 제주도 토산당곳의 음계 및 형식, 장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첫째, 반음이 없는 5음음계를 사용한점과 주로 하강형 선율형으로 되어 있는점 둘째, 그 형식으로 메기고 받는 형식, 바라지 형식, 혼자서 부르는 소리로 이루어진 점 셋째, 장단은 굿거리 장단형의<sup>13)</sup> 3분박에서 점점 빨라져 나중에는 휘모리나 단모리처럼 4/4로 변하는점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제주도 토산당곳은 경기민요의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하였고 이는 외국의 영향보다는 육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은자는 “제주도 성주풀이의 구성및 장단연구”<sup>14)</sup>에서 성주풀이의 구성 및 장단과 음악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첫째, 악기편성을 A(혼합합주부분)-B(단악기합주부분)-C(3악기반주부분)-B(단악기합주부분)으로 편성하였다. 둘째, 장단은 12/8의 중중모리형에서 점차적으로 빨라져 4/4 단모리형으로 변한다는 점

12) 한만영, 앞의 책, 1979.

13) 이 부분은 굿거리 장단이라기 보다는 중중모리 장단에 더 가까우므로 본인은 중중모리 장단으로 칭하겠다.

14) 김은자, “제주도 성주풀이의 구성및 장단연구”, 이화여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이다. 세째, 빠르기에 대한 용어를 '초판-늦은중판-조진중판-막판'으로 설명하였다.

위의 연구물들에서는 주로 제주도 무악의 음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장단에 관해서는 기본 장단의 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무가는 서사무가(敍事巫歌)가 많아서 율조리는 형식이 많고 노래로 불리는 대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또 심방<sup>15)</sup>의 사설이나 노래 없이 악기만으로 연주되는 부분이 많아 장단이 매우 화려하고 다채롭게 나타난다. 그런데 제주도 무악에 사용되는 악기 중에서 설쇠<sup>16)</sup>는 항상 같은 장단만을 치고, 대양<sup>17)</sup>은 첫박만을 때릴 뿐이다. 또 장고는 노래의 반주에만 쓰일 뿐이어서 장단의 화려함이 라든가 다채로움은 오직 북가락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장단형태의 틀 및 장단의 변화를 북가락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방법으로는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용왕맞이> 부분의 북가락을 채보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제주도 무속음악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2. 연구범위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절차는 대략 8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용왕맞이><sup>18)</sup>는 노래로 불리는 부분이 거의 없고,

---

15) 한국 본토에서는 무격을 무당, 만신, 당골, 무녀 등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여러가지로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무격을 심방이라 부르며, 그 중 우두머리를 수심방이라 하고 보조하는 심방을 부심방이라 부른다.

16) '쟁과리'의 제주도 방언

17) '징'의 제주도 방언

18) 제주도에서는 보통 '요왕맞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같은 음운끼리는 탈락, 축소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주도 무악장단인 ‘늦은석’, ‘중판’, ‘죽진석’이 모두 쓰이고 있어 장단연구에 적합하다. 칠머리당 영등굿의 모든 절차는 약 9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러한 큰 굿을 수심방 혼자서 치루기에는 매우 힘든 관계로 2시간 30여분정도 걸리는 <용왕맞이> 부분은 부심방에게 맡기는 것이 한 관례이다. 하지만 부심방에 의해 굿 절차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굿의 각 절차는 수심방의 지휘아래 이루어지는것으로 ‘부심방과 수심방의 <용왕맞이>의 절차및 내용은 거의 같다’고 김윤수는 말하고 있다.<sup>19)</sup>

따라서 본 논문은 1995년 양력 3월 14일 (음력 2월 14일)에 김윤수 수심방과 정태진 부심방의 칠머리당 영등굿 중 <용왕맞이>의 김영수가 치는 북가락을 대상으로 장단과 리듬을 분석하려고 한다.

<용왕맞이> 절차 중 <용왕질침> 이후부터는 북을 치는 악사가 지쳐서 김정숙소미(小巫)<sup>20)</sup>가 대신 연주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북가락의 기본장단만이 주로 연주되며, 북 연주의 리듬감이 부족하여 김영수가 언급했던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굿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지방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sup>21)</sup>, 제주도에서는 대양(울집), 북, 장고(장귀), 설쇠가 사용된다<sup>22)</sup>.

이 중에서 제주도는 사용악기의 명칭이 특이하며, 또한 악기를 ‘연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연장과 기물’의 준말인 연물은 일종의 도구라는 의미로서 서양음악의 instrument가 ‘도구’라는 의미인 것

19) 1995년 5월 4일, 김윤수씨 자택에서 이루어진 대담내용.

20) ‘小巫’를 제주도에서는 ‘소미’라고 읽는다. ‘소미’는 수심방과 부심방을 돕고, 악기도 연주한다.

21)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방에서는 장고, 바라, 피리, 젓대,해금이 쓰이고, 전라도와 충청도의 남부지방에서는 장고, 징, 피리, 젓대, 해금으로 편성되며, 경상도와 강원도의 동부지방에 서는 깡매기, 징, 장고가 사용된다. 평안도와 황해도 일부의 서도 지방에서는 장고, 바라, 깡매기가 쓰인다.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p.p 415-417.

22)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주도편-』 제5권, (서울: 문화재관리국, 1974), PP. 303-304.

과 비교해 볼때 '악기'의 고유한 우리말로 볼 수 있다.<sup>23)</sup>

영등굿에 사용되는 악기는 대양, 북, 장고, 설쇠인데, 이 중 북은 기본 장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변형장단과 함께 리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등굿에 쓰이는 장단의 특징은 북장단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현재 칠머리당 영등굿은 중요무형문화재 71호로 지정<sup>24)</sup>되어 있다.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연구자료에는 문헌적 자료와 현장조사 자료가 있다. 문헌적 자료는 국문학자, 민속학자에 의해 채록, 보고 되어 온 자료로서 『제주도 무속자료사전』<sup>25)</sup>, 『제주도 무속 연구』<sup>26)</sup>, 등이 있다. 현장 조사 자료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굿을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를 통하여 채집한 것으로 제 1차조사는 문예진흥원의 자료이고, 제 2차와 제 3차는 본인의 현장조사 이다.

본 논문의 현장조사는 제 1차(1994. 10. 4), 제 2차(1995. 3. 13 - 14), 제 3차(1995. 5. 4)의 세 차례로 행해졌고, 구술조사와 북가락 공부 그리고 가락채보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필자가 세 차례 현장조사로 얻은 연주 또는 대담녹음테이프와 발표공연테이프 등 연구자료와 조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는 1994년 10월 4일에 서울시 서초동 문예진흥원 자료관에서 행하여졌다. 1차 조사는 굿의 자료수집과 정보 수집, 굿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1985년 4월 3일(음력 2월

23) KBS 연중기획 「음악과 역사-전통음악의 뿌리를 찾아서」-무속음악편,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이보형의 설명중에서-

24) 『지정문화재목록』, 문화재관리국, P. 635.

2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1980)

26) 현용준, 앞의 책, 1986.



14일)에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행해진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자료로서 굿에 참가했던 사람으로는 수심방의 안사인(1926 - 1990), 부심방의 김윤수 외 多數의 소미들이었다. 이 자료는 비디오 테이프<sup>27)</sup> 약 30분 정도 녹화가 되어있는 것으로 칠머리당 영등굿 전체가 실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편집해 놓은 것으로 <용왕맞이> 역시 부심방인 김윤수에게 맡겨져 행해졌다.

2차 조사<sup>28)</sup>는 1995년 3월 14일(음력 2월 14일)에 제주도 건입동 사라봉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행해진 제주도 영등굿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1차 조사에서 부족했던 굿의 절차 및 구성과 연물치는 방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굿은 3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 30분 동안 행해졌다. 이 굿의 수심방은 제주 칠머리당굿의 보유자<sup>29)</sup>로 있는 김윤수였으며, 부심방은 정태진, 소미는 이용옥, 고순안이었으며, 악사는 북의 김영수, 설쇠의 김경숙, 대양의 김연희였다. 그 결과물은 비디오 테이프 2개와 카세트 테이프 7개였다.

3차 조사는 1995년 5월 4일에 김윤수의 집과 칠머리당 보존회관에서 악사인 김영수와 수심방인 김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3차 조사에서는 김영수의 북가락 연주와 김윤수의 칠머리당 영등굿의 구성 및 개요 등을 조사하였다. 2차 조사에서 얻은 비디오와 카세트의 채록 결과, 북가락의 윗채<sup>30)</sup>, 알채의 구분이 힘들고 또한 수심방이 부른 사설의 전달이 불확실하여 채집과 채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북가락만을 중심으로 재조사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북은 양손에 북채를 쥐고 북의 한 면만을 연주하기 때문에 왼

---

27) 문예진흥원 자료-전통분야 VTV-0083, VHS. -1995년에 행해진 굿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이다.

28) 2차 조사에서는 수심방과 악사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29) 1995년 6월에 보유자로 지정 받았다.

30) 제주도 북은 내륙지방과는 달리 한면을 양손으로 북채를 갈라쥐고 치는데 오른손으로 치는 것을 윗채라 하고 왼손으로 치는 것을 알채라 한다.



손과 오른손의 구분이 힘들다. 그래서 3차 조사는 연주방법까지 자세히 조사하였다.

김영수는 영등굿에 사용되는 북가락을 크게 3가지 종류(죽진석가락, 3-2-1-1채 기본 가락, 군채가락<sup>31)</sup>)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중 가장 변화무쌍하고 리듬이 다양한 가락은 군채 가락이라 한다. 그리고 군채 가락을 얼마나 잘 치는가에 따라 악사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군채 가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김영수 악사와의 대담에서는 본인이 채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과 애매한 북가락 부분은 비디오 테이프를 재 녹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물로는 대담 카세트 테이프 4개와 비디오 테이프 1개이다.

위의 세 가지 조사 이외에도 김윤수심방의 조언과 또한 이번엔 나이세스에서 김윤수를 중심으로 제작된 '무악 제주도 칠머리굿' CD를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1차 조사

장소 :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일시 : 1985. 4. 3. (음력 2월 14일)

참가자 : 수심방 - 안사인 (남 58세)

부심방 - 김윤수 (남 40세)

외 소미 다수

#### (1) 비디오 테이프 1개

소장 : 문예진흥원 자료관 VTV-0083, VHS

---

31) 김윤수는 '군채가락'이란 '군더더기 가락'을 이른다 하였다.

나) 2차 조사 (주자료)

장소: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일시: 1995. 3. 14. (음력 2월 14일)

참가자: 수심방 - 김윤수 (남, 50세)

부심방 - 정태진 (남, 52세)

소미 - 이용옥 (여, 41세)

고순안 (여, 49세)

악사(북) 김영수 (남, 58세)

(설쇠)김경숙 (여, 41세)

(징) 김영희 (여, 39세)

(1) 비디오 테이프 (2개)

소장: 필자소장

(2) 카세트 테이프

소장: 필자소장 (7개)

위의 곳에 참가한 수심방과 부심방 및 소미(小巫)들은 여러 악기 연주와 역할이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수심방은 제를 주관한 사람이지만, 혼자서 굿 전체를 이끌 수 없으므로 부심방에게 일부 절차 즉 <용왕맞이> 부분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절차를 준비한다.

다) 3차 조사 (대담내용, 주자료)

장소 : 제주도 칠머리당 보존회관, 김윤수 자택

일시 : 1995. 5. 4.

대담자: 수심방 김윤수 (남, 50세)

악사(북) 김영수 (남, 65세)

(1). 카세트 테이프

소장 : 필자소장 (4개)

(2) 비디오 테이프

소장 : 필자소장 (1개)

라) 기타 자료

[무악 제주도 칠머리굿] CD SCO-066CSS

일시 : 1995.

참가자: 북 - 김윤수, 한샘소

소리 - 강순선

장고,소리 - 김윤수

장고,뿔가리 - 이용옥

징 - 김연희

마) 사용기기

사 용 기 기	제작회사	모 델 명	비 고
녹음기	AIWA	JS 345	
녹음 테잎	선경	SK 60 NORMAL POSITION	60분용
비디오 카메라	삼성	SV-H33 8mm Hi Band	
비디오 테잎	선경	SKC Super Hi Fi VHS	

그런데 위의 자료들은 판긋의 절차나 가락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굿의 현장 음악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연주상황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차 조사와 기타 자료를 참고자료로 삼고, 2차·3차 조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북가락을 채보하고 분석할 것이다.

육지 지방의 곳에서는 가락악기나 쟁가리가 주도적인 악기이지만, 영등곳에서는 북이 그 역할을 대신 한다. 영등곳의 설쇠<sup>32)</sup> 가락은 ♩ ♩ ♩ ♩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단지 빠르기만 달라질 뿐이다. 북가락은 그 리듬꼴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징은 장단 첫머리나 골격을 치므로 북장단의 주기나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설쇠 가락을 제외하고 북가락만을 채보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다만 징은 장단의 첫박(또는 강박)에 치므로 타점만을 채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영등곳의 유래와 절차 및 영등곳 구성의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한다.

둘째, 영등곳에 사용된 악기에 대해 살펴본다.

세째, <용왕맞이> 부분의 절차와 각 절차에 따른 북가락을 채보하여 정리한다. 네째, 채보된 북가락을 속도에 따라 '늦은석', '늦은중판', '중판', '조른중판', '조른석'으로 나누고, 가락에 따라 '늦은석', '3-2-1-1-채', '군채'가락으로 나누어서 가락에 변화를 주는 방법과 '군채'가락의 종지형 및 그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가락(Melody), 리듬(Rhythm) 장단(Rhythmic Cycle) 등의 용어 개념은 다음과 같다.

분석의 최소단위를 리듬이라 하고, 마디를 이루는 것은 장단이라 하고, 장단이 모여서 이루는 단위를 악구라 하며, 악구가 모여서 이루는 전체를 가락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리듬, 장단, 악구, 가락은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나열한 것이다.

---

32) 늦으로 만든 밥그릇 모양의 악기로 쟁가리와 유사하며, 제주도에서는 설쇠라 부른다.

긱의 절차는 < >, 소절차는 [ ], 속도에 따른 장단명은 ' ', 가락의 명칭은 「 」로 묶어 표기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군문열림>과 [연유닭음], '중판', 「군채」로 표기할 것이다.

본고의 말미에 수록된 악보의 채보 방법상 몇가지 원칙을 두고자 한다.

첫째, 편의상 한 장단을 한 소절로 표시하였다.

둘째, 속도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곡의 중간중간에 빠르기 표시를 여러번 제시 하였다. 왜냐하면 제주도 긱의 장단은 일정한 이름이 없고 속도에 따라 '늦은석'-'늦은 중판'-'중판'-'조준중판'-'조준석'이라 부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는 장단의 변화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셋째, 북은 양손으로 치기 때문에 악보상 위는 오른손의 윗채이며, 아래는 왼손의 알채이다.

## II. 칠머리당 영등굿의 개요

### 1. 영등굿의 유래 및 개설

영등굿의 유래와 개설, 절차에 관하여서는 현용준의 글<sup>33)</sup>과 보고서<sup>34)</sup>, 『제주도 영등굿』<sup>35)</sup> 등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다.

제주도의 영등굿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등굿에 대한 기록은 『東國餘地勝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초하루에 귀덕(歸德) 금녕(金寧) 등지에서는 나뭇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애월(涯月)에 사는 사람들은 떼 모양을 말머리와 같게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약마희(躍馬戲)를 해서 신을 즐겁게 했다. 보름이 되어야 끝내니 이를 연등(燃燈)이라 한다. 이달에는 승선(乘船)을 금한다.<sup>36)</sup>

위의 글에서 언급된 내용 중 몇 가지는 오늘날의 영등굿과 그 양상이 같다. 첫째, ‘연등(燃燈)’은 오늘날의 ‘영등(迎燈)’을 한자 표기한 것이다. 둘째, 제일(祭日)이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는 2월 1일에 영등환영제를 하고 구좌읍(舊左邑), 우

---

33) 현용준, 앞의 책, 1986.

\_\_\_\_\_,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1호, (서울: 한국민속학회, 1970) PP. 17-136.

34) 『중요무형문화재 해설-놀이와 의식편』, (서울: 문화재관리국) PP. 301-315.

35) 장주근, 이보형, 『제주도 영등굿』 한국의 굿 3, (서울: 열화당, 1983)

36) “又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迎神齊之 居涯月 者 得差形如馬頭者 餘以彩帛 作躍馬獻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然燈 是月禁乘船” 동국여지승람 28권 濟州牧 風俗條. 현용준, 앞의 책, 1986. 재인용.



도(牛島) 등지에서 2월 15일에 영등송별제를 하고 있어 위의 내용과 일치한다. 세째, 영등달에는 승선을 금하는 관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영등송별제를 지내기까지는 어로를 나가지 않는 관습이 있다. 네째, 영등곶이 성행했던 곳으로는 한림읍(翰林邑), 귀덕리(歸德里), 구좌읍(舊左邑), 금령리(金寧里), 애월읍(涯月邑) 애월리(涯月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어촌이며 오늘날 어촌에 주로 영등곶이 분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한다.

칠머리당곶이란 제주시 건입동(濟州市 健入洞)의 본향당(本鄉堂) 곶을 말한다. 본향당이란 마을 전체를 차지하여 수호하는 당신을 모신 곳이다. 건입동의 본향당을 칠머리당이라 일컫게 된 것은 그 지명에서 유래했다.

칠머리당은 본래 제주시 산지항 바닷가 바로 위 30m정도 높은 언덕 끝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해운항만청의 확장공사로 인해서 칠머리당이 없어지고 현재에는 제주시 건입동의 동쪽 제주항과 사라봉 중간에 바닷가 언덕위로 옮겨졌다.<sup>37)</sup>

칠머리당의 신은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 과 ‘용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 이다. 이 두 신은 부부신으로서 남편인 도원수감찰지방관은 마을 전체의 토지, 주민의 생사, 호적 등 생활 전반을 차지해 수호하고, 부인인 용왕해신부인은 어부와 해녀의 생업 그리고 외지에 나간 주민들을 수호해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칠머리당 곶은 본향당신을 위하는 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칠머리당 영등곶은 건입동에서 본향당인 칠머리당에서 영등신을

37)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었다.

“본래 칠머리당은 이 마을의 동쪽 언덕 먹돌개위라는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일제시대때 제주항을 확장하여 방파제공사를 할 때 이 당 주변을 헐어 조용한 것으로 옮긴다 하여 제주항과 사라봉 중간의 바닷가 언덕 위로 옮겼다. 이 곳의 지명이 속칭 ‘칠머리’이므로 ‘칠머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주신(主神)으로 하여 행하여 진다. 물론 칠머리당굿 전체가 영등신에게만 바치는 곳은 아니다. 그 일부 제차(際次)로 본향당신을 청해 위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굿의 대부분이 영등신에게 어부와 해녀의 해상 안전과 어업의 풍요를 비는 굿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니까 본향당신에 대한 굿은 일부 곁들이는 것이고 실은 영등신을 위한 영등굿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향당신을 중시하지 않고 영등신을 중시하여 영등굿을 하게 된 이유는 건입동이 어촌이기 때문이다. 건입동이 어촌이었으므로 본향당굿이 그들의 해안 생활과 생업의 풍요를 주는 영등신에 대한 영등굿으로 치루어지게 되었고, 이 마을이 오늘날 항구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지만 역시 어업의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영등굿이 끊이지 않고 전승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은 1980년 11월 17일에 무형문화재 71호로 지정되었다. 전 보유자는 안사인(1928- 1986)이었으며, 현 보유자는 김윤수(1946 - )이다.

## 2. 절차 및 구성

1995년 3월 14일(음력 2월 14일)에 행해졌던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은 영등신을 보내는 송별제로 치루어졌다. 칠머리당은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에 있는 당으로 이 굿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개 해녀이거나 어업, 선박업자들이다. 이들 역시 각자 정성으로 제물을 차리는데, 더러는 공동으로 대형 조립식 상을 벌이고 제물을 차리기도 한다. 칠머리당 영등굿의 절차는 크게 8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초감제>, <본향뎡>, <용왕 맞이>, <마을 도액 막음>, <영감 놀이>, <씨드림>, <배방선>, <도진>으로 나눌 수 있다.<sup>38)</sup>

38) 1995년 3월 14일(음력 2월 14일)에 행해진 굿을 기준으로 한다.



### 가) <초감제>

<초감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경까지 행해진다. 신에게 굿을 알리는 첫 의례인 동시에 신을 청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당맨심방<sup>39)</sup>인 김윤수가 맡았다. 수심방 김윤수는 옥색 두루마기, 남색 쾌자 위에 흰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허리에는 관대(冠帶)를 차고 삼석치기<sup>40)</sup>를 시작으로 일만 팔천신을 모셔서 기원하는 <초감제>를 시작하였다. 그 소절차로는 [베포·도업침], [날과 국섬김], [연유 닦음], [군문 열림], [주잔권잔], [분부 사림], [새드림], [신청례], [열명 올림], [추물공연] 이 있다. [베포·도업침] 부터 [열명 올림]까지는 레시터티브 형태로 진행되며, [추물공연]은 고순안 소미에 의해 행해지는 절차로 제장(祭場) 가운데 앉아서 장고를 직접치면서 장고반주에 맞추어 노래부른다.

#### (1) [베포·도업침]

수심방이 요령, 감상기, 신칼을 들고 서서 여러 신들에게 천지혼합부터 우주개벽, 일월성신의 발생, 국가의 형성, 국가의 발생, 지리, 역사적 사상의 발생을 차례로 노래해 간다. 한 단락의 노래가 끝날때 마다 소미(小巫)가 치는 북, 징, 설쇠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고 춤이 끝나면 다음 단락의 노래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노래는 레시터티브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2) [날과 국 섬김]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고해 올리는 절차이다.

#### (3) [연유 닦음]

39) 그 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제심방(司祭神房)으로 수심방이라고도 한다.

40) 설쇠, 북, 징의 연물에 로 와 같은 장단을 「느림-보통-빠름」의 3가지 한배로 치는 것을 말한다.



이 당굿을 올리게 된 연유를 신들에 고해 올리며, 신들의 강림을 청하는 절차이다.

(4) [군문열림]

신들이 하강(下降)하기 위해서는 신궁(神宮)문이 열려야 되므로 수심방은 감상기, 도랑춤<sup>41)</sup>으로 군문 여는 과정을 시행하며, 무점으로 판단하여 자손들에게 神意를 전달한다.

(5) [주잔 권잔]

강림(降臨)한 여러 신 중 하위 잡신을 대접하는 내용의 사설을 하며 소미는 술을 입에다가 한모금 넣어 조금씩 뿌리는데 이것은 부정을 씻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다.

(6) [분부 사뵐]

신궁(神宮)문을 연 후, 수심방은 문이 열렸는가를 신칼과 산판<sup>42)</sup>으로 무점을 쳐서 판단한 후 신의 뜻을 자손들에게 전달한다.

(7) [새드림]

신궁(神宮)문이 열렸으니 신이 오는 길의 모든 사(邪)를 쫓아 깨끗이 하는 대목이다.

(8) [신청궐]

신들이 오는 길의 사(邪)를 쫓아 깨끗이 했으니 신들을 청해 들이는 절차이다. 수심방은 1만 8천 신이라는 신들을 위계순으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청해 들여 제장에 좌정하도록 하며, 신들의 강림(降臨)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 그 여부를 점치고 그 뜻을 자손들에게 전달한다.

(9) [열명 올림]

굿에 참석한 자손들에게 열명(列名)을 올려 축원하는 제차이다.

(10) [추물공연]

---

41) 현용준, 앞의 책, 1986.

42) 신궁 문이 열렸는지의 여부를 점치는 무구.

이미 청해서 모신 모든 신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공갚음으로 음식을 올리며 젖상에 차려 올린 음식을 모두 드시라고 권해 드리는 절차이다.

#### 나) <본향듬>

오후 12시 40분부터 시작하여 1시 30분경까지 행해진다. 이 절차는 본향당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용왕해신부인을 제장으로 청해 들어 축원하는 제차이다. 수심방인 김윤수가 진행하며, 그 절차는 [베포·도업침], [날과 국섬김], [연유닭음], [군문 열림], [신청괘], [자손들 소지올림], [분부 사뵐], [석살림]으로 나눌 수 있다. 노래는 <초감제>와 같이 레시터티브 형식으로 불리운다.

(1) [베포·도업침]

(2) [날과 국섬김]

(3) [연유 닭음]

위 세 절차는 <초감제>의 절차 내용을 축소하여 행한다.

(4) [군문 열림]

<초감제> 때와 거의 동일하며, 다른점은 본향당신이 오시는 문만을 연다는 점이다.

(5) [신청괘]

<초감제> 때와 동일하나, 절차 내용을 축소하여 행한다.

(6) [자손들 소지 올림]

자손들 모두가 차례로 10명씩 무리를 지어 젖상 앞으로 가 앉아 소지를 태워 올린후 절을 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해 둔 소원을 본향신에게 올리는 절차이다.

(7) [분부 사뵐]

<초감제> 때와 동일하나, 절차 내용을 축소하여 행한다.

(8) [석살림]

흥겨운 가락과 춤으로 신들을 즐겁게 놀리고 나서 기원하는 절차로 심방은 노래와 춤으로써 여러 신에게 향축을 올리고 주잔을 권하고 자손들이나 단골<sup>43)</sup>들까지도 무두 제장(祭場) 한 가운데로 나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논다.

다) <용왕맞이>

<용왕맞이>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행해진다. 그 내용과 개요는 다음 장에서 북가락 연구와 함께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절차는 <초감제>, <추물공연>, <나까도전침>, <용왕 질침>, <용왕 문열림>, <소지>로 나누어 진다. 부심방인 정태진이 진행하였다.

라) <마을 도액 막음>

마을 도액 막음은 오후 4시 30분 부터 4시 50분까지 행해진다. 1년 동안 마을 전체의 모든 액을 막음으로써 행운을 얻게 하는 제차이다. 액막이상을 내어 놓아 심방이 '본풀이'를 하는데 이는 저승 사자를 잘 대접해야 장수한다는 것을 근거삼아 액을 막는다. 예전에는 사람 목숨 대신 닭을 잡아가도록 하는 의미에서 수탉을 죽여 당 밖으로 내던졌으나, 몇 년 전부터는 사라졌다. 수심방이 제장의 한 가운데에 서서 반주없이 레시터티브로 노래한다.

마) <영감 놀이>

<영감 놀이>는 오후 5시 10분 부터 5시 30분 까지 행해진다. 무속의례인 굿인 동시에 연희인 놀이다. 본래의 내용으로는 도깨비신의 범접으로 앓은 병을 그 신의 형들을 유인해다가 범접한 동생을

---

43) 굿을 지켜보는 구경꾼을 가리키는 말로 남쪽 지방에서는 여자 무당을 지칭할 때 쓰인다.



데려가버리게 함으로써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칠머리당 영등굿에서는 영감 가면과 옷을 입은 6명의 소무들과 수심방의 극적인 대화와 행위를 통하여 그 신의 성격, 식성 등을 확인하고 그 의례(儀禮) 성을 입증해서 신이 제주(祭主)의 소원 즉 해녀와 어부들의 해상 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또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감들과 그 자손들이 메기고 받는 소리로 한바탕 서우젓 소리를 하며 논다. 이때 영감들은 배를 띄우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모형배 4개를 하나씩 갖고 춤을 춘다.

이 놀이는 본래 <초감제>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지내는 것이나 영등굿에서는 간단하게 진행되는데 이것은 다른 당의 영등굿에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그리고 <영감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영감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행해지는 부분이 있다.

수심방인 김윤수가 북을 연주하였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가락 연주방법이다. 칠머리당 영등굿 모든 절차에서의 북은 양면고(兩面鼓)이지만 한면만을 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양면 모두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한손으로는 북채를 사용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손바닥으로 친다.

#### 바) <씨드림>

<씨드림>은 <영감놀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옆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씨드림>은 파종이란 뜻으로 미역, 전복, 소라, 등 해녀 채취물의 씨를 바다에 뿌려 많이 번식하게 하는 제차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씨란 용왕맛이의 절차 중 <나까도 전침>에서 가지고 노는 떡을 가르친다. 본래는 해녀들이 좁씨를 넣은 '밀망탱이'를 어깨에 매고 가진연물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일제히 바다로 달려 들어가면서 미역씨 뿌립니다. 소라씨, 전복씨 뿌립니다. 많이 많이 여십시

오. 우리 일만 해녀들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씨를 바닷가에 던졌다고 한다.

바닷가에서 돌아오면 씨점을 하게 되는데 제장(祭場) 중앙에 조그마한 돛자리를 깔고 둘러 앉아 시작한다. 수심방은 돛자리 위에 좁씨를 동쪽으로 서쪽으로 뿌리고, 다음 반대방향에서 뿌리고 마지막에는 돛자리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힘차게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뿌려진 좁씨의 밀도를 자세히 관찰하여 어느 쪽에 채취물이 풍성하는지를 예언했다. 이 곳에서는 바닷가에 가서 씨를 뿌리는 것은 생략하고 씨점만을 쳤다.

수심방인 김윤수가 진행하였다.

#### 사) <배방선>

<배방선>은 오후 6시부터 6시 20분 까지 행해진다. <배방선>은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치송하는 제차이다. 본인이 조사한 1차 조사에서는 배방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송별잔 나눔'이라 해서 여러 신들이 송별의 술잔을 나누는 절차를 한다. 미리 짚으로 약 50cm 길이의 모형배 한개를 만들어 두었다가 젣상에 올렸던 모든 제물을 조금씩 덜어내어 배에다 싣고 이 배를 어선에 실어 멀리 나가 우도<sup>44)</sup>쪽으로 띄워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모형배 4개를 칠머리당 밑의 방파제에서 바닷가에 띄워보낼 뿐이다.

영감들과 그 자손들이 배를 띄워보냈다.

#### 아) <도진>

<도진>은 오후 6시 20분부터 30분까지 행해졌다. <초감제>때 불러들인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제차이다. 수심방이 이 당곳에

---

44) 영등신이 칠머리당에서 하루를 묵은 후에 우도를 경유하여 바다로 나간다고 한다.



모셔졌던 신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돌아가시라는 사설을 노래하며 당곳의 모든 제차는 끝이 난다.

### 3. 제주도 굿에 사용된 악기 (참고 사진 참조)

濟州道 굿에서 쓰이는 악기는 징, 설쇠, 북, 장고 등 打樂器만이 쓰이고 피리, 젓대, 해금 같은 선율악기는 쓰이지 않는다. 무의식에 서 타악기만을 쓰는 지역은 제주도, 동해안지방,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지방 등이다. 제주도 굿에 사용된 악기로는 징, 설쇠, 북, 장고가 있는데 이를 '연물'이라 하고 징, 설쇠, 북, 장고의 四種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구진 연물'이라 한다. 이외에도 요령과 바라는 춤을 추면서 사용하였던 무구이다.

#### 가) 징

제주도 굿에서 쓰는 징을 가르켜 '대양' 혹은 '울집'이라고 부른다. 대양은 세수할때 쓰이는 대야를 사투리로 '대양', '대영'이라 이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 진다.<sup>45)</sup>뚝으로 만들어 졌으며, 직경은 약 32cm 깊이는 약 9cm 정도의 것으로 둘레에는 손잡이용 끈이 달려있어 한쪽 손으로는 들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굽은 채를 가지고 쳐올리게 되어 있다. 제주도 무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악기이며, 주로 장단 첫 박에 많이 치며 북, 설쇠와 더불어 춤의 반주에 많이 쓰인다.

#### 나) 장고

제주도에서 쓰이는 장고는 '장귀'라고도 부르며, 육지 지방의 것

45) 김수남, 장주근, 이보형, 『한국의 굿 3.-제주도 영등굿-』 (서울 : 열화당, 1983) P. 119.



과 비교하여 보면 약간 작다. 장고는 직경 30cm 내외로 되어 있고 통의 길이는 45cm 내외 것으로 나무통은 중앙 부분에서 3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3동막 살장고'라 한다.<sup>46)</sup> 오른손으로는 가늘고 긴 대나무로 만든 열채를 쥐고, 오른편 북판을 치며 변죽은 치지 않는다.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북판을 친다.<sup>47)</sup> 장고는 무가 반주에 주로 쓰인다.

#### 다) 북

북은 '울북'이라고도 한다. 높이 22cm 정도의 북통 양면에 쇠가죽을 붙인 양면고(兩面鼓)로서 직경은 약 35cm 정도 된다. 육지지방에 비하여 지름이 크고 높이가 얇아서 넓적하게 된 것이 많다. 모양은 풍물북과 같아서, 못으로 가죽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끈이나 가는 가죽을 번갈아 엮어맨다. 북채는 손가락 굽기의 대나무 밑동으로 만든 것이고 끝은 대나무 뿌리 부분으로 공기와 같이 조금 굽게 되어 있는데 끝이 밖으로 약간 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북은 주로 남자가 치며, 얇은 소쿠리나 바구니에 북을 비스듬히 세워 놓고 양손에 북채를 갈라 쥐고 북의 한 면만을 친다. 오른손을 아래에 두고 왼손을 위에 두고치기 때문에 오른손에 드는 채를 '알채'<sup>48)</sup>, 왼손의 채를 '윗채'라 부른다.<sup>49)</sup> 주로 채는 번갈아 가면서 치며 알채를 주박(主拍)에서 크게 친다. 또한 심방의 굿소리(굿노

46) 김은자, "제주도 성주풀이의 구성 및 장단" (서울 : 이화여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47) 무속음악에서 왼편 북판을 손바닥으로 치는 지방은 제주도, 전라, 충청, 경기도이고 동해안에서는 궁글채를 쥐고 친다.

48) '알채'는 '아래 채'의 뜻.

49) 김수남, 장주근, 이보형, 전게서, P. 118. - 김영수는 오른손을 위로 하고 왼손을 아래로 하여 연주하였다. 그래서 오른손이 윗채, 왼손이 알채라고 하였으나, 이보형은 위의 책에서 왼손이 윗채, 오른손이 알채라 하였다. 이것은 이보형의 의견이 옳다.

래)에 대한 반주로서 북을 칠때는 판소리의 북장단을 치는 것과 같이 두손으로 가죽을 친다.

굿에서 북은 춤의 반주에 쓰이고 그 밖에 소리 반주에도 쓰이는데 춤의 반주에는 설쇠, 대양과 함께 편성된다.

#### 라) 설쇠

육지 지방의 팽가리를 이곳 제주도에서는 '설쇠'라 부른다. 모양은 육지 지방의 팽가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지만, 그 형태나 연주하는 방식은 다르다. 설쇠는 밀이 불룩한 낫쇠그릇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체를 얹어 놓아둔 그 위에 설쇠를 얹어놓고 형짚으로 끈 설쇠채를 양손으로 쥐고 친다. 리듬꼴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데, 이를 구음으로 설명하면, '늦-광 낫-광'<sup>50)</sup>으로 시작하여 그 빠르기가 점차적으로 빨라지면 '열두 당번'<sup>51)</sup>으로 치게 된다. 주로 심방이 춤을 출때에 소미가 설쇠로 반주한다.

#### 마) 요령

'방울'이라고도 하며 악기라기 보다 '바라'와 같이 무구(巫具)의 하나이다. 음향을 발하여 악기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다른 악기와 합주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 중간부분에 흔들여 소리를 낸다.

#### 바) 바라

흔히 '바랑'이라고 부른다. 육지 지방에서와 같이 둥글게 낫쇠판을 쳐서 만든 것도 있지만 대개 낫사발 뚜껑 두개를 마주쳐서 대신하기도 한다. 바라는 흔히 쓰이는 것이 아니고 [불도 맞이] 나

50) 제주도 방언으로 '너랑 나랑'을 뜻하며, '♪ ♫ ♫ ♫'의 리듬형이다.

51) '늦-광낫-광'과 같은 리듬형이지만, 속도가 조금 빠르다.

[석살림] 과 같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절차에 흔들여 소리를 낸다.



### III. <용왕맞이>의 구성 및 가락

#### 1 <용왕맞이>의 개요

<용왕맞이>는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의 절차 중 하나로 오후 2시 부터 시작하여 4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해졌다. 이는 부심방의 정태진(남, 52세)의 주관 아래 치루어졌고 소미인 고순안(여 49세), 북의 김영수(남, 65세), 설쇠의 김정숙(여, 48세), 징의 김영희(여, 38세)과 함께 이루어 졌다. 이 중 김영수의 북가락을 중심으로 <용왕맞이>의 구성 및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sup>52)</sup>

이 <용왕맞이>는 바다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믿는 여러 용왕신들과 밭이나 바다에 모든 씨앗을 주고 떠난다고 믿는 영등신을 祭場으로 모셔다가 대접하고 기원하는 절차이다. <용왕맞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제장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 용왕들과 영등신이 올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치워 닦기 위해서 행해지는 절차이다.

영등신과 여러 용왕들이 올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m쯤 되는 앞이 붙은 뗏가지 8개를 제장 중앙에 2열로 나란히 꽂아 놓는다. 이 뗏가지에 백지, 지전, 돈 등을 걸어 놓는데, 그 뗏가지 하나하나가 바로 용왕과 영등신이 오는 문이고 바로 그 사이가 여러 신들이 제장으로 오는 길, 즉 요왕질(길)이라 한다.

---

52) 용왕 맞이의 구성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글과 보고서 등을 정리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현용준, 앞의 책, 1986.

\_\_\_\_\_, 앞의 논문 “제주도의 영등굿”, 1970.

『중요무형문화재 해설-놀이와 의식편』, (서울: 문화재관리국) PP. 301-315.

장주근, 이보형, 『제주도 영등굿』 한국의 굿 3, (서울: 열화당, 1983)

## 2 절차 및 구성

<용왕맞이> 구성은 제차(祭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6부분으로 나눈다.

<초감제>, <추물공연>, <나카도 전침>, <용왕 질침>, <용왕문 열림>, <소지>

이상의 6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가) <초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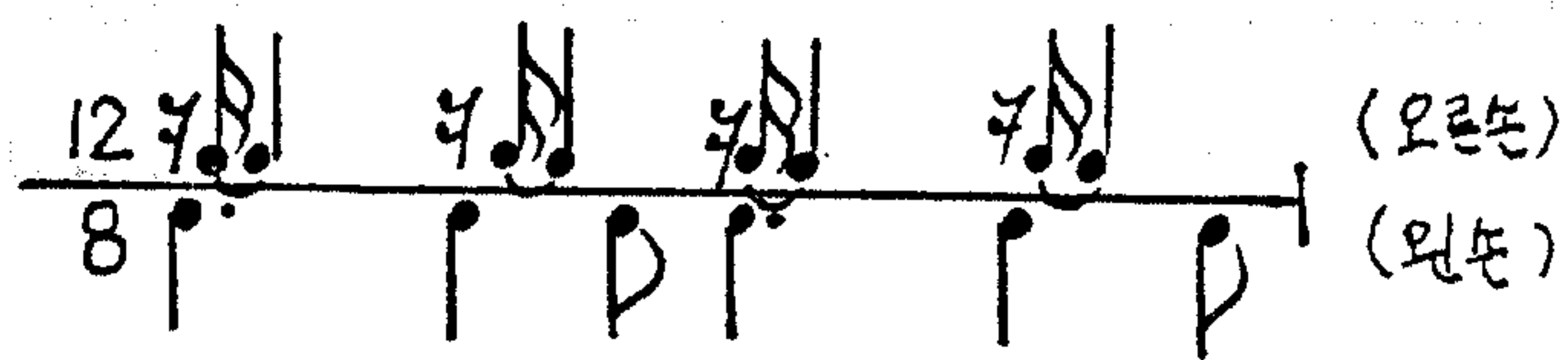
<초감제>는 굿을 알리는 가장 처음의 절차로 소미들이 치는 ‘삼석치기’로 시작된다. 수심방은 젓상앞에서 4배(拜)를 하고 북, 설쇠, 징 3 종류의 연물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레시터티브처럼 사설을 읊조린다. 곧 신을 불러 들이는 과정으로서 제의(祭儀)의 장소, 날짜, 연유를 알리고, 인정(돈)을 건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씩 불러 축원해준다. <초감제>의 구성은 제차에 따라 ① <베포·도업침>, ② <군문 열림>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은 약 60분가량이 소요된다.

#### (1) <베포·도업침> (부록악보 1)

<베포·도업침>이란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베포친다’와 ‘도업친다’의 합성어이다. 천지개벽(天地開闢)부터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발생 산수국토(山水國土)의 형성, 국가의 발생, 중국, 한국의 역사·지리 등 자연 인문사상의 발생을 차례로 노래해 간다. 이는 신들에게 무의를 행하는 장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천지개벽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확대 설명한다. 그리고 느리게 자유리듬으로 레시터티브하듯 소리를 잠깐 하다가 ‘늦은석’으로 춤을 추다가 다시 소리를 하는 형식으로 반복된다. 소절차로는 날과 국섬김, 연유 닦음, 열명 올림의 3부분으로 나눈다.

‘늦은석’장단은 보례1)과 같이 주로 연주된다. 설쇠의 가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 ♩ ♩ ♩로 항상 일정하며, 절차에 따라 빠르기만 다를 뿐이다. ‘늦은석’ 장단의 경우 징은 한 장단에 두번을 친다.(보례 2) 사설은 일정한 장단이 없이 불규칙하게 읊조리며, 각 음句의 끝은 길게 빼면서 요령을 흔들며 끝을 맺는다.

보례1) <초감제>의 북가락



보례2) 징가락



### ① [날과 국섬김]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수심방이 고해 올리는 것으로 <베포·도업침>과 같다.

### ② [연유 닦음]

굿을 하게 된 동기를 읊조리며 신들의 하강을 청하는 것으로 <베포·도업침>보다는 약간 빨라져서 ♩ = 50정도의 빠르기로 진행된다.

### ③ [열명올림]

선장(船長)을 비롯하여 해녀회장, 동장, 상단골 순으로 모든 참석자의 열명을 올려 축원하는 제차이다. 축원해 주는 부분로 무반주로 진행된다.



## (2) <군문 열림>

신들이 하강하기 위해서는 신궁문이 열려야 되므로 수심방은 군문 여는 과정을 시행한후 군문이 열렸는지 무점(巫占)을 친후 제주(祭主)에게 알려주는 제차이다. 수심방은 요령을 가끔씩 흔들면서 레시터티브로 사설을 읊조린다. 소미들이 연주하는 '늦은석'으로 춤을 추다가 '늦은중판', '중판', '작은중판', '죽은석'의 순으로 춤을 춘다. 그 후 심방은 레시터티브로 군문여는 사설을 읊조리다가 '죽은석'으로 격렬하게 춤을 춘다. 군문이 열리면 '중판'을 연주하고, 마지막에는 '늦은석'으로 끝을 맺는다. 이 부분은 ㄱ.군문 돌아봄, ㄴ.군문 열림 ㄷ.주잔권잔 ㄹ.분부사뵐 ㅁ.신청케로 나눈다. 시간은 대략 45분이 소요된다.

제주도에서는 고유의 독특한 장단명을 사용하는데 이는 크게 나누면 '초판 - 중판 - 막판'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김영수는 '초판'에서 또 다시 '초판-중판-막판'으로, '중판'에서도 또 '초판-중판-막판'으로 잘게 나눌수 있다고 한다. '초판'에서 '중판'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수심방의 동작에 따라 조금씩 -보는 사람도 느끼지 못할 정도- 빨라져 간다.

수심방 김윤수와 소미인 이영옥은 제주도의 빠르기에 의한 장단명을 '늦은석', '늦은중판', '중판', '죽진중판', '죽진석'으로 지칭한다. 필자도 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주도의 빠르기말을 MM♩.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제주도의 장단명과 빠르기

늦은석(초판) - 늦은중판 - 중판 - 죽진중판 - 죽진석(막판)				
♩.=	35-40	80-90	110-120	130-135 170이상

① [군문 돌아봄] (부록악보 2)

신궁문을 돌아보는 절차로서 수심방은 신칼과 감상기, 요령을 들고 북·설쇠·징의 연몰에 맞추어 춤을 춘다. 이때의 장단과 빠르기는 <초감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군문 돌아봄]의 빠르기는 '늦은석-늦은중판-중판-조진중판-늦은석'으로 연주된다. 빠르기가 빨라짐에 따라 가락의 변화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3채-2채-1채-1채」의 형식과 「군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북, 설쇠, 징이 연주된다. 3채란 한 장단 안에서 3.을 오른손으로 3번 연속 치는 형태를 말하고, 같은 방법으로 2채는 두번, 1채는 한번을 친다. 「3채-2채-1채-1채」가락은 한 악구의 초두에 사용되며 「군채」란 「3채-2채-1채-1채」가락의 뒷부분에 나오는 장단들을 이른다. 「군채」는 악구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3채-2채-1채-1채」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즉흥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연주자의 음악내용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군문 돌아봄]에서 자주 쓰이는 「3채-2채-1채-1채」와 「군채」가락을 제시하면 보례3)과 같다.

보례3) [군문 돌아봄]의 북가락

① 「3채-2채-1채-1채」

3채	
2채	
1채	

② 「군채」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Gun-chae' (군채). The notation is written on five staves. Each staff has a melody line and a rhythm line. The first staff is numbered 1, the second 3, the third 5, the fourth 7, and the fifth 9. The rhythm line for each staff shows a sequence of notes and rests, with some notes marked with '7' or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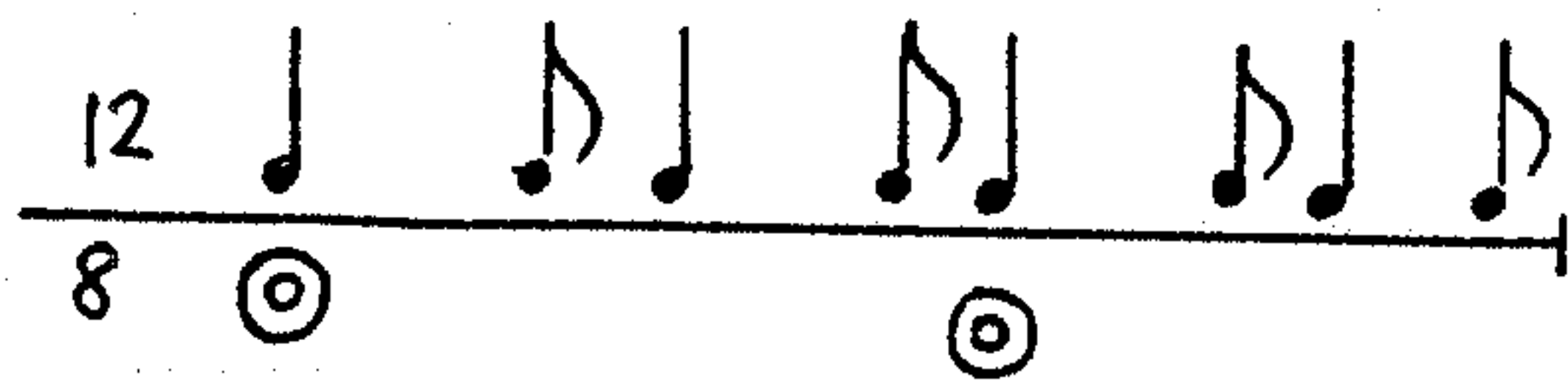
설쇠가락은 항상 일정하게 연주된다. 징은 처음에는 보례4)처럼 연주하다가 박자가 빨라지면 질수록 보례5)와 같이 그 타점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례4) 징 가락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Bo-rye 4) 징 가락' (Bo-rye 4) 징 가락). The notation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It shows a melody line and a rhythm line. The first staff is numbered 12, and the rhythm line shows a sequence of notes and rests, with some notes marked with '8'.



보례5) 징 가락



② [군문 열림] (부록악보 3)

신들이 하강하기 위해서 신궁(神宮)문이 열려야 되므로 수심방은 감상기와 도랑춤으로 군문을 여는 과정을 시행한다. 소무들의 악기가 울려 퍼지고 수심방은 신칼과 요령, 감상기를 양손에 들고 춤추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도는 춤으로 김윤수는 느린 반주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이 어렵다고 한다. 점점 반주 음악이 빨라지면서 수심방의 춤사위 역시 점점 격렬해져서 요란하게 뛰어다니며 따에 엎드렸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획하니 뛰고 저쪽으로 뛰어가서 넘어지다가 이쪽으로 다시 뛰어와서 넘어지고, 또 꺾충꺾충 뛰기도 한다. 이때 수심방의 표정은 화가 잔뜩 나있는 것처럼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며 온 몸에는 땀이 흐를 정도로 요란하게 춤사위를 벌인다. 이 요란한 춤을 '도랑춤'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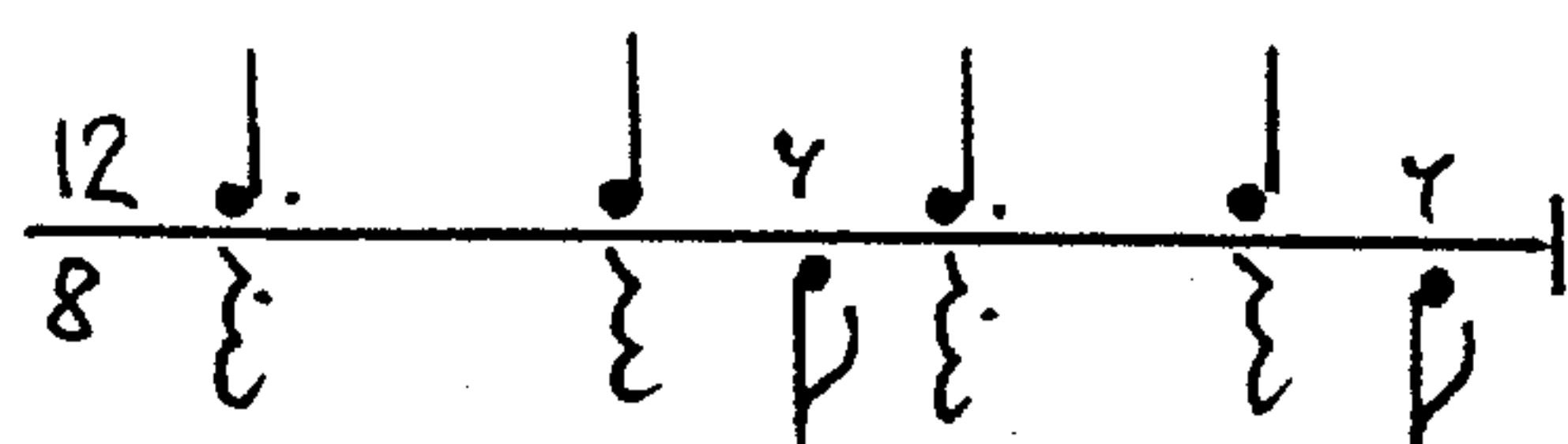
이때 소미도 같이 난폭하게 춤을 추면서 술을 입에 물어 품어내며 “허-, 허-” 하고 괴성을 지른다. 술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품어내는 것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춤이 최고조에 이르면 수심방은 감장<sup>53)</sup>을 계속해서 빠르게 돈다. 이때 연주되는 북가락은 다른 북가락과는 약간 다른데 이것을 군농도는 가락이라 한다. (보례6)

[군문 열림] 은 [군문 돌아봄] 에서의 연장으로서 [군문 돌아봄] 시작의 빠르기인 '늦은석'보다 조금씩 더 빠른 '늦은 중판'을

53) 심방의 춤사위가 점점 빨라져 그 자리에서 뱅글 뱅글 도는부분을 의미한다.

12/8로 시작하여 '죽진석'까지의 빠르기로 연주하는데 '죽진석'의 ♩.=184부터 ♩.=220까지는 너무나 빨리 몰아가기 때문에 6/8에서 4/4박으로 자연스럽게 박자가 변하면서, 다양한 북가락의 변화를 알 수 있다.(보례7)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문 돌아봄보다는 빠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보례6) 감장도는 북가락



보례7) [군문열림]의 북가락



③ [주잔 권잔]

강림한 여러 신 중 하위잡신을 대접하는 내용의 사설을 부르며 술을 조금씩 뿌린다. 그리고 천문(天門)<sup>54)</sup>을 던져 신궁을 열고 '주

진중판'으로 연주하며, 「3채-2채-1채-1채」와 「군채」 가락이 주로 사용된다.

#### ④ [분부 사뭇]

[분부 사뭇]은 군문 열림이 끝나면 무점(巫占)으로써 문 열림을 판단한 후 그 신의(神意)를 여러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신의의 전달은 신의 대변으로서 본래 신탁(信託)의 의미가 있다. 이때 신역(神域)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신이 강림하지 않았다는 점괘가 나오면 다시 요란한 도랑춤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부분은 악기연주가 없고 수심방이 서서 군문이 열림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사설을 레시터티브로 노래한다.

#### ⑤ [신청괘] (부록악보 4)

신들이 오는 길의 사(邪)를 쫓아 깨끗이 했으니 신들을 청해 들이는 절차이다. 수심방은 1만 8천 신이라는 신들을 위계순으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청해 들여 제장에 좌정하도록 하며, 신들의 강림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그 여부를 점치고 그 뜻을 자손<sup>54)</sup>들에게 전달한다.

사설이 끝난 후 신칼, 감상기, 요령을 든 수심방이 춤을 추는데 중판에서 시작하여 '죽진중판', '죽진석'으로 이어지다가 '늦은석'으로 얼마간 연주하다가 끝을 맺는다. 가락은 군문열림과 거의 동일하다.

#### (3) <추물공연>

<추물공연>은 소미 이용옥이 진행한다. 소미 이용옥은 용왕질 한가운데 앉아 장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해녀들과 선박업자들의 소원성취와 제물을 잘 드시라는 뜻에서 제물 이름을 날날이 고

54) 신궁의 문이 열렸는지 여부를 점치는 巫具

55) '자손'들이란 곳을 주최하는 어부, 해녀 들을 이른다.



해 바친다. 이것은 귀신들도 음식 이름을 말해야 알아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도 평소 그 신들이 보살펴 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차례올리는 것이라 하며 기원하는 절차이다.

이 부분은 장고만으로 연주되는데, ♩=45-70까지로 12/8박자의 중중모리와 자진모리형으로 장단을 치면서 서도지방의 창법으로 소리를 한다. 이 부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 (4) <나까도 전침>

<나까도 전침>은 [나까시리 놀림] 과 [지장본풀이] 로 나눈다.

[나까시리 놀림] 은 소무들과 심방이 나까시리라는 큰 시루떡을 들고 잠시 춤을 추다가 그것을 위로 높이 던졌다가 받는 놀이이다. 이것은 또 서로 두 사람씩을 짝을 지어 서로에게 던져서 받기도 한다. 이는 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절차이다.

나까시리 떡을 들기 전에는 '중판'으로 진행되다가 들고 던지고 노는 대목은 '조진중판'으로 연주된다. 북가락은 「3채-2채-1채-1채」와 「군채」 가락으로 이루어 졌다. 지장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설화에서 유래한 사(邪)를 쫓는 행위이다. 추물 공연과 같이 이용옥 소무가 장고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절간에서 한 여인이 자식 낳기를 기원하여 지장이라는 딸아기를 낳았다. 네 살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다섯 살 때에 아버지가 죽고, 여섯 살때는 어머니가 죽었다. 팔자가 사나운 지장아기는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수양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학대를 받아 집을 나왔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봉새가 내려와 날개로 덮어 보호하고 밥을 주며 길러주었다. 그러다가 열 다섯 살이 되어 서수왕 아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또다시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가 죽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죽고 결국 남편마저 죽었다. 지장아기씨는 팔자가 너무 기구하여 지나가는 중에게 점을 쳤다. 그 중은 굿을 하여 근친 명복을

벌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장아기씨는 마을 집집을 돌아다니며 제물을 준비하여 심방을 불러 공양무의(供養巫儀)를 행한 후 죽었다. 지장아기씨가 죽어서 새의 몸으로 환생하였는데 이 새가 여러가지 일을 방해하는 사(邪)라 한다. 56)

여기에서 유래한 사(邪)를 쫓아내기 위한 행위가 [지장 본풀이]다. 소요 시간은 약 25분 정도이다.

#### (5) <용왕 질침>

<용왕맞이> 절차 중 <용왕 질침>은 연극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는 부분으로 굿의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오전부터 연주했던 김영수는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김경숙 소미(小巫)가 북을 연주하였다. 그런데 김경숙 소미의 북가락은 설쇠가락과 동일하게 연주하고 있어 북 연주의 리듬감이 부족하여 연구자료로 삼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김영수가 이론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용왕 질침>은 바다의 여러 용왕신들과 풍요를 약속하는 여러 가지 씨앗을 주고 떠난다고 믿는 영등신이 올 길을 치워 닦는 제차이다. 이 길은 매우 험한 길로 표현하였으며 이 험한 길을 노래와 춤을 섞어 닦아 보자는 내용으로 그 과정을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 ① [용왕문 돌아봄]

치워 닦아야 할 용왕길(龍王路)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번 돌아보는 절차로서 심방은 가진 연물에 맞추어 용왕문 사이를 한번 돌아 보며 춤을 춘다.

##### ② [언월도(偃月刀)로 베기]

---

56) 현용준, 앞의 책, 1986, PP. 376-377.

한번 돌아보았더니 해초가 무성하여 여러 신들이 올 수가 없으니  
언월도로 베어 버리는 모양의 춤을 추며 용왕문을 돌아 본다.

③ [작대기로 치우기]

베어 놓은 해초들을 작대기로 치우는 춤을 추며 용왕문을 돈다.

④ [은파비로 파기]

치우고 보니 그루터기가 울퉁불퉁해서 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  
이 그루터기를 은파비로 파내는 모양의 춤을 추면서 요령을 혼  
들어준다.

⑤ [삼태기로 치우기]

깨고 보니 돌맹이가 굴러 곤란하여 자손들이 나와서 삼태기로 치  
운다.

⑥ [발로 고르기]

그루터기를 파고 보니 땅이 들쭉날쭉해서 신들이 올 수 없으니  
발로 평평하게 고른다.

⑦ [미레깃대로 고르기]

돌맹이를 치우다 보니 움푹움푹 들어간 부분이 많으니 미레깃대  
로 밀어야 한다고 노래하면서 신칼을 가로로 들고 밀어 닦는 모양  
을 하면서 용왕문을 돈다.

⑧ [이슬다리 놓기]

길을 밀어 놓아 먼지가 나니 술을 한모금 뿌린다.

⑨ [마른다리 놓기]

물을 뿌려 너무 질퍽거려 신들이 넘어질것 같아 띠를 한 줌 뿌  
린다.

⑩ [나비다리 놓기]

띠를 너무 많이 뿌려 바삭거리니 종이 조각을 한 줌 뿌린다.

⑪ [용왕다리 놓기]

용왕님과 영등대왕이 걸어 들어 올 다리를 놓은 절차로 자손들과



소미들이 함께 용왕길에 긴 무명을 깔아 놓는다.

⑫ [차사(差使)다리 놓기]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만을 주로 인도한다고 믿는 저승 차사(差使)도 여러 용왕님들과 같이 모셔져야 한다. 그 차사들을 위한 다리로서 긴 무명천을 다시 옆으로 길게 펼친다.

⑬ [시루다리 놓기]

띠를 너무 많이 뿌려 못쓰겠으니 시루떡을 조금씩 떼어 뿌리면서 <용왕 질침>이 끝이 난다.

<용왕 질침>중 처음부터 [미레깃대로 고르기] 까지는 '중판'으로 연주되다가 [이슬다리 놓기] 이후에는 '늦은 중판'으로 연주된다. <용왕 질침>은 15분 정도 소요된다.

(6) <용왕문 열림>

'문을 연다'함은 영등신과 여러 용왕들이 올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m쯤 되는 앞이 붙은 뗏가지 8개를 제장 중앙에 2열로 나란히 꽂아 놓은 뗏가지들을 용왕문이라하여 꽂은 뗏가지들을 하나하나 뽑아 나간다. 심방은 용왕문의 한쪽끝에 서서 용왕문이 잘 열리도록 '늦은 중판'의 빠르기로 노래를 부른다. 북가락은 김경숙 소미에 의해 '중판'으로 연주되는데 가락의 변화가 그다지 없어 음악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부녀회장, 해녀회장 등 자손들 대표들이 용왕문앞에 꿇어 앉아 절을 하고 문을 곱게 열어 주심사는 뜻에서 돈(인정)을 바친다. 문을 열어 주심사고 노래하던 심방이 신칼로 점을 쳐보아 문이 잘 열린다는 점괘가 나오면 '열려맞자'고 크게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소무가 문(뗏가지)을 하나 뽑고 다음 문으로 전진한다.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뽑아나가서 전부 뽑아지면 용왕문이 모두 열리게 된다. 용왕문열림은 20분 정도 소요된다.

(7) <소지>

용왕문을 상징했던 뗏가지와 용왕길을 상징했던 무명을 모두 태워 버린다. 이것으로 용왕문의 열림 제차가 모두 끝난다. <소지>는 5분정도 소요된다.

## IV. <용왕맞이>의 북가락 연구

칠머리당 영등굿 <용왕맞이>의 구성된 북가락은 「3채-2채-1채-1채」와 「군채」가락의 반복과 「늦은석」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3채-2채-1채-1채」는 정형화된 가락이며, 「늦은석」가락은 <초감제>때만 사용되는 가락으로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이다. 「군채」가락은 다양한 리듬 변화로 <용왕맞이>가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채가락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군문열림' 이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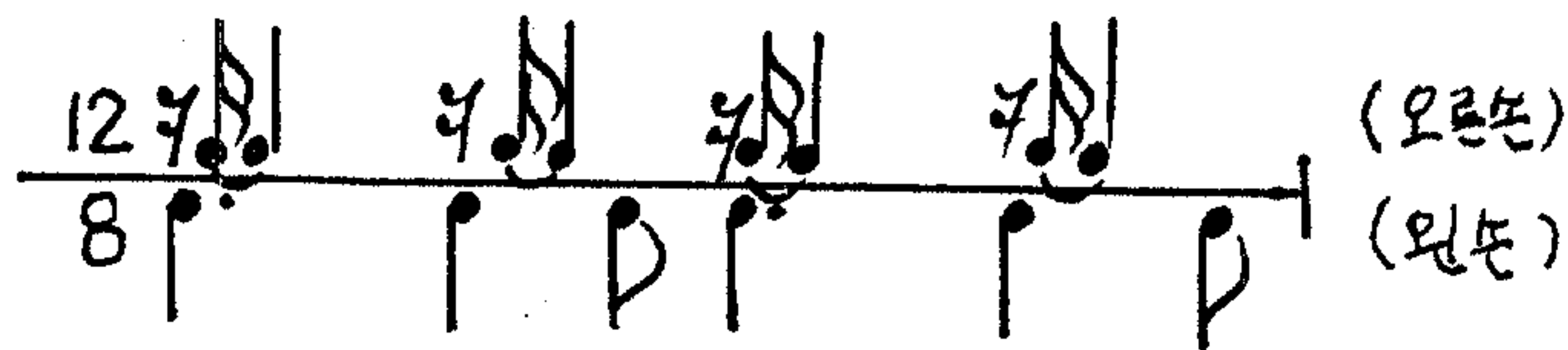
<용왕맞이>에 사용된 북가락을 그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늦은석」가락

「늦은석」가락은  $J.=35-40$ 의 <초감제>에서 주로 행해지는 가락으로 부록 악보1)과 같다. 구성 가락을 제시하면, 보레8)의 주장단과 보레9)의 변형장단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보레8)처럼 북을 연주할때, 양손으로 한면만을 치게 되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치지 않고 왼손을 약간씩 빨리 친다. 이는 「늦은석」가락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육지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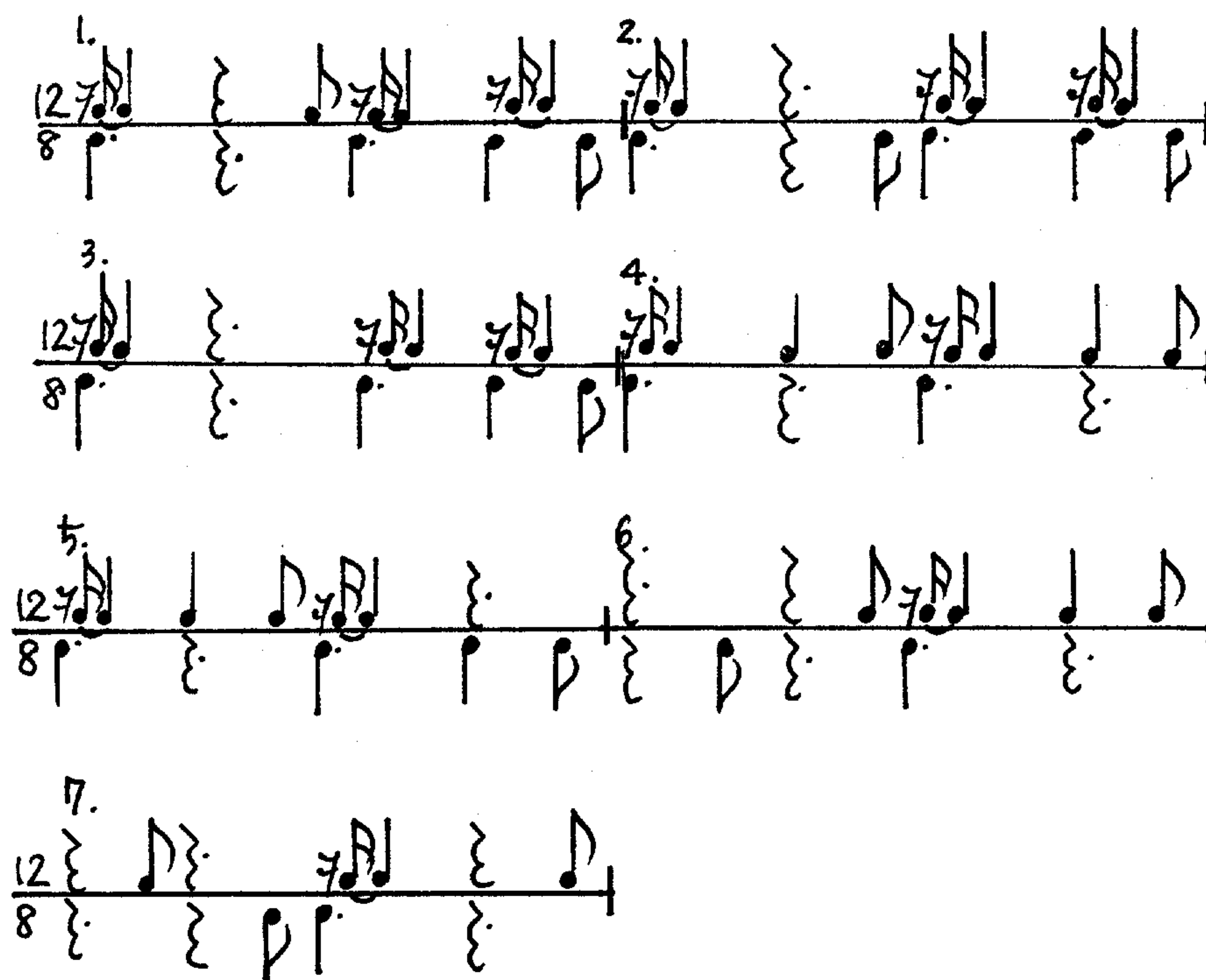
변형장단은 7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정한 틀에 의해 연주되는 것이 아니고, 주장단사이에 불규칙적으로 행해진다.

#### 보레8) 「늦은석」가락의 주장단





보례9) 「늦은석」가락의 변형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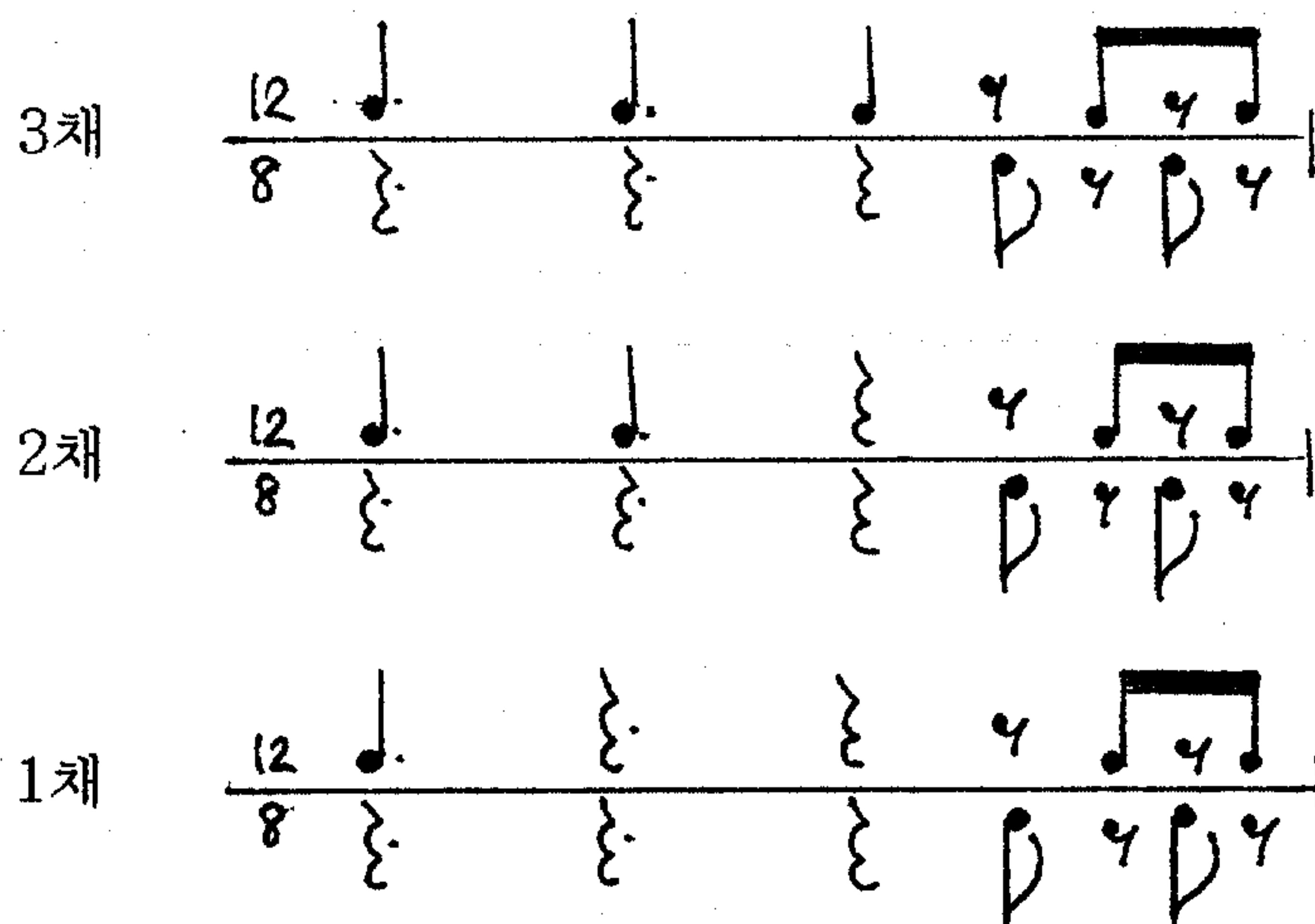


2. 「3채-2채-1채-1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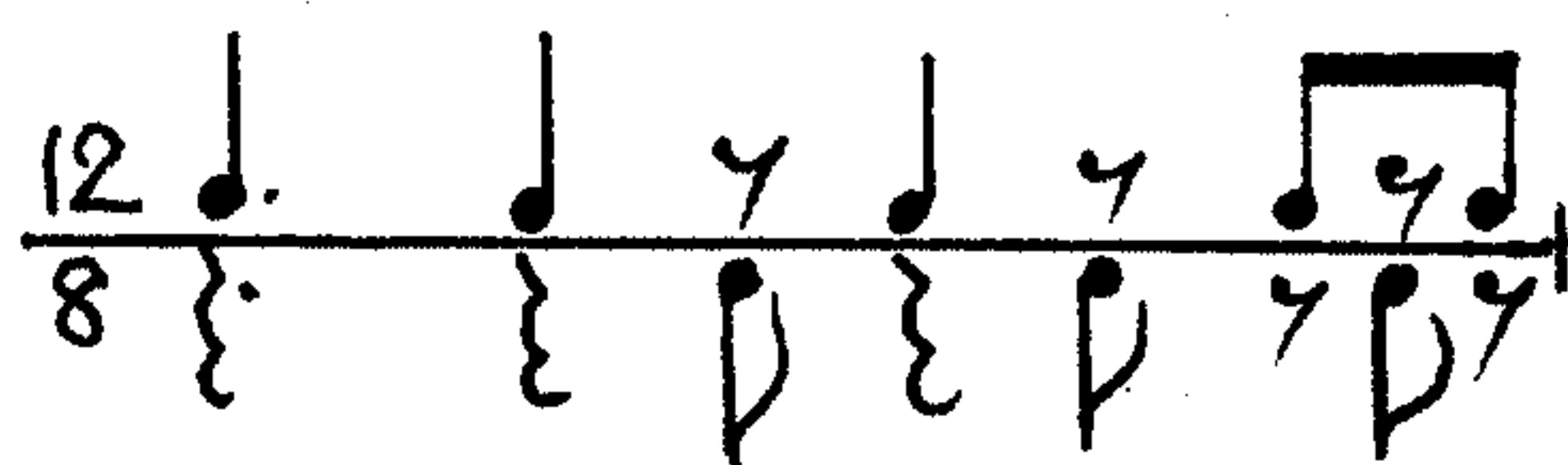
이 가락은 <초감제>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에서 주로 나타나며, 정형장단이다.(보례10) 「3채-2채-1채-1채」중 3채는 ㄱ.를 한 장단에 크게 3번 치며, 2채는 크게 2번 치고, 1채는 크게 1번 친다. 「3채-2채-1채-1채」는 ㄱ.를 3번-2번-1번-1번을 치게되는 장단이 하나의 고정된 틀을 이루고 있다.

예외로 3채의 변형이 1회 나타나는데 ㄱ.(오른손)을 ㄱ.(오른손)과 ㄴ.(왼손)으로 나누어 친다.(보례11)

보례10)



보례11) 3채의 변형



3. 「군채」

「군채」가락은 군더더기 가락이라는 뜻으로 분량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장단의 변형을 다양하게 구사함으로 북가락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기본 장단의 단순함을 보완하고 기본장단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군채가락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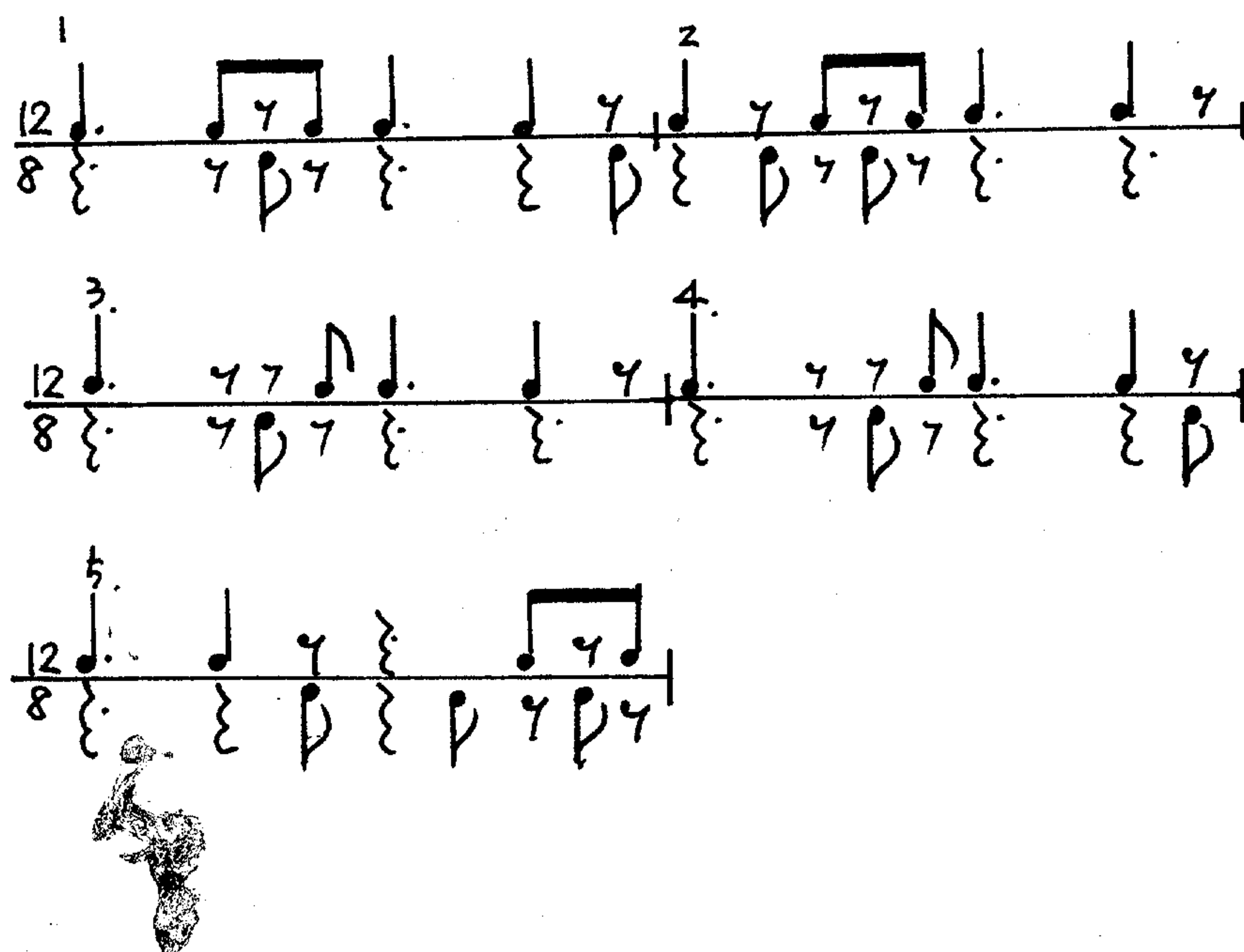
가) 유형별 분류1

(1) 강박으로 시작하는 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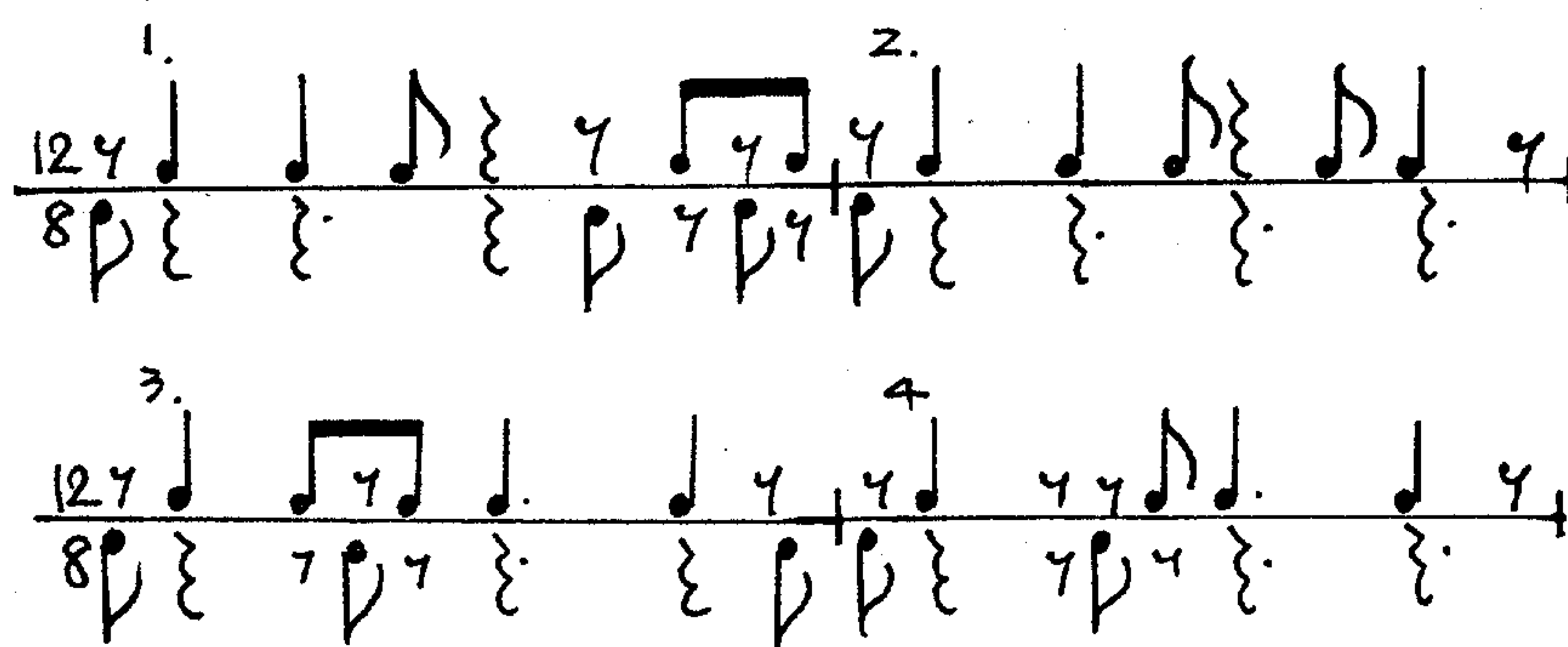
강박으로 시작하는 장단은 오른손으로 시작하는 장단(보례12-1)

과 왼손으로 시작하는 장단(보례12-2)의 2가지로 구분된다. 오른손으로 시작하는 장단은 대부분 ㄱ의 리듬으로 시작하며, 왼손으로 시작하는 장단은 ㄴ의 리듬으로 시작한다. 강박으로 시작하는 장단은 군채가락의 시작 부분에서 대부분이 출현한다. 따라서 강박으로 시작하는 장단은 장단의 구성요소로 보면 '내는 부분'에 해당한다.

보례12)-1 오른손으로 시작하는 장단



보례12)-2 왼손으로 시작하는 장단





## (2) 약박으로 시작하는 장단

약박으로 시작하는 장단은 ♩의 리듬에서 사분쉼표의 길이를 쉬고, ♩의 왼손으로 시작한다.(보례13) 약박으로 시작하는 장단은 군채 가락의 중간 부분에서 대부분이 출현한다. 따라서 약박으로 시작하는 장단은 장단의 구성요소로 보면 '다는 부분1'에 해당한다.

보례13) 약박으로 시작하는 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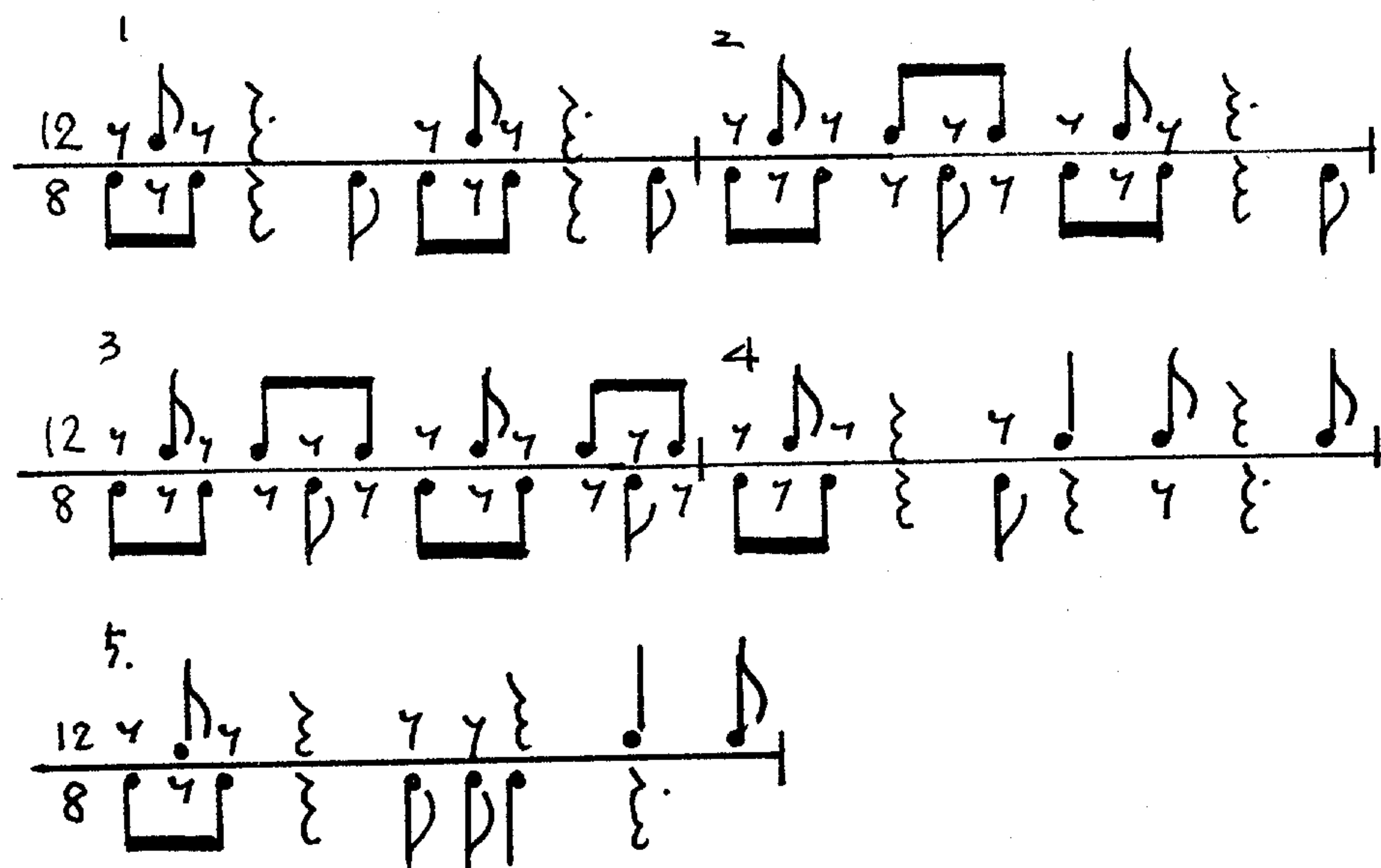
The musical notation for Example 13 consists of three measures of a 12/8 rhythm. Each measure is divided into two staves. The top staff contains a 12/8 time signature and a half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The bottom staff contains a half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and then a half rest.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symbols like eighth and quarter notes with stems.

## (3) 강박을 세분하는 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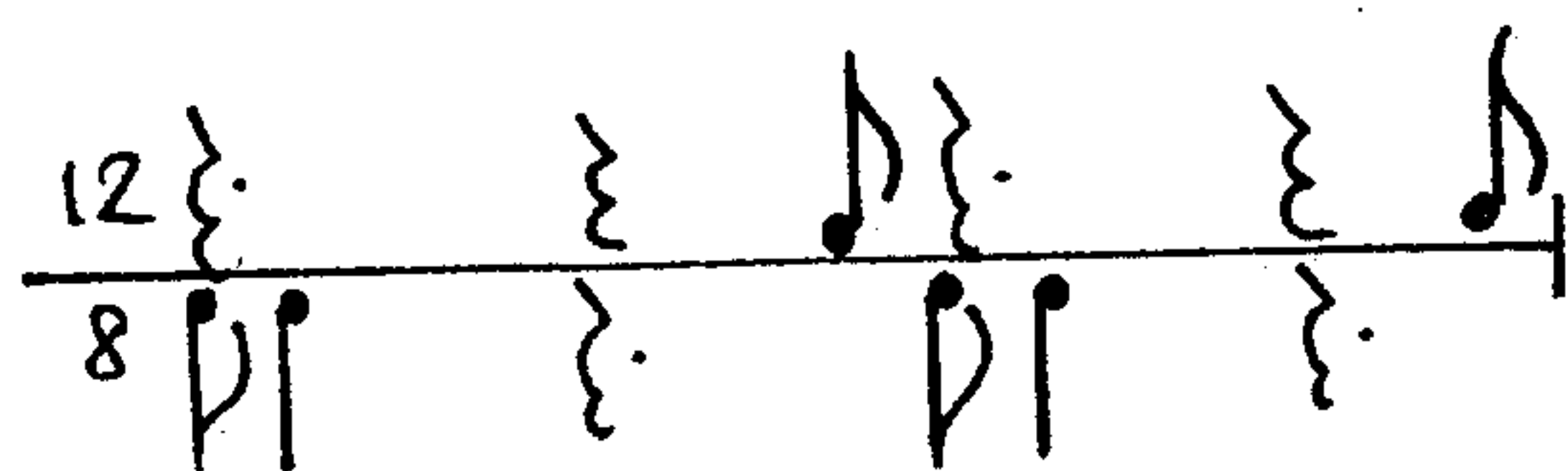
리듬을 세분하는 장단은 처음의 ♩리듬을 ♩(왼손)+♩(오른손)+♩(왼손)으로 잘게 나누어 시작한다.(보례14-1) 이 유형의 장단은 군채가락의 끝부분에 나타난다. 따라서 강박을 세분하는 장단은 장단의 구성요소로 보면 '다는 부분2'에 해당한다.

예외로 변형이 1가지 나타나는데 처음의 리듬을 왼손으로 ♩의 리듬을 연속하여 친다.(보례14-2) 변형리듬은 강박을 세분하는 장단의 뒷부분에 나타난다.

보레14)-1 강박을 세분하는 장단



보레14)-2 변형 장단



나) 유형별 분류2

이 유형에 속하는 장단은 모두 강박으로 시작하는 점에서는 유형 1과 비슷하지만 군문열림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출현하며, 가장 빠른 장단인 '죽진석'에 해당한다. 시작 부분은 ♩.=170의 12/8 중중모리 장단형으로 치다가 차츰 차츰 빨라져서 ♩.=220 이상의 4/4 단모리 장단형으로 변한다. 단모리 장단형의 처음은 기본 장단을 치다가(보레15-3) 점점 빨라지면서 리듬을 분할하여 치다가(보레15-6, 7) 더욱 빨라지면 단순한 형태의 장단으로 변한다.(보레15-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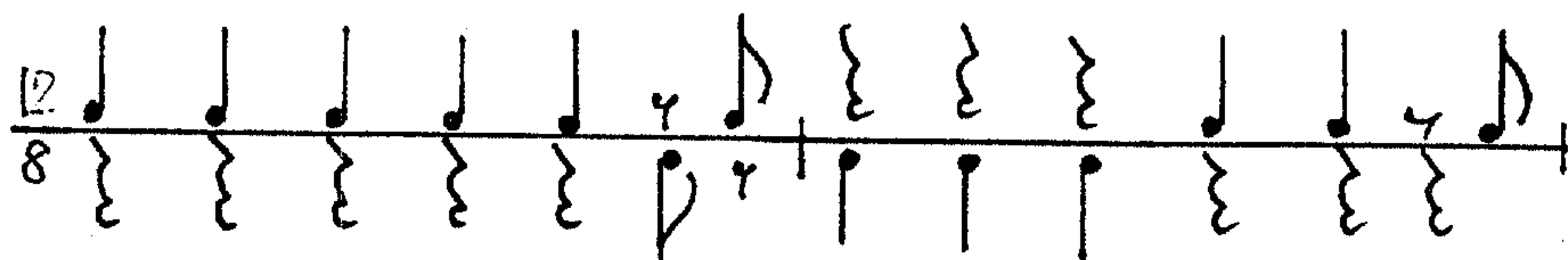
보례15)



다) 종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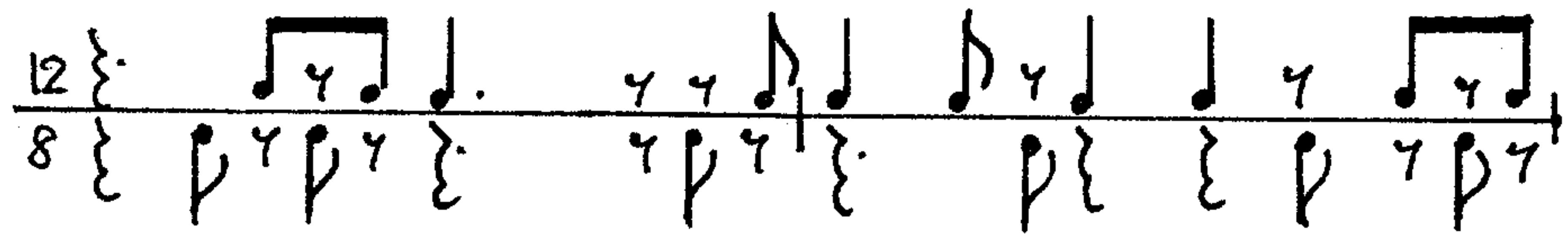
종지형 장단은 「군채」 가락의 끝에 나타나며, 2가지 형태가 있다. 12/8 장단을 오른손 혹은 왼손으로 연속하여 ♩(2분박) × 6으로 치는 장단(보례16-1)과 ♩ ♩(3분박) × 4으로 치는 장단(보례16-2)으로 구분된다. 그외 ♩(2분박)과 ♩ ♩(3분박)이 혼합된 장단도 1회 출현한다.(보례16-3)

보례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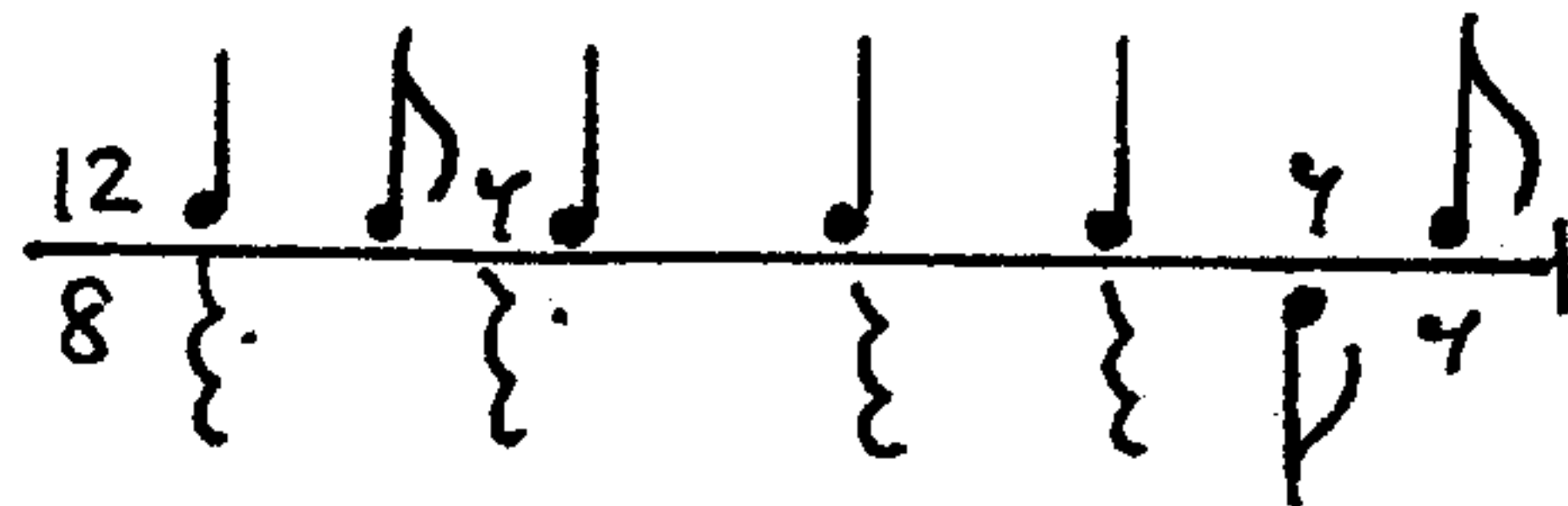




보례16)-2



보례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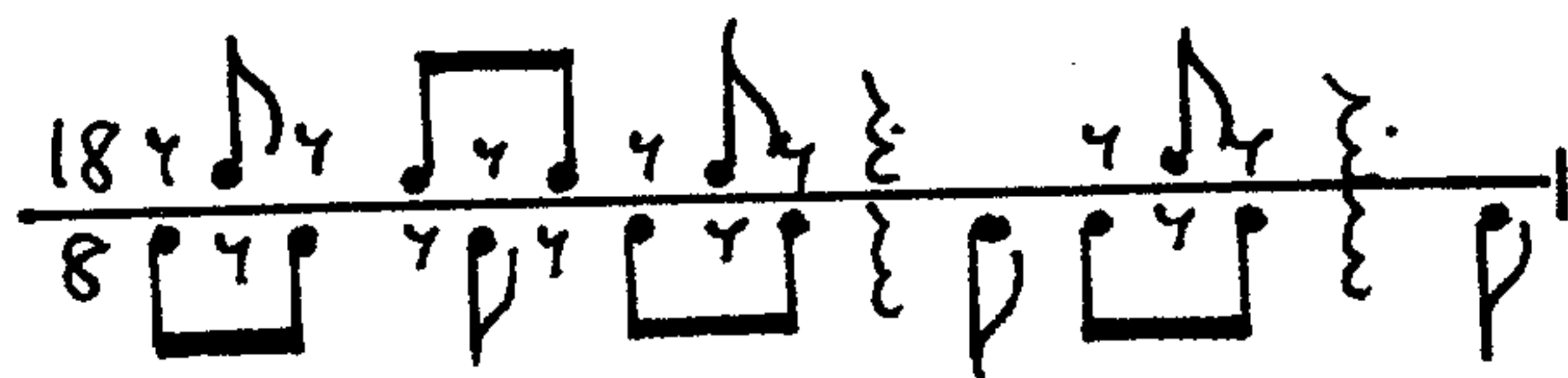


### 라) 기타

기타로 분류되는 장단은  $\text{J.} \times 6$ 의 장단과 감장도는 부분에 쓰이는 장단이다. 18/8의 장단은 수심방의 춤사위나 제차의 흐름에 따라서 12/8에서 반장단이 늘어난 것이다. 이 장단은 강박을 세분하는 장단의 끝부분에 나타난다.(보례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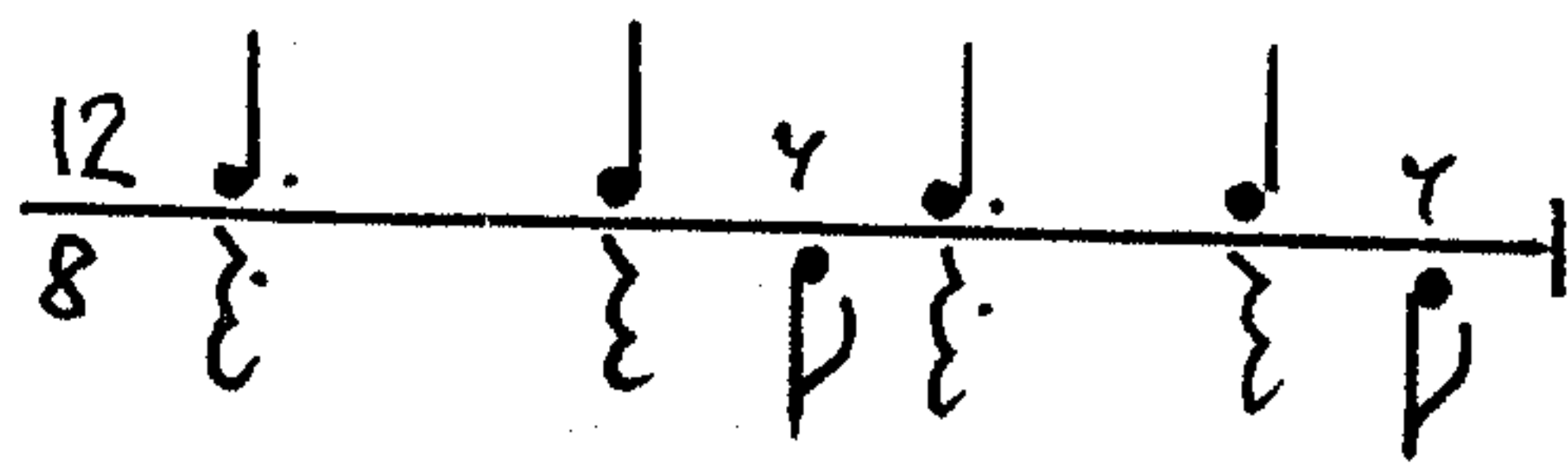
감장도는 부분은 심방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작으로 추는 것인데, 춤사위(발동작)에 맞추어 독특한 리듬의 장단을 연주한다. 군문열림에서 1번<sup>57)</sup> 나타난다.(보례18)

보례17)



57) 군문이 열리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므로 반복하는 횟수만큼 이 장단도 출현한다.

보레18)



## V. 결론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중 <용왕맞이>의 구성과 북가락의 음악적 내용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매년 음력 2월 14일에 행해지는 송별제로 해녀들과 어부의 해상 안전과 어업의 풍요를 비는 곳이다. 용왕맞이는 바다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믿는 여러 용왕신들과 바다에 모든 씨앗을 주고 떠난다고 믿는 영등신을 제장으로 모셔다가 대접하고 기원하는 영등굿의 절차 중 하나이다.

그 절차는 크게 <초감제>, <추물공연>, <나까도 전침>, <용왕질침>, <용왕문 열림>, <소지>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영등굿에 사용되는 악기는 징, 설쇠, 북, 장고이며, '연물'이라 부른다. 4종이 모두 갖추어졌을 경우, '7진 연물'이라 한다. 그중 북의 연주 방법이 독특하는데 양손에 묵채를 갈라쥐고 북의 한 면만을 친다는 점이다. (참고 사진 참조)

셋째, 칠머리당 영등굿의 장단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빠르기말은 '늦은석(초판)-늦은 중판-중판-조진중판-조진석(막판)'으로 쓰여진다. '늦은석'은  $\text{♩} = 35-40$ 으로 <초감제>에서만 나타나고 '늦은 중판'은  $\text{♩} = 80-90$ 으로 군문 돌아봄에서 보인다. '중판'은  $\text{♩} = 110-120$ 으로 거의 모든 절차에서 사용되며, '조진중판'은  $\text{♩} = 130-135$ 로 군문 돌아봄과 [군문 열림] 등에서 보인다. '조진석'(막판)에서는  $\text{♩} = 170$ 이상의 [군문 열림]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음(표1)과 같다.

(표1)

늦은석(초판) - 늦은중판 - 중판 - 주진중판 - 주진석(막판)  
J.= 35-40      80-90      110-120      130-135      170이상

넷째, 칠머리당 영등굿 <용왕맞이>의 구성된 가락으로는 「3채-2채-1채-1채」가락과 「군채」가락의 반복과 「늦은석」가락으로 이루어져있다. 「3채-2채-1채-1채」는 정형화된 가락이며, (보례8) 「늦은석」은 <초감제>때만 사용되는 가락으로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이다. (보례9)

「군채」가락은 다양한 리듬 변화로 칠머리당 영등굿의 북가락을 대표할 수 있다. 「군채」가락을 분석한 결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ㄱ. 강박으로 시작하는 장단, 약박으로 시작되는 장단, 강박을 세분하는 장단으로 구분된다.(보례10)

ㄴ. 「주진석」에서는 템포가 점점 빨라지면서 12/8의 중중모리가 4/4의 단모리로 변화되는 형태이다. (보례11)

ㄷ. 악구의 종지형은 3분박과 2분박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보례12)

ㄹ. 수심방의 춤사위나 제차의 흐름에 따라서 12/8에서 18/8로 진행 되는 형태가 있다. (보례13)

지금까지 칠머리당 영등굿 <용왕맞이>에 쓰이는 「군채」가락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현재 판소리나 산조에 쓰이는 악구는 내고, 달고, 맺고, 푸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군채」가락의 악구를 앞의 것과 비교하면, 내는

부분은 '강박으로 시작하는 장단'이고, 다는 부분은 '약박으로 시작하는 장단'과 '강박을 세분하는 장단'에 해당한다. 맺는 부분은 '종지형 장단'에 해당하며, 푸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푸는 부분이 없는 이유는 「3채-2채-1채-1채」와 「군채」가락이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기 보다는 굿 전체의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하고, 악구의 끝을 풀지 않고 다음 악구의 시작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1) 논문

- 김은자, “제주도 성주풀이의 구성 및 장단 연구”, 이화여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 이보형, “시나위권의 무속음악” 『문화인류학』 제 15집 (서울 : 한국문화 인류학회, 1976)
- 이보형, “판소리고법2” 『문화재』 11호 (서울: 문화재 관리국, 1977)
- 이보형, “경서토리권의 무가민요” 『나운영박사 회갑기념 음악학논총』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2)
- 이보형, “메나리토리 무가, 민요권의 음악문화” 『문화인류학』 제 15집 (서울: 한국문화 인류학회, 1983)
- 이보형, “한국무가의 음조직”, 88 예술분야 학술연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한만영, “제주도의 무속연구 - 토산당굿을 중심으로 -” 『한국음악연구』 제 8집 (서울: 국악학회, 1979)
-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1호, (서울: 한국민속학회, 1970)

### 2) 서적

- 김수남, 장주근, 이보형, 『한국의 굿 3.-제주도 영등굿-』 (서울: 열화당, 1983)
- 백대웅, 최태현, 김해숙, 『전통음악 개론』 (서울: 어울림, 1995)
-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 장사훈, 한만영, 『국악개론』 (서울: 한국국악학회, 1975)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1980)
-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서울 : 집문당, 1986)



### 3)보고서

『중요무형문화재 해설-놀이와 의식편』, (서울: 문화재관리국)

『지정문화재목록』,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주도편-』 제5권, (서울: 문화재관리국,  
1974)

### 4)고문헌

『三國志』, 卷 30.

동국여지승람 28권 濟州牧 風俗條.

A Study of the Structure and Drum Rhythm  
of Youngdeung Exorcism of Chilmoridang  
in Cheju Province  
—on Yongwangmaji(Welcoming the Dragon King)—

Kim, Mi-you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Professor Kim, U-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isten and write a musical score of the drum rhythm of 'Yongwangmaji'(Welcoming the Dragon King)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ts structure and rhythm. 'Yongwangmaji' played by Kim Young-soo(drum player) is included in 'Youngdeung Exorcism(exorcism for the god of Youngdeung) of Chilmoridang', one of the manners and customs in the shaman's world of Cheju Province, which is performed at Chilmoridang of Sara Peak in Cheju city on the 14th day of the second lunar month every year.

For this study, the material investigation was done twice on the spot, and the video tape in the Material Hall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and the CD 『Chilmori Exorcism of Cheju Province』 manufactured by Naises in 1995 were used as referen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Youngdeung Exorcism of Chilmoridang in Cheju Province is

the farewell ritual, which is performed at Chilmoridang of Sara Peak in Cheju city on the 14th day of the second lunar month every year, and the exorcism for the security of woman divers and fishers and the richness of fishery. Yongwangmaji is one of the processes of Youngdeung Exorcism for praying to all gods of Dragon King who command the sea and the god of Youngdeung who sows all the seeds in the sea as directors of ritual.

The processes are divided into <Chogamje(the first process)>, <Choomool performance(the process for serving food)>, <Nakado(the name of rice cake) Jeonchim(turning)>, <cleaning the road>, <opening the door of Dragon King's palace> and <the last process, burning a ritual prayer>.

Second, the musical instruments used in Youngdeung Exorcism are gong, small gong, drum, janggu and are called 'Yeonmool(the another name of the musical instrument)'. They are called 'Kajin Yeonmool' in case four kinds are all prepared. The method of beating a drum is unique. It is to beat the only one side of drum with both hands grasping drumsticks each.(Refer Reference Picture 1, 2, 3, 4, 5.)

Third, the terms of tempo of Youngdeung Exorcism of Chilmoridang are 『Neujeunsuk(Chopan, first scene) - Neujeun Joongpan - Joongpan - Jajin Joongpan - Jajinsuk(Makpan, final scene)』. 『Neujeunsuk』( J . = 35-40) is expressed in 'Chogamje', 『Neujeun Joongpan』( J . = 80-90) in 'Goonmunyeolim(the second poetess of Chogamje).' 『Joongpan』( J . = 110-120) is used in almost all process, 『Jajin Joongpan』( J . = 130-135) is expressed in 'Goonmunyeolim.' Jajinsuk(Makpan) is expressed in the part of 'Goonmunyeolim' above J . = 170. This is like Table 1.

Table 1.

Neujeunsuk(Chopan) - Neujeun Joongpan - Joongpan



J . = 35-40

80-90

110-120

- Jajin Joongpan - Jajinsuk(Makpan)

J . = 130-135

above 170

Fourth, the rhythm of 'Yongwangmaji'(Welcoming the Dragon King) of Youngdeung Exorcism of Chilmoridang is composed of '3chai(3 beat at a time)-2chai(2 beat)-1chai(1 beat)-1chai rhythm' and 'Koonchai(excrescent) rhythm' and in addition to them 'Neujeunsuk rhythm'. '3chai-2chai-1chai-1chai rhythm' is typical one(example 3) and 'Neujeunsuk rhythm' used only in Chogamje is a little transformed.(example 1, 2)

'Koonchai' rhyth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Yongwangmaji> has very changable rhythm. At the result of analyzing Koonchai rhythm, it i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several types.

- A. Type of 'beginning with the first beat', and of beginning after resting the first beat, and rhythm-centered type. (example 3)
- B. Type of quick tempo in 'Jajinsuk' and of changing 12/8 exorcism to Tanmori of 4/4.(example 8)
- C. The closing type of clause is divided into triple time and duple time.(example 9-1, 2, 3)
- D. Type of changing 12/8 to 18/8 according to dancing of Sooshibang and stream of ritual process.(example 10)

This study examined several types of Koonchai rhythm of Yongwangmaji in Youngdeung Exorcism of Chilmoridang as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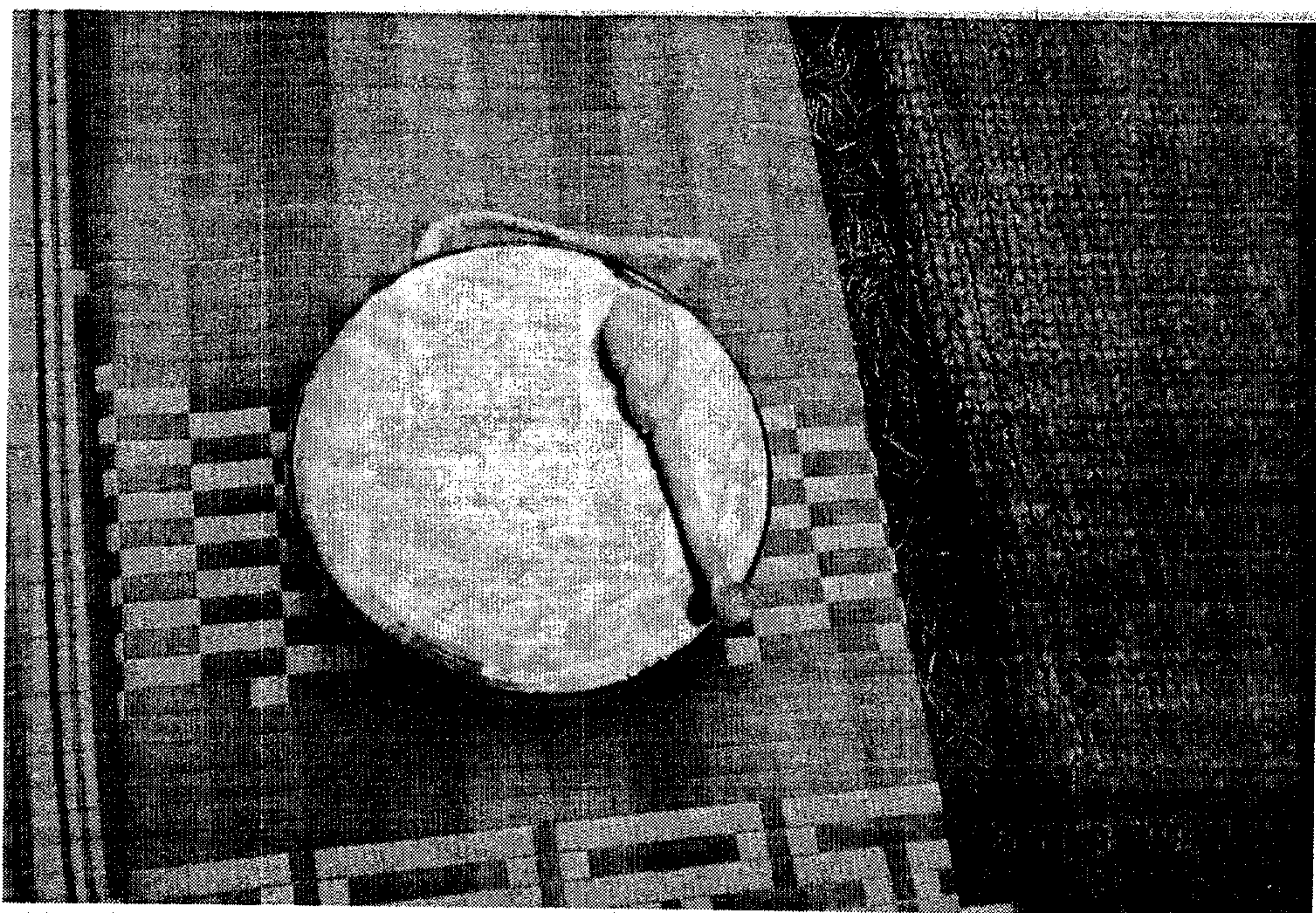
The clause of the present *pansori* and *sanjo* is composed of starting, development, tying, untying parts. Comparing Koonchai rhythm with the former, the starting part is the rhythm of 'beginning with the strong beat', the development part is the one of 'beginning with the weak beat'

and of 'dividing the strong beat'. The tying part is the rhythm of 'the closing type' and the untying part is not found. It is because 『3chai-2chai-1chai-1chai rhythm』 and Koonchai rhythm are not one unit. Moreover it aims at keeping continuous tension of whole exorcism and at beginning with the next clause untying the end of a clause.

**Key Words:** Yongwangmaji, Yeonmool, Koonchai rhythm, 3chai, 2chai, 1ch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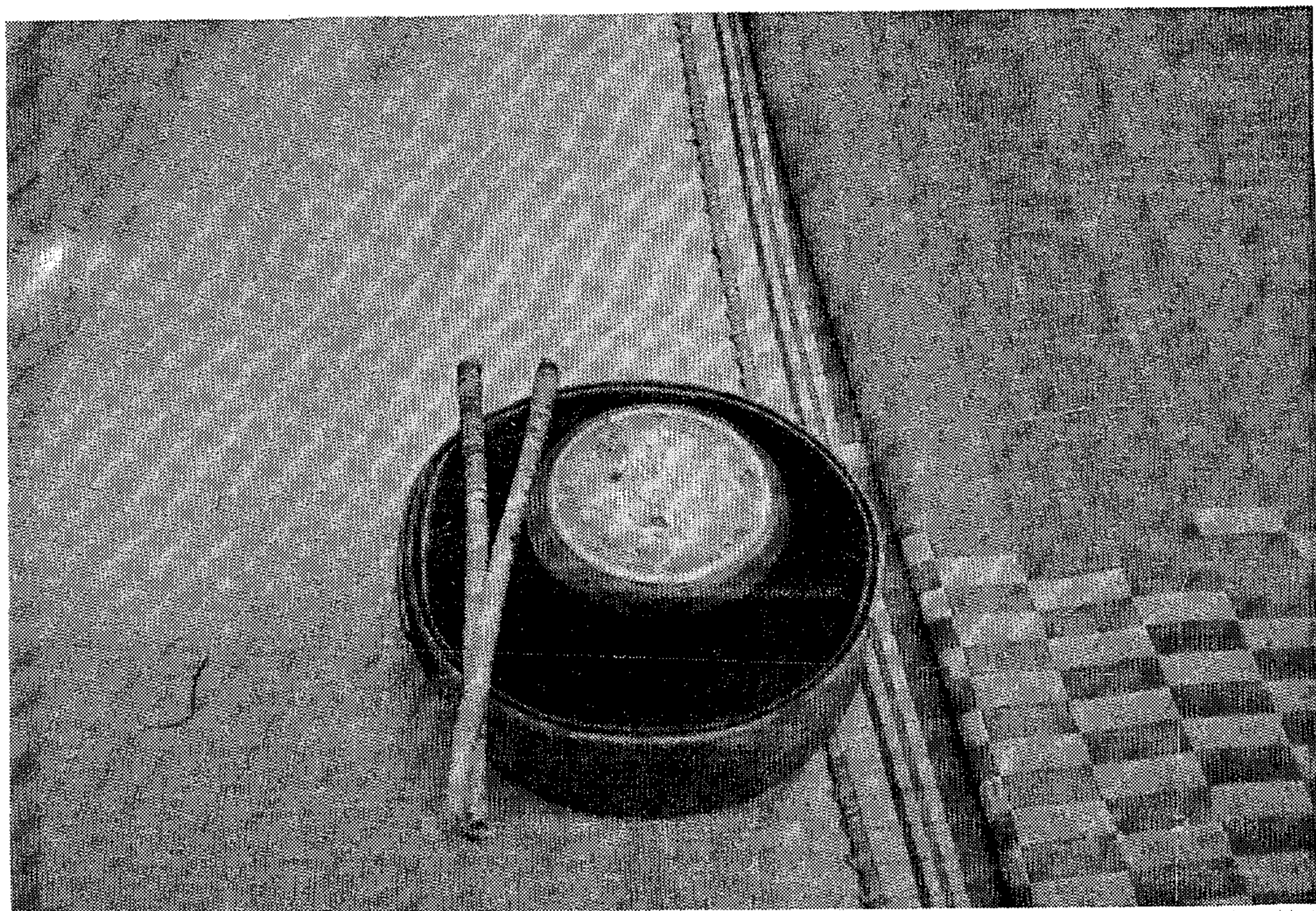


## 참 고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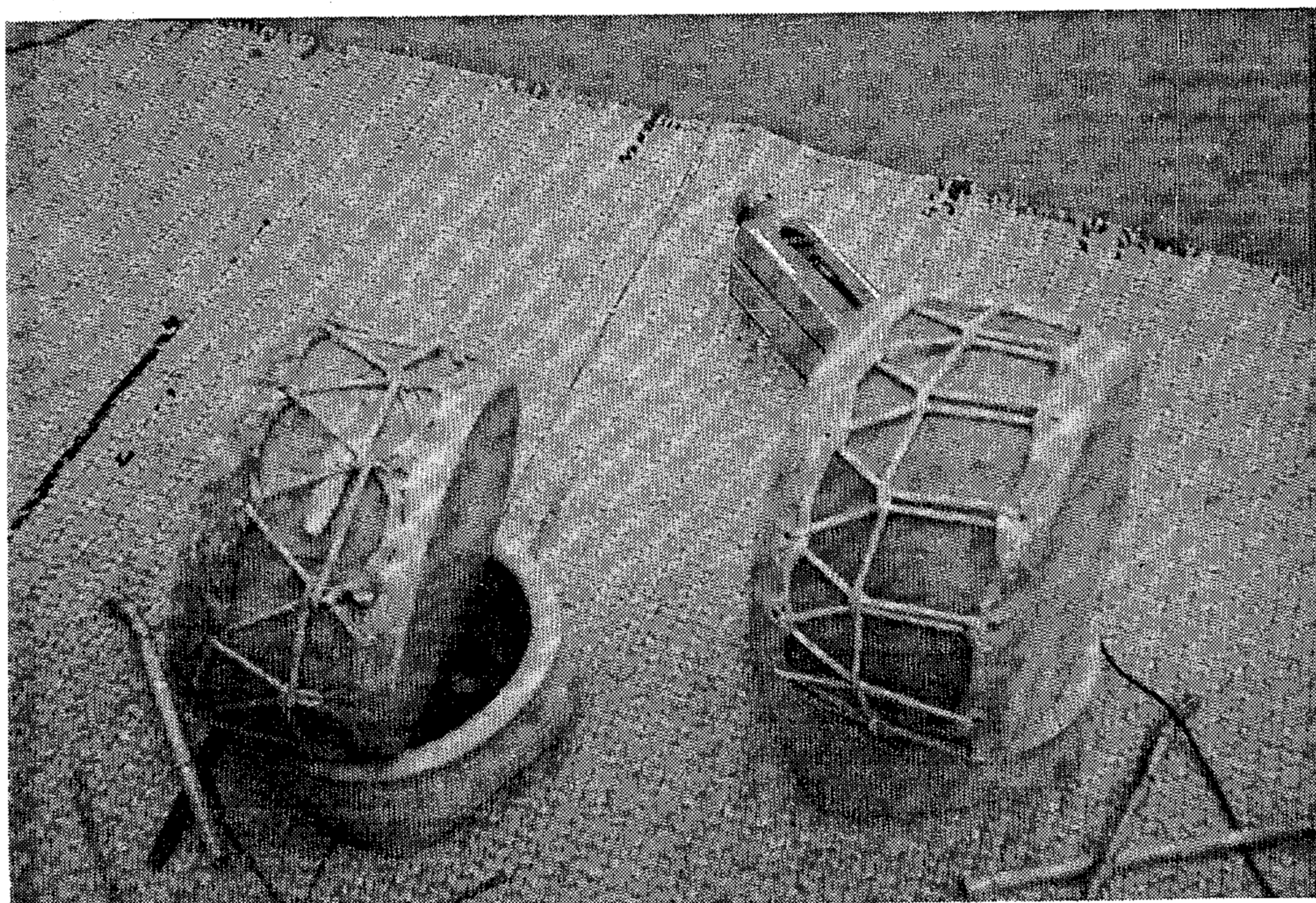


<참고사진 1> 징. 대양 또는 울집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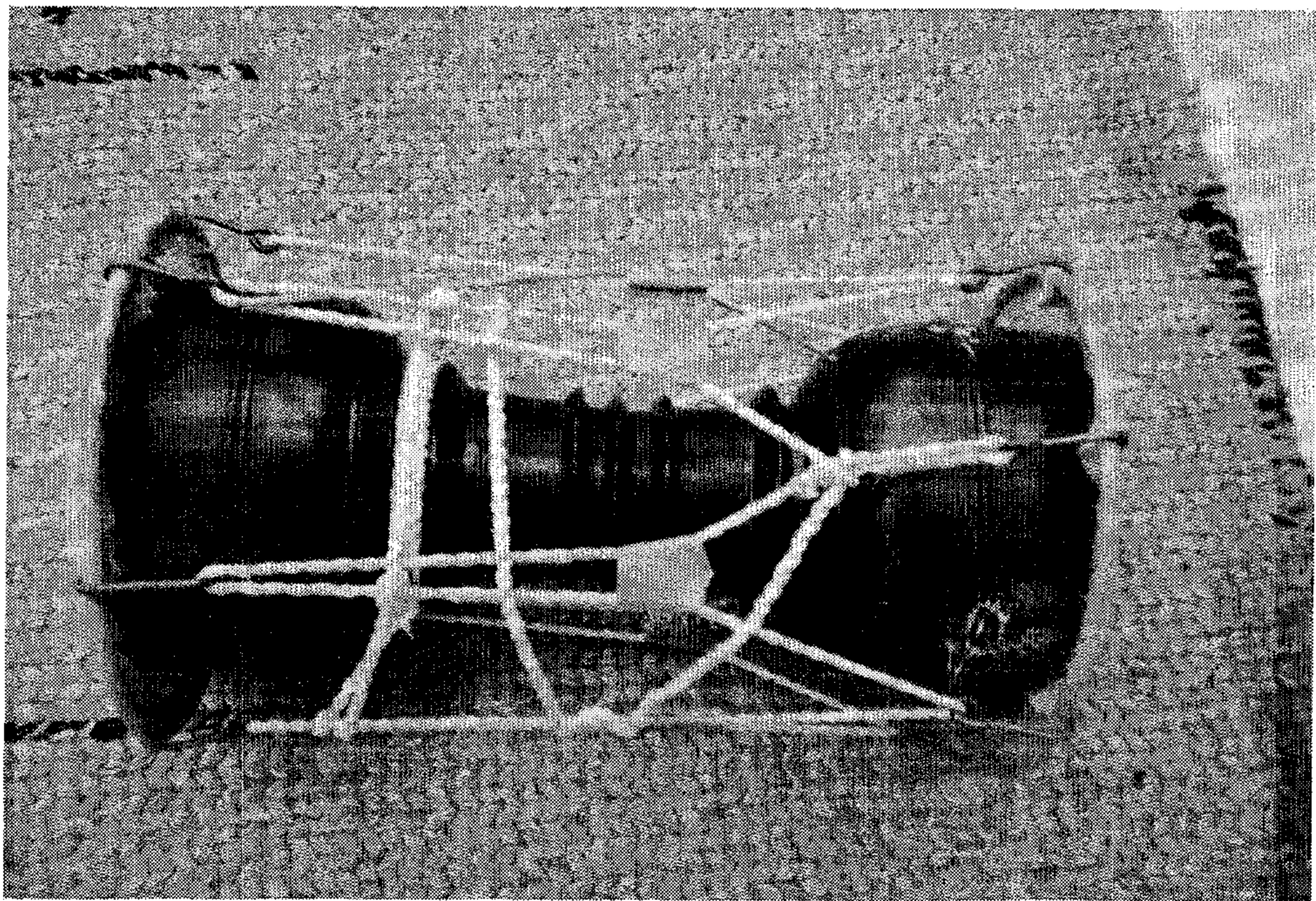


<참고사진 2> 설쇠. (육지지방의 꿩과리를 지칭한다)



<참고사진 3> 북. 또는 울북이라고 부른다.





<참고사진 4> 장고.



<참고사진 5> 연물치는 장면



## 참 고 악 보

(참고 악보를 위한 일러두기)

\* 부 호 폴 이

◎ : 징의 타점

♪ : 북가락. 위는 오른손으로

└─ 아래는 왼손으로 치는 음.

- 속도가 변하는 가락은 Tempo표시에서 분명하게 명시했는데, 악보에 표시된 Tempo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 참 고 악 보 목 차

초감제 ..... 1

군문 돌아봄 ..... 6

군문 열림 ..... 13

신청궤 ..... 45

나카도 전침 ..... 61

---



$$J. = 35$$

채보자 : 김 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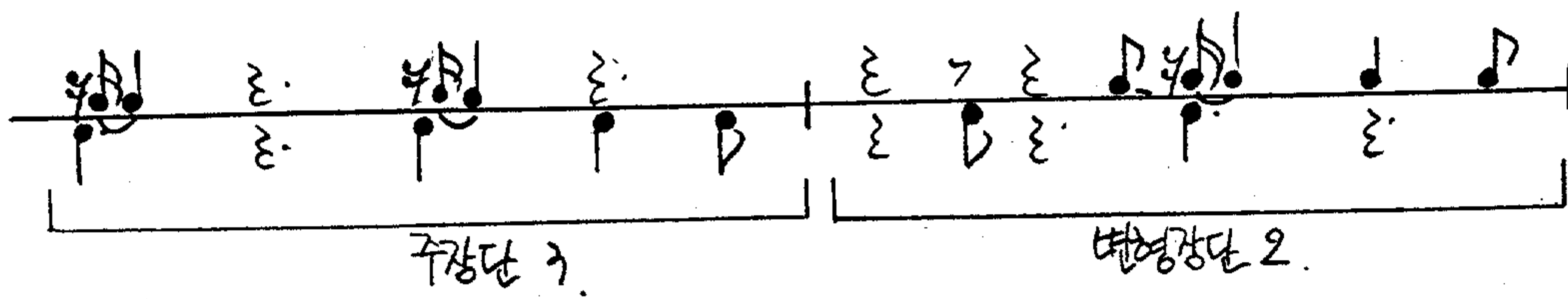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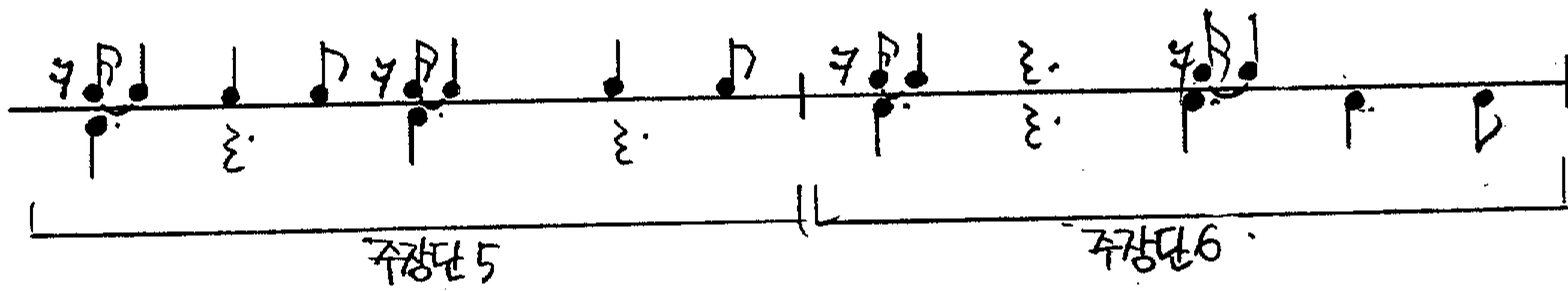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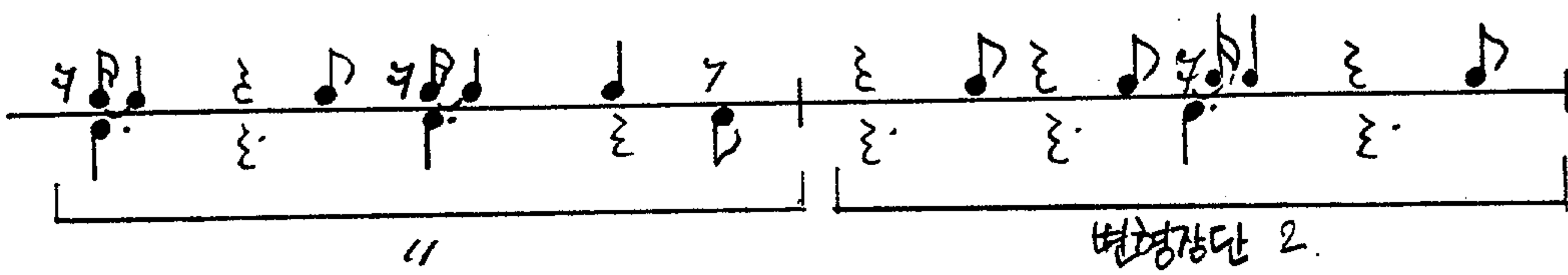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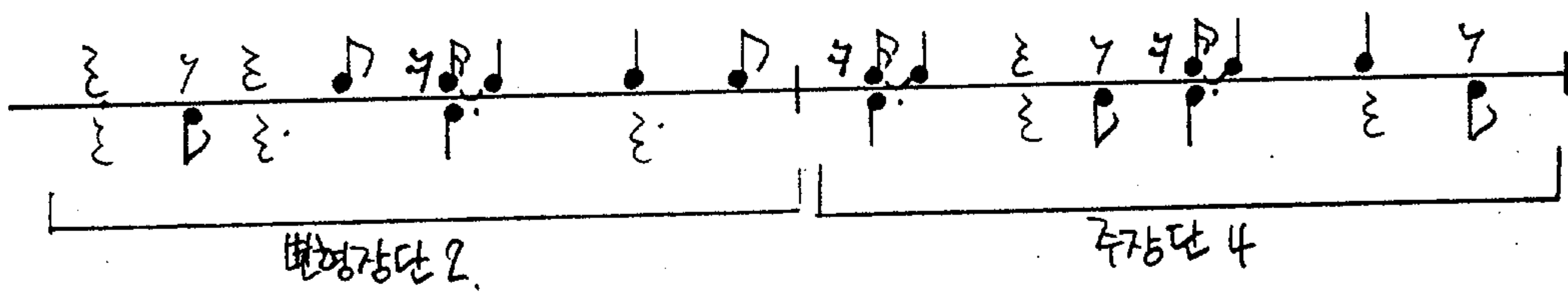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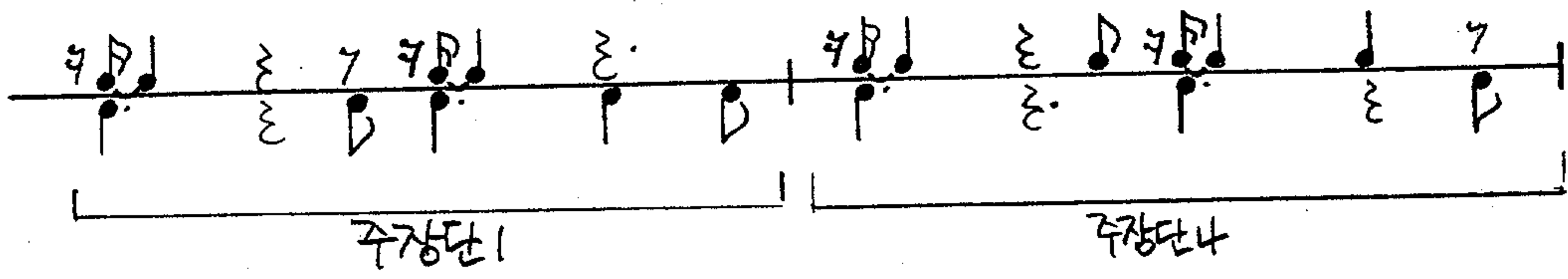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s (quarter,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accidentals (sharps and flats). A bracket at the bottom right is labeled "주장단 2."

변형 장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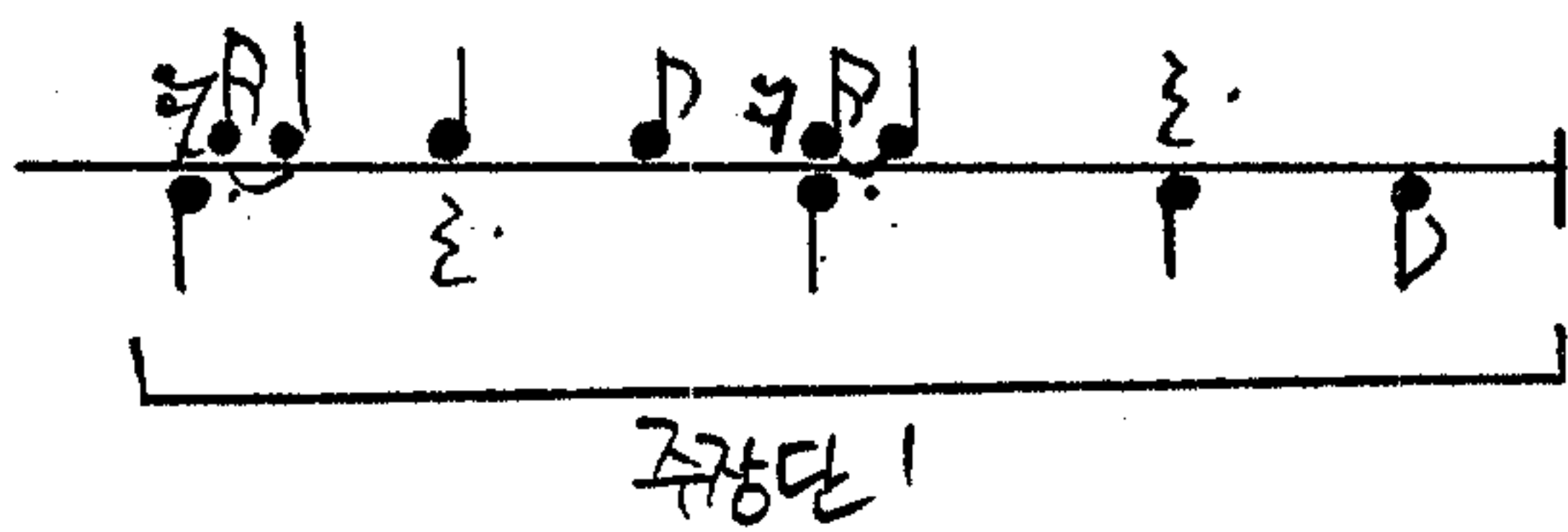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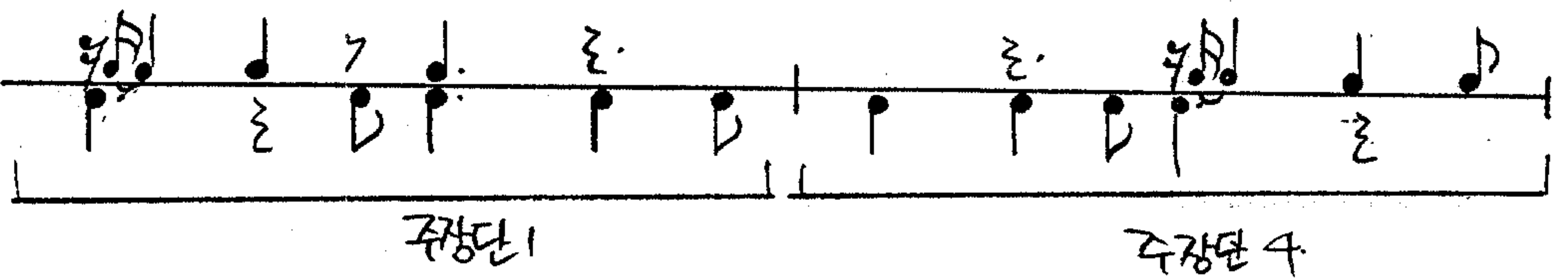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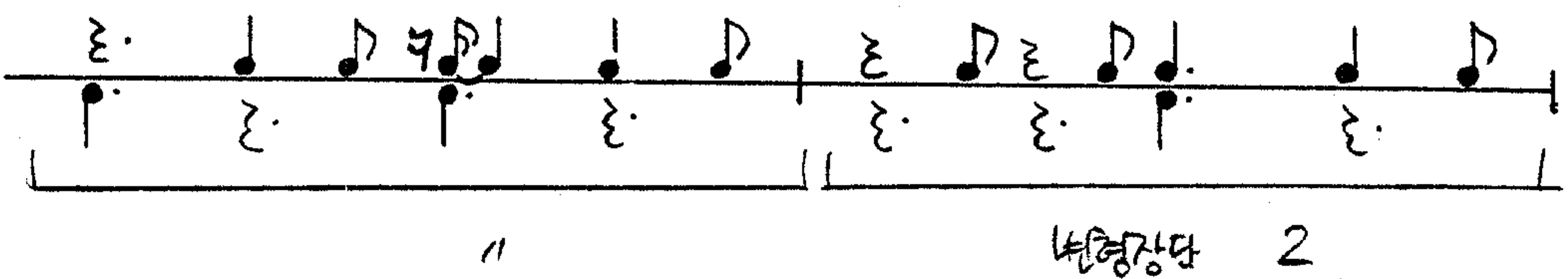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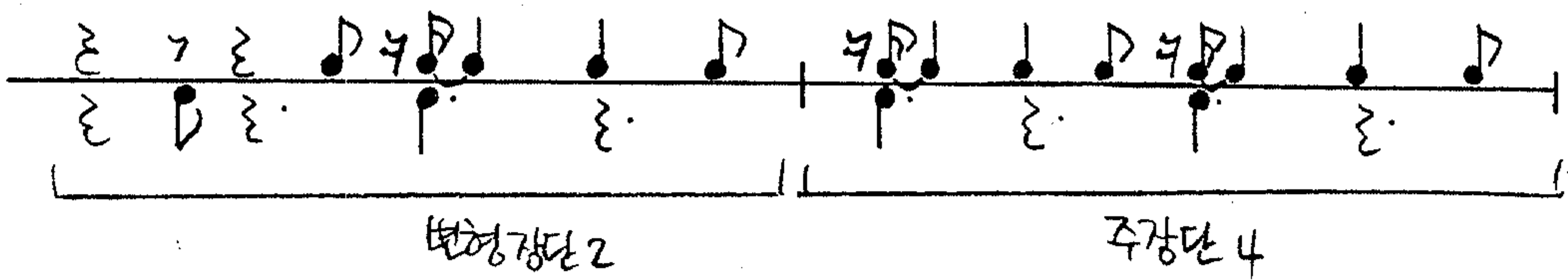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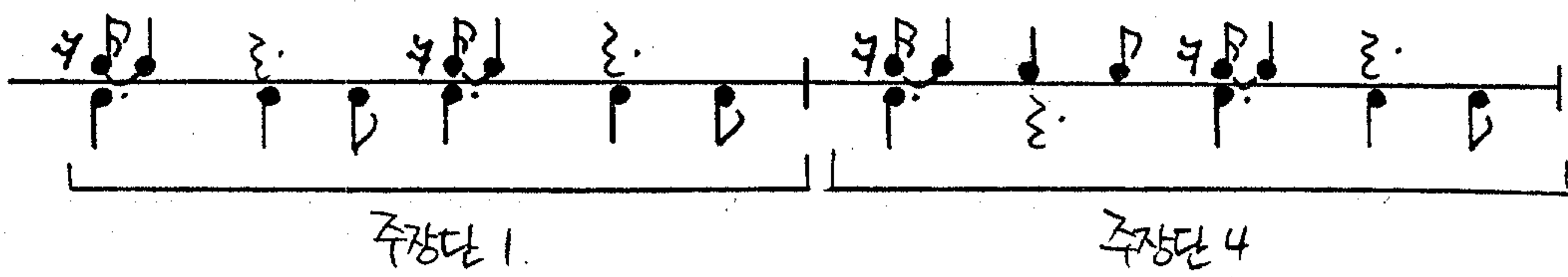
주장단 3.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a 12-measure piece. The notation is on a single staf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first six measures are grouped under the label '주장단 1' (Juchangdan 1), and the next six measures are grouped under '변형장단 2' (Byeonghyeongjangdan 2).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quarter, eighth, sixteenth notes), rests, and bar line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a two-measure piece. The first measure is labeled '주장단 1' and the second measure is labeled '변형장단 2'.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bar 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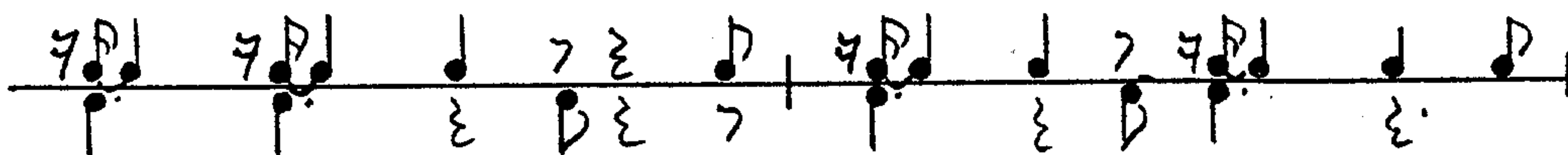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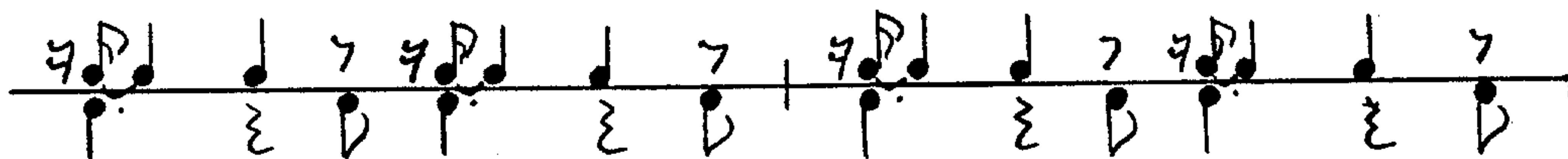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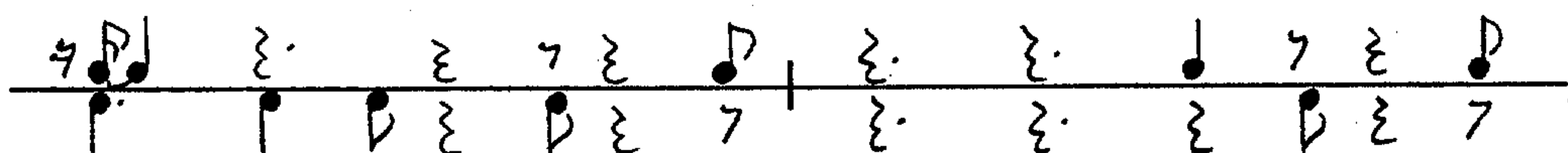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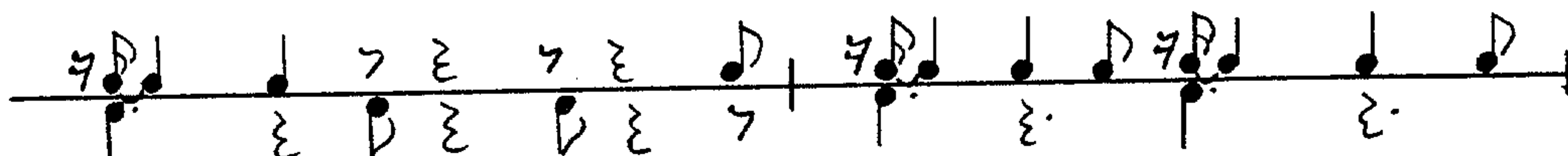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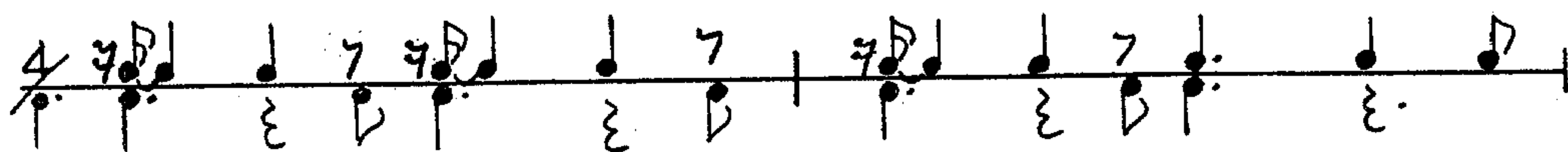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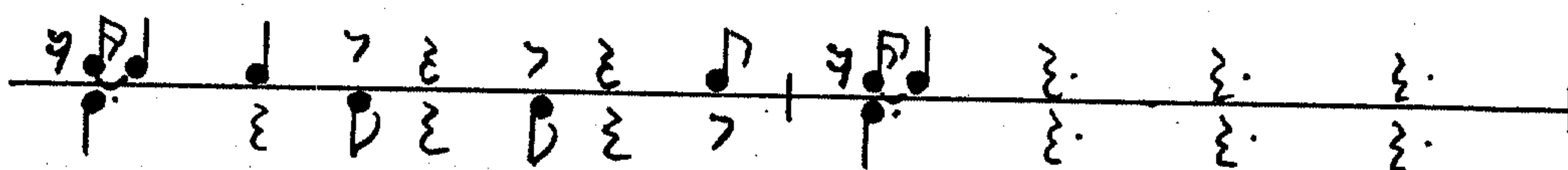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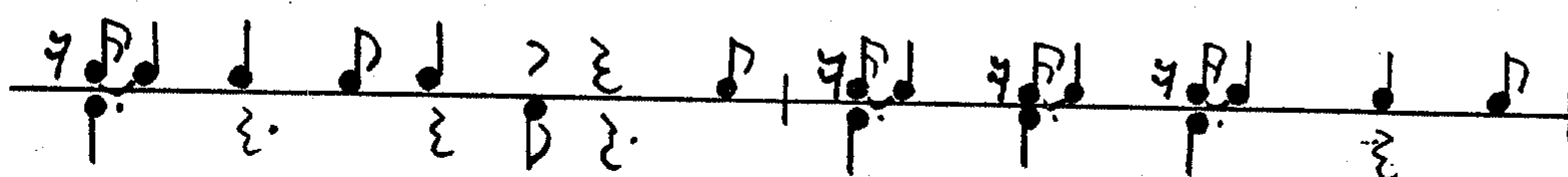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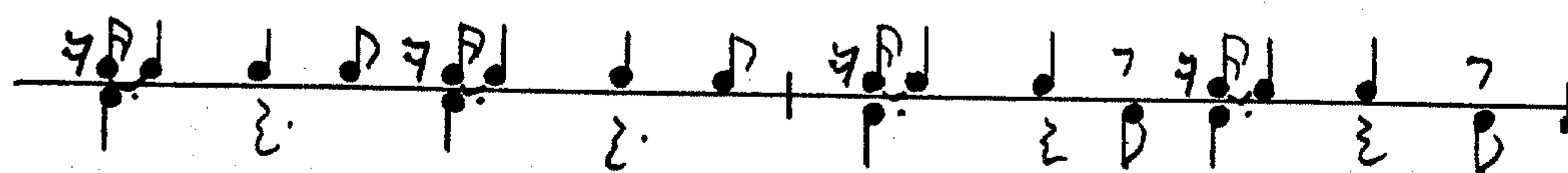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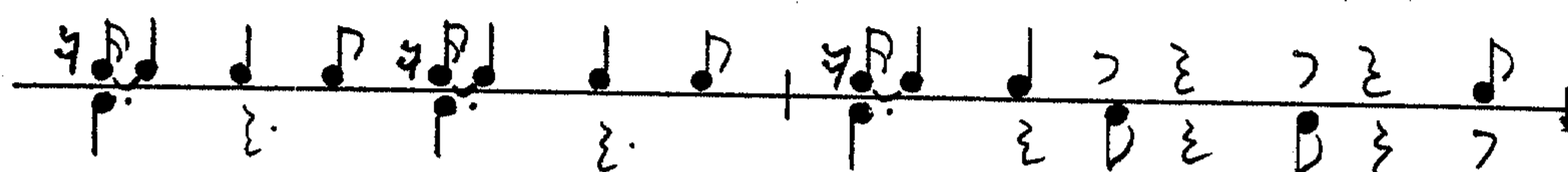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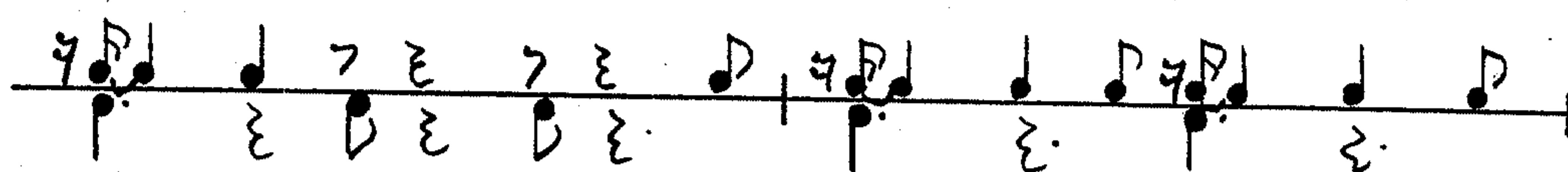
〈베포도업침〉

**J. = 35**

초감제타 동영







< 군문돌아봄 > 악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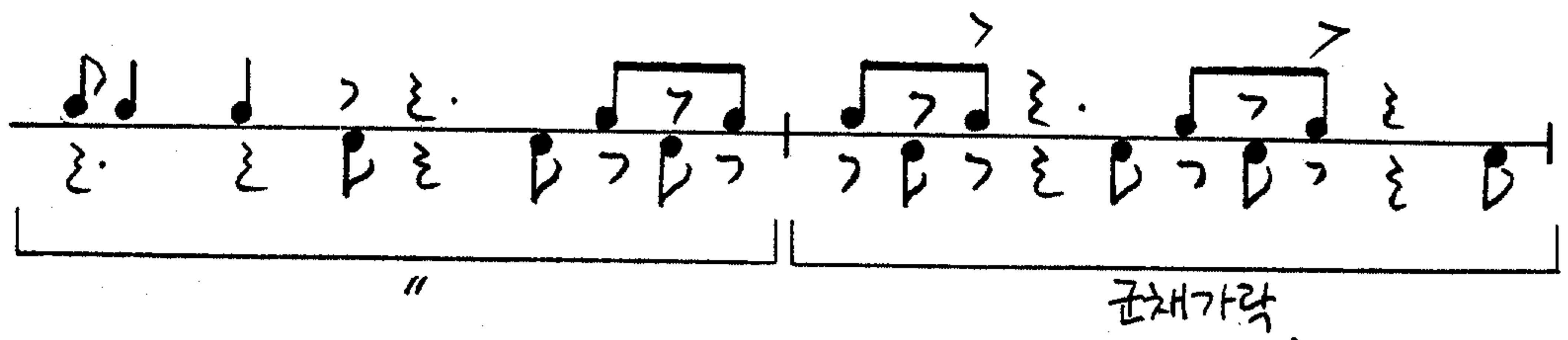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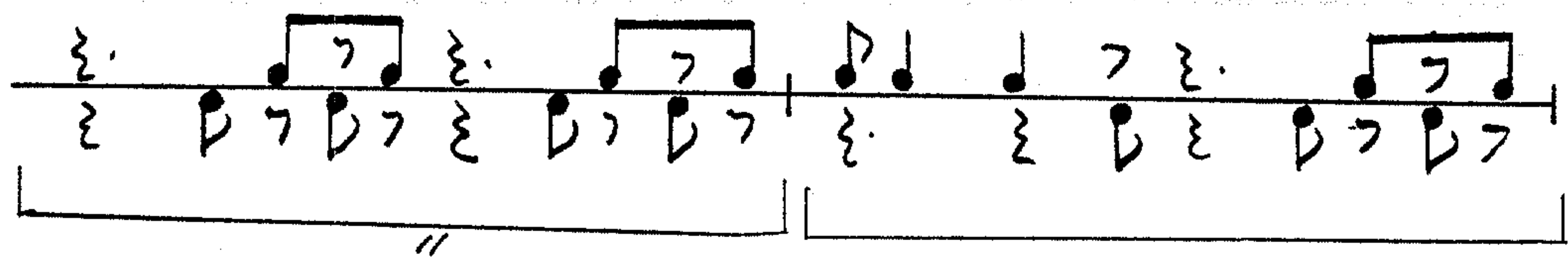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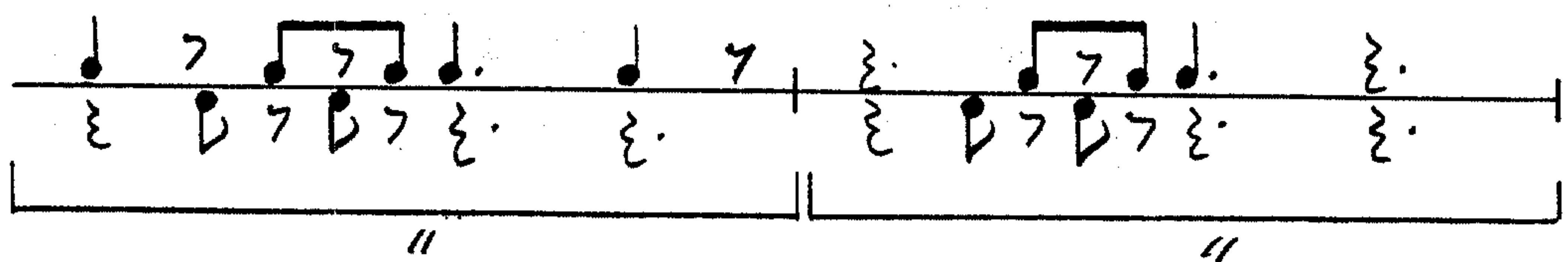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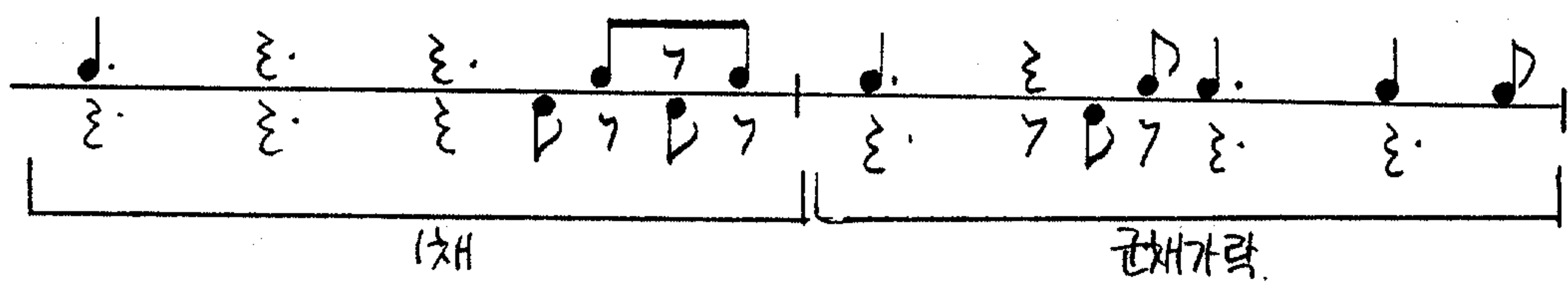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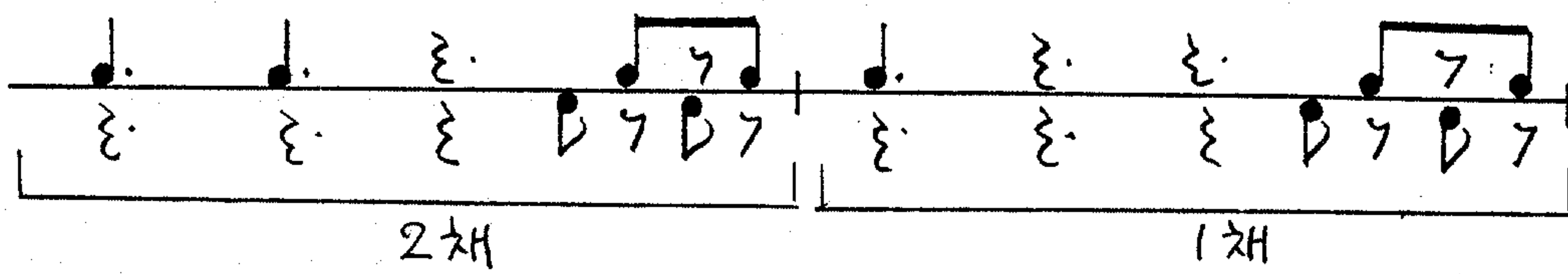
♩ = 88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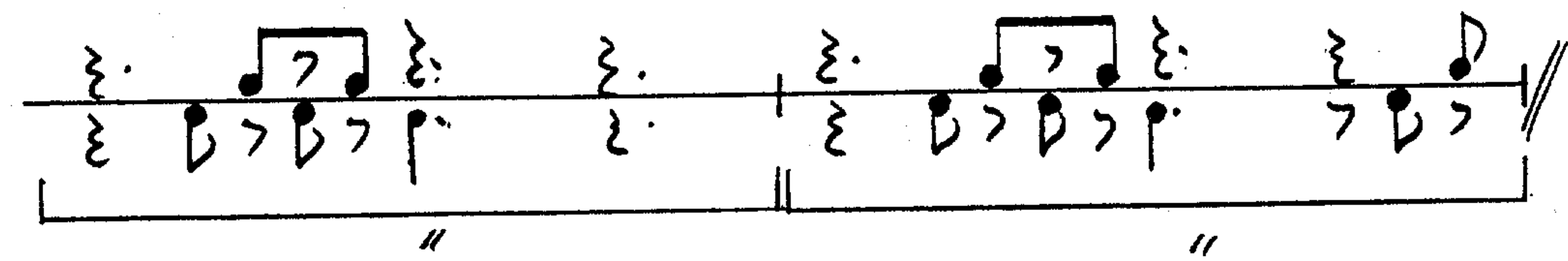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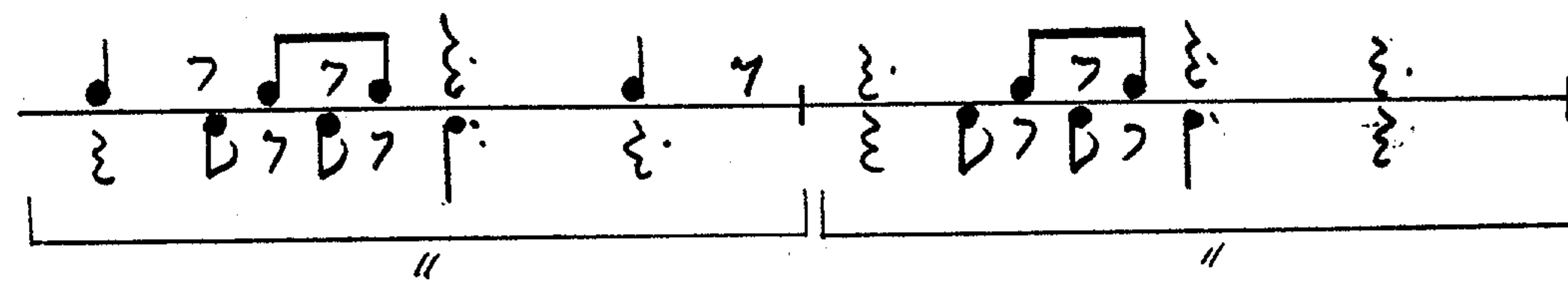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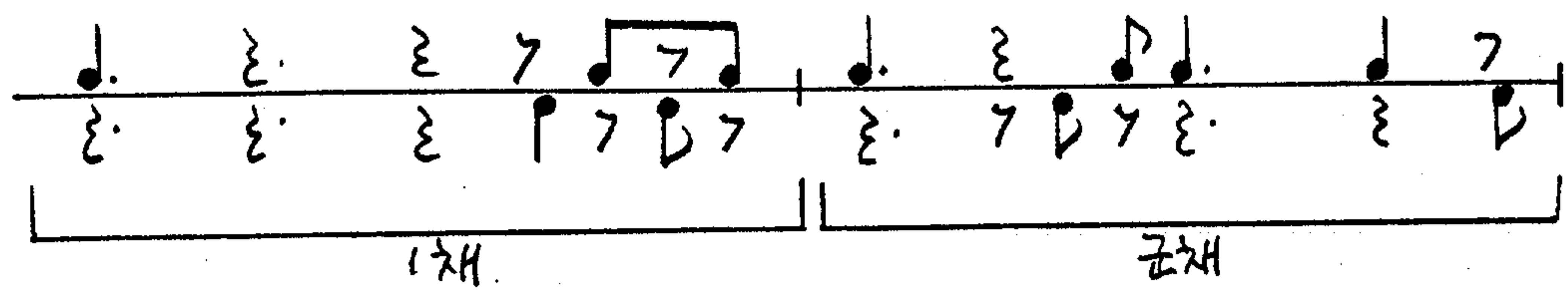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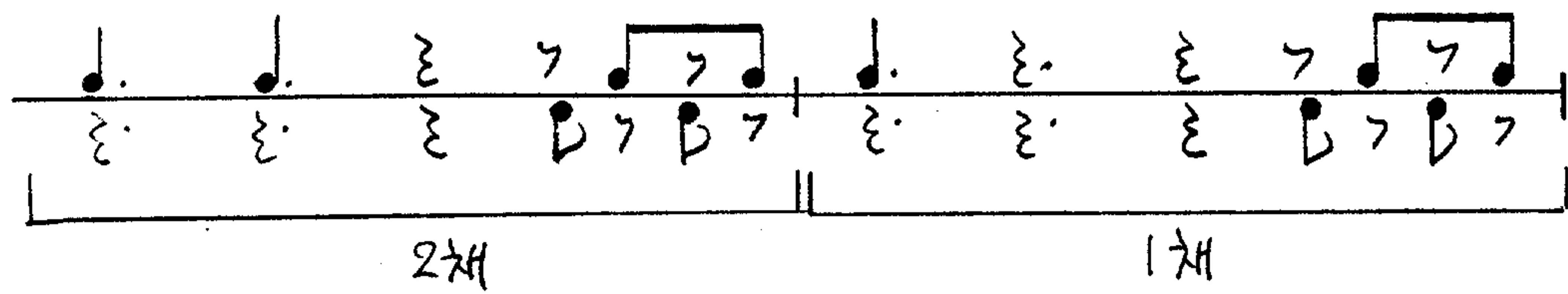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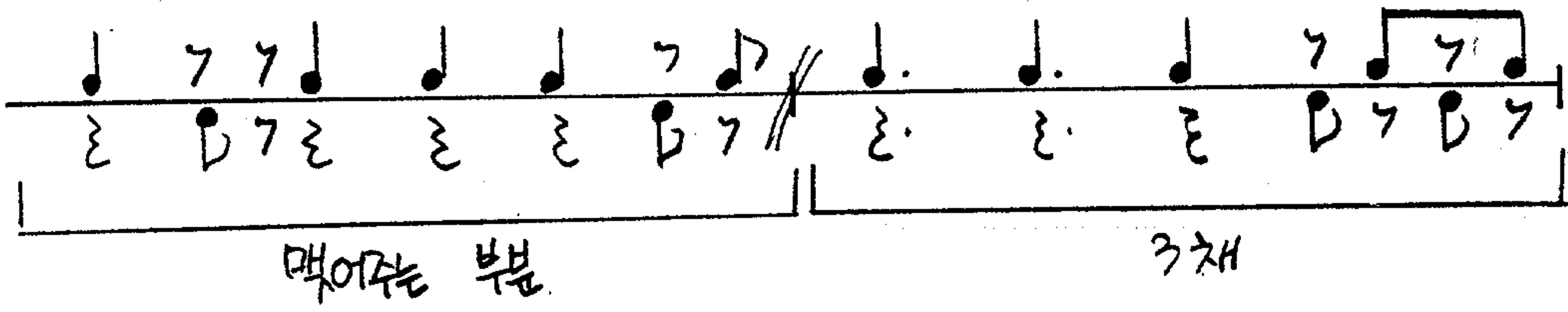
②

매어주는 부분      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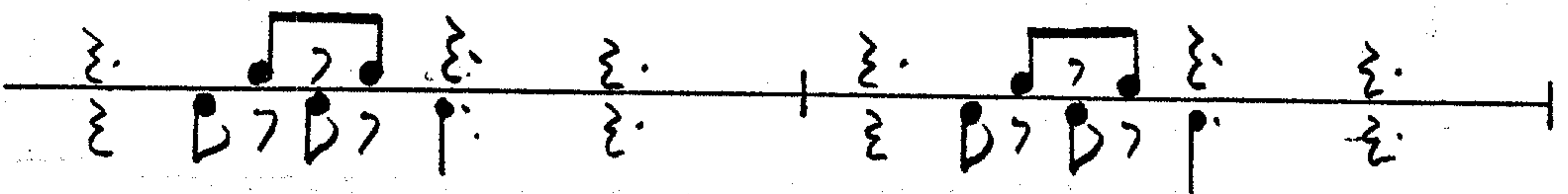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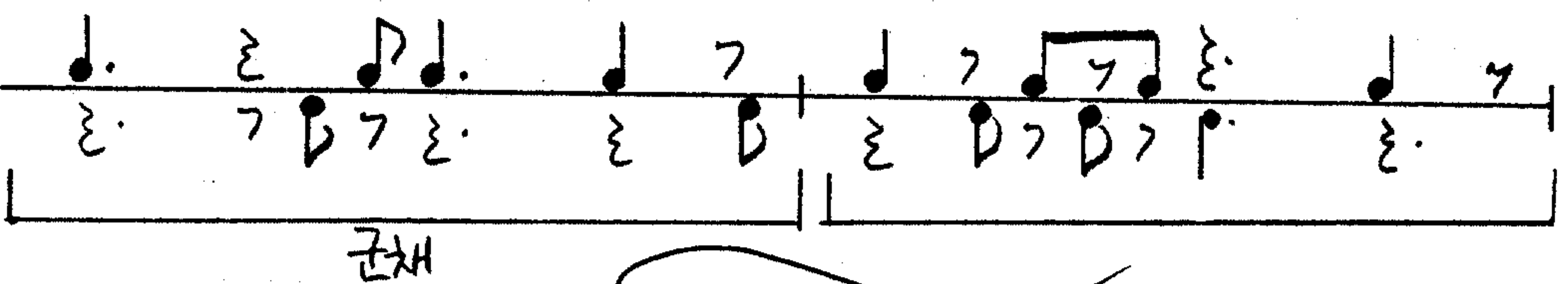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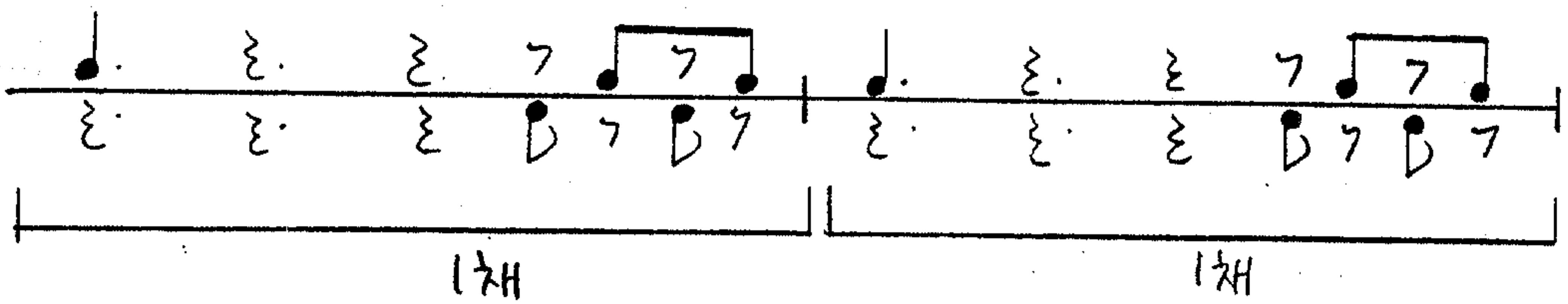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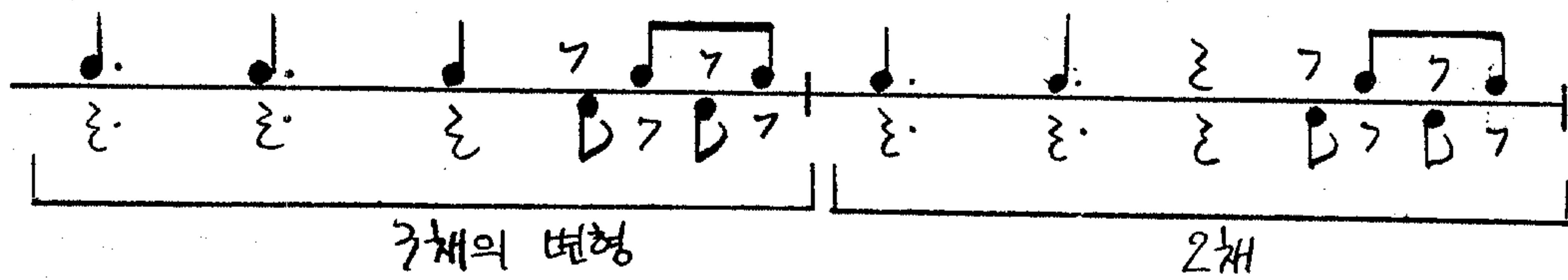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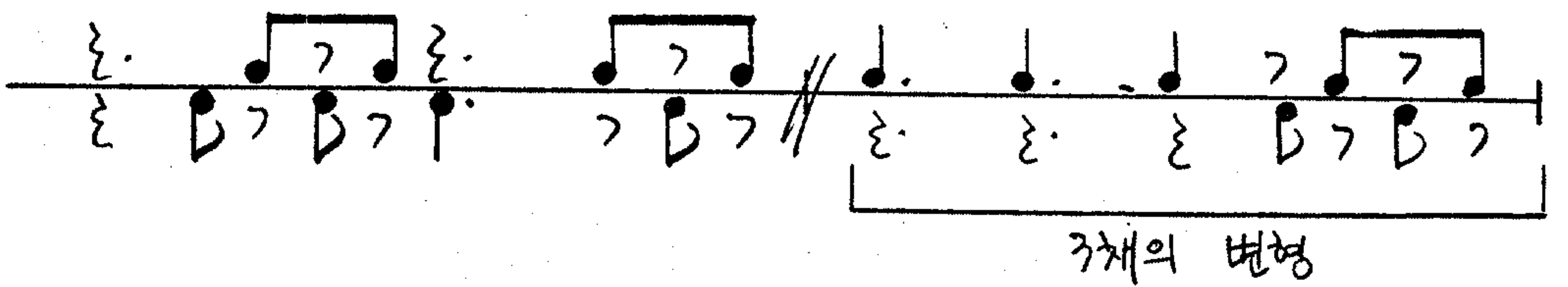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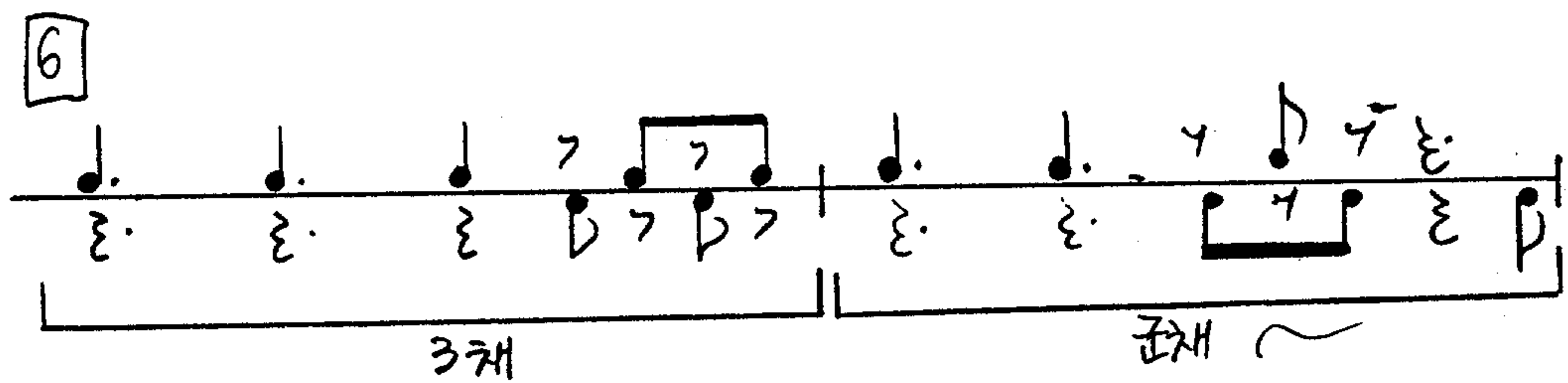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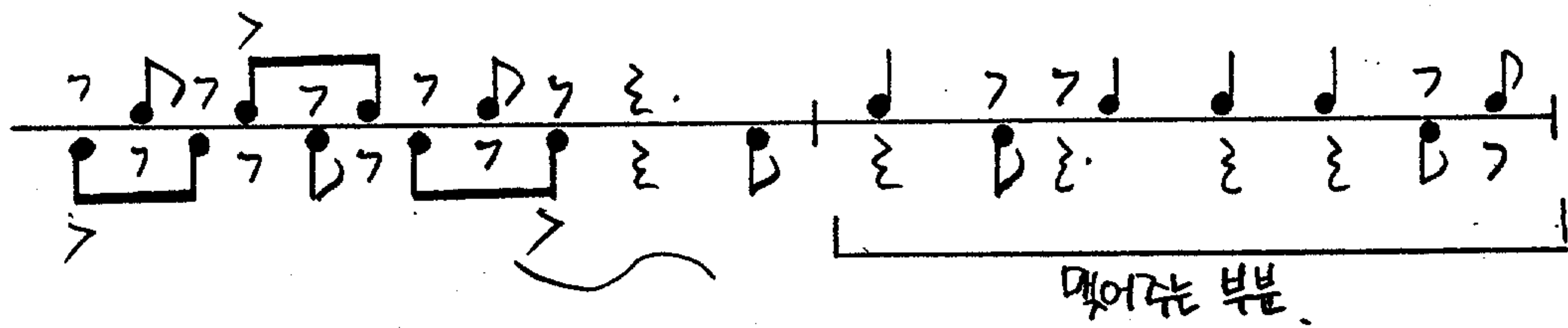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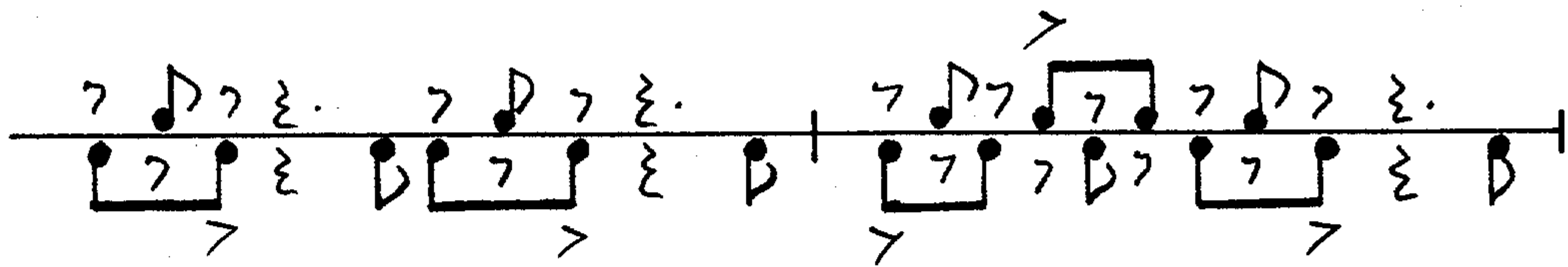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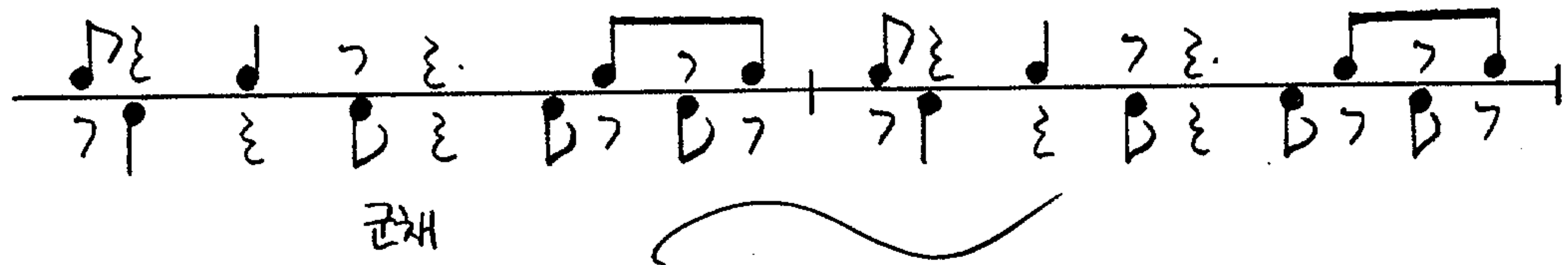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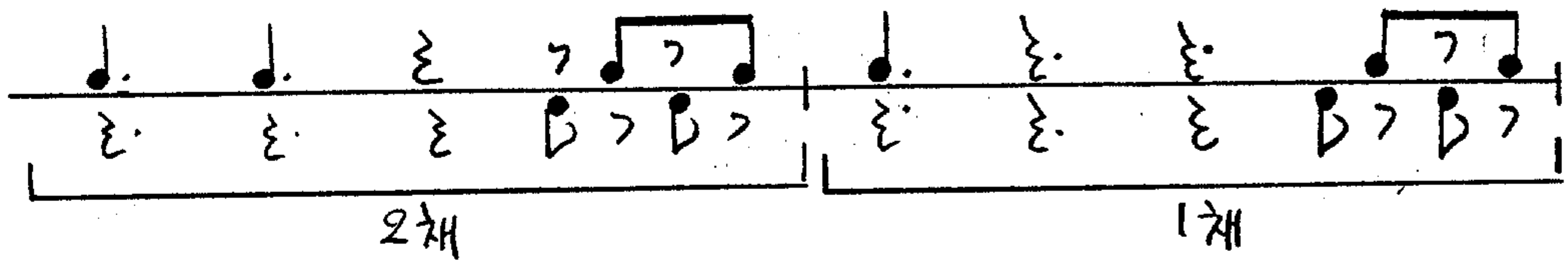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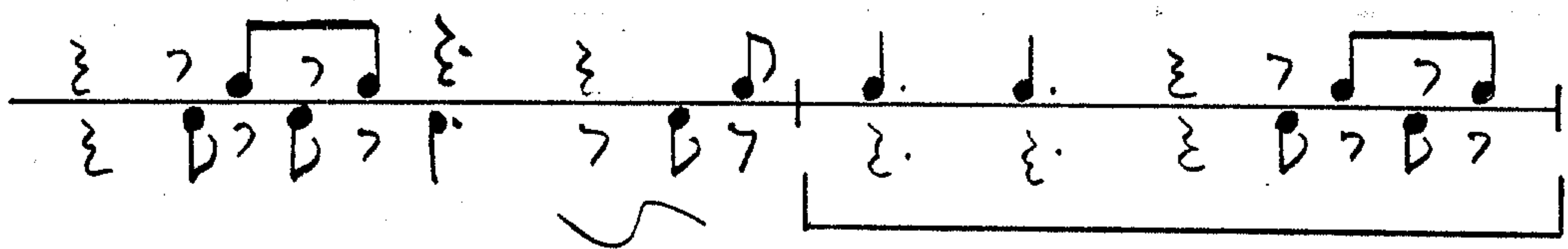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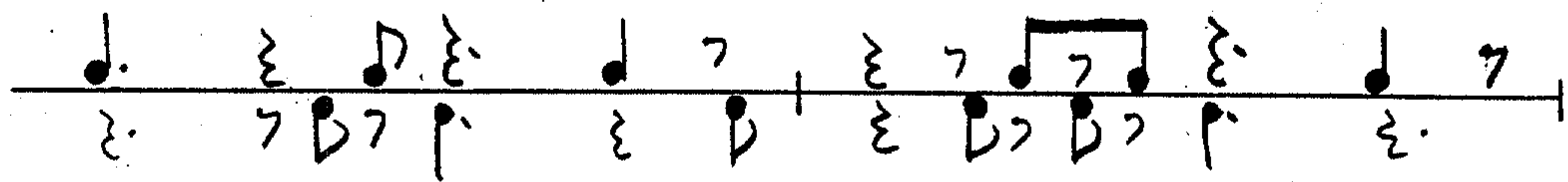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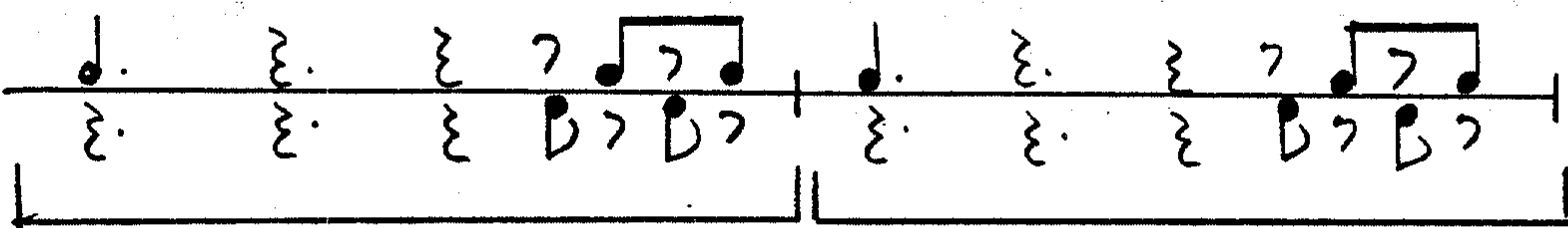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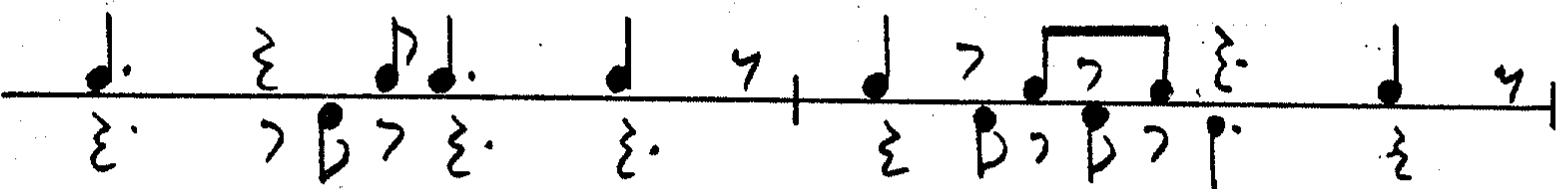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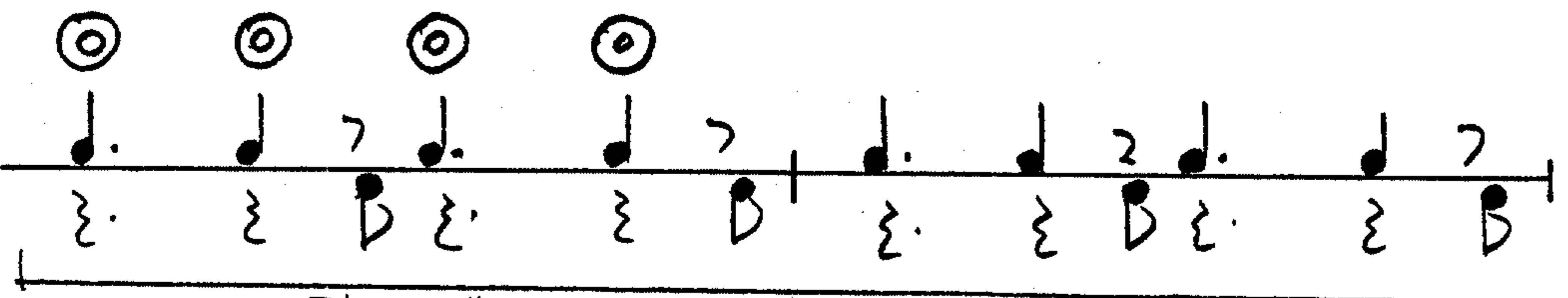
1차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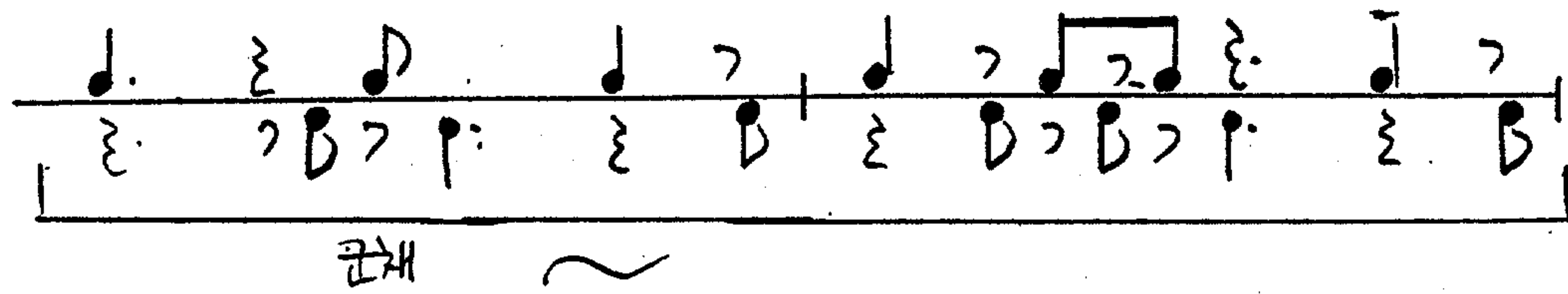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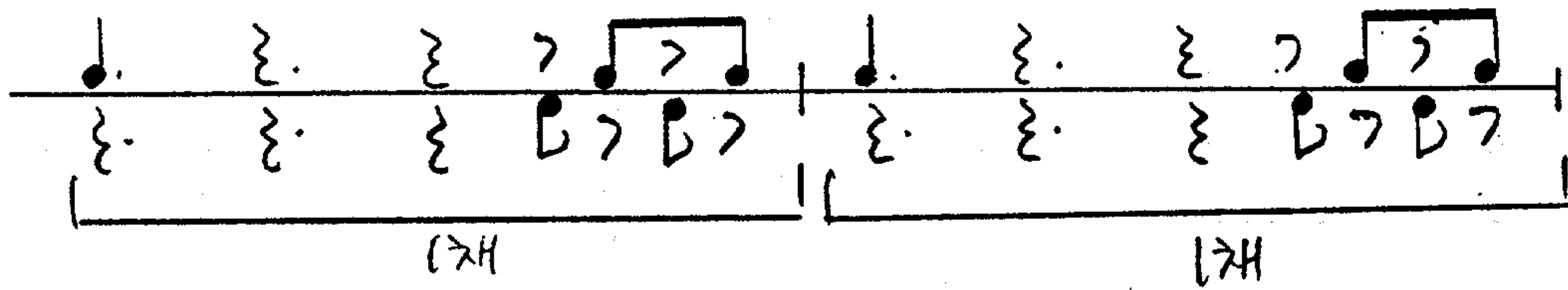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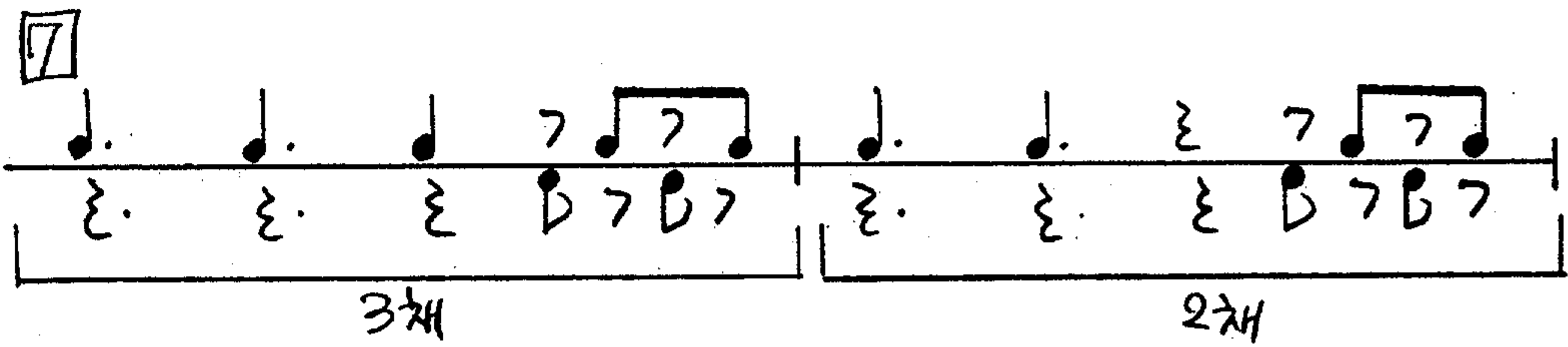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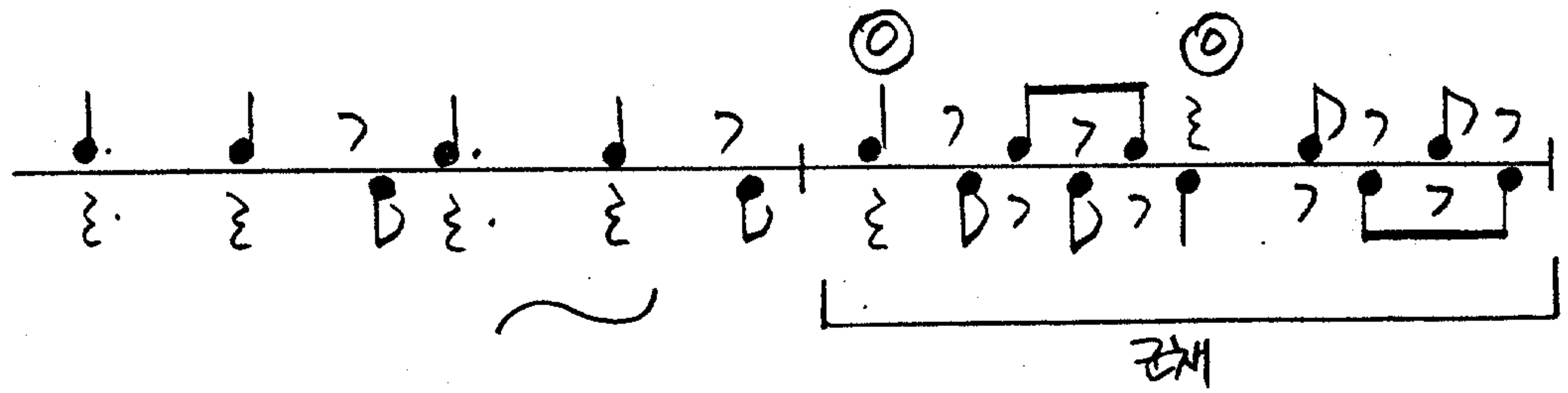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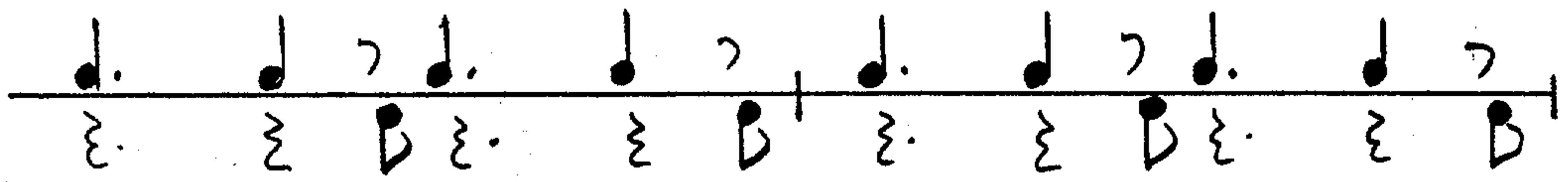
♩ =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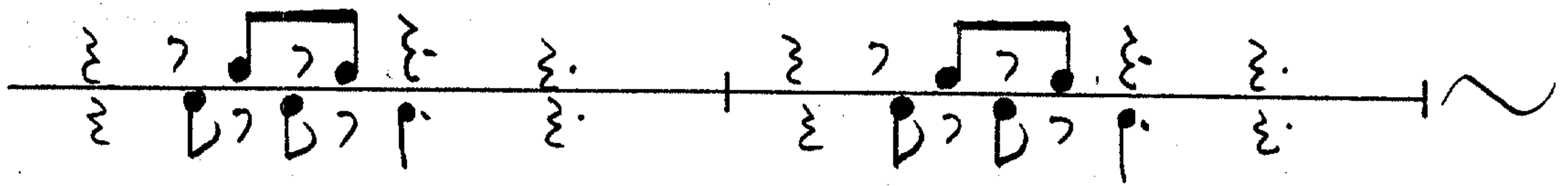
준채 ~



준채는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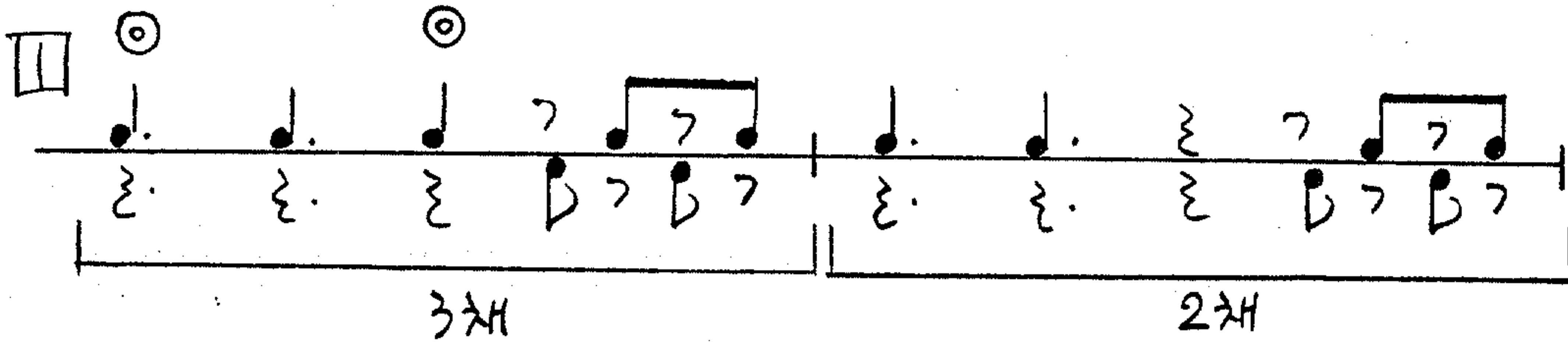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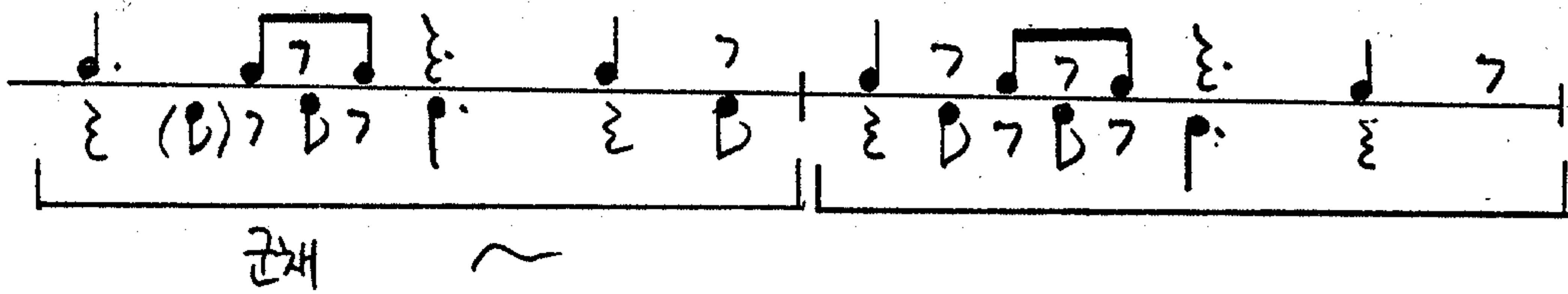
<권문열림> 약보3.

♩ = 110 -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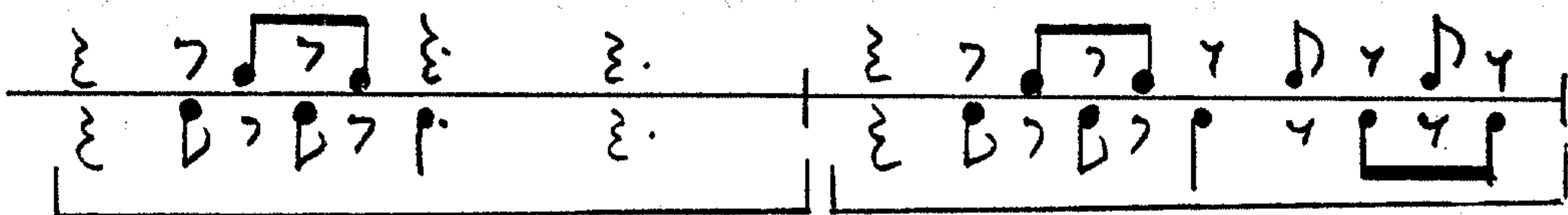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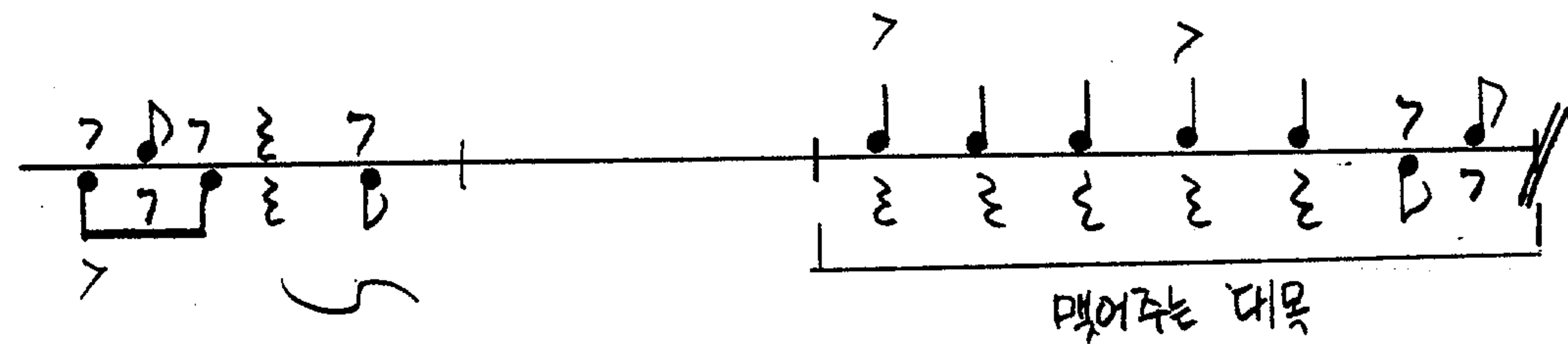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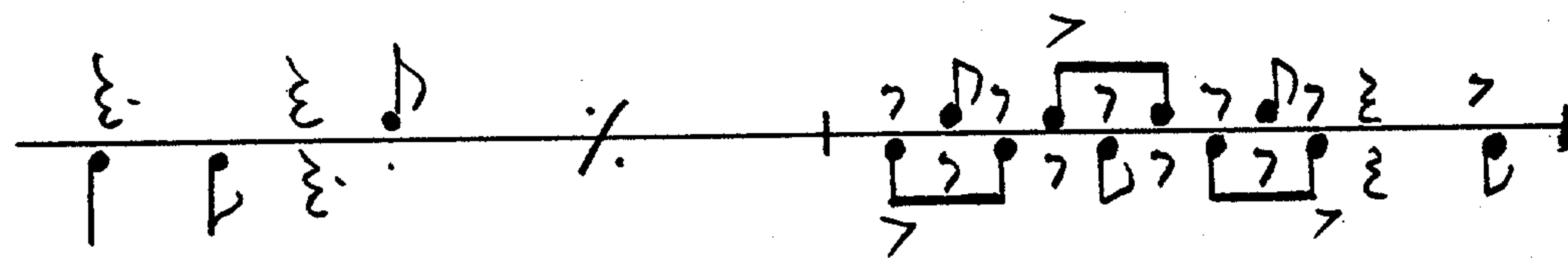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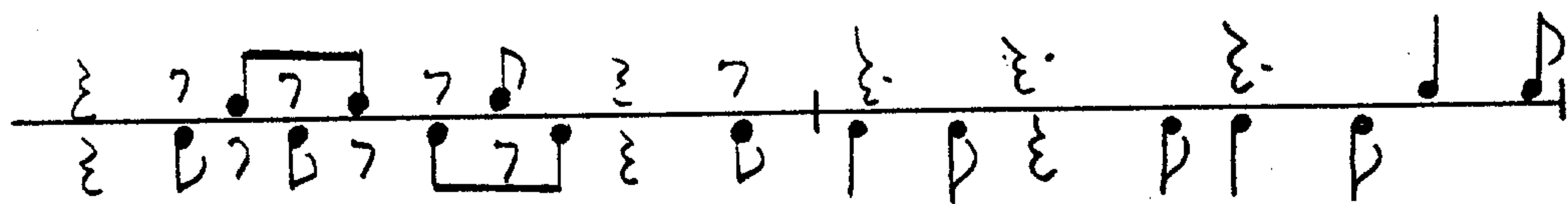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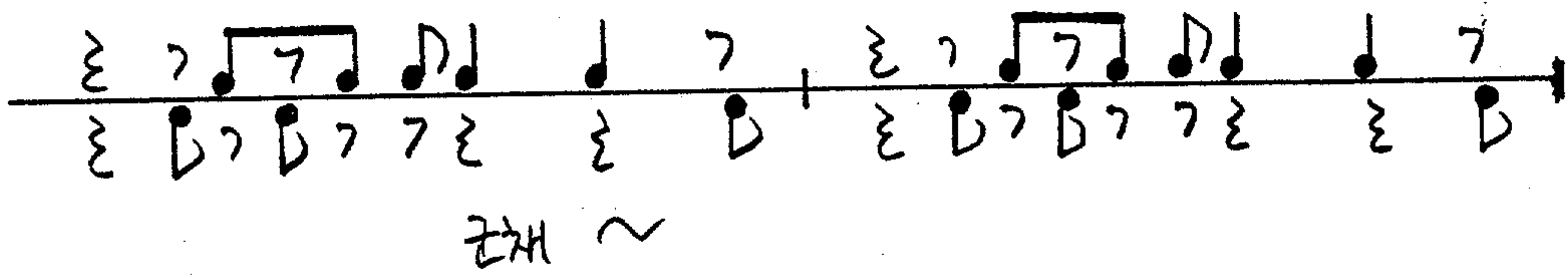
1채

1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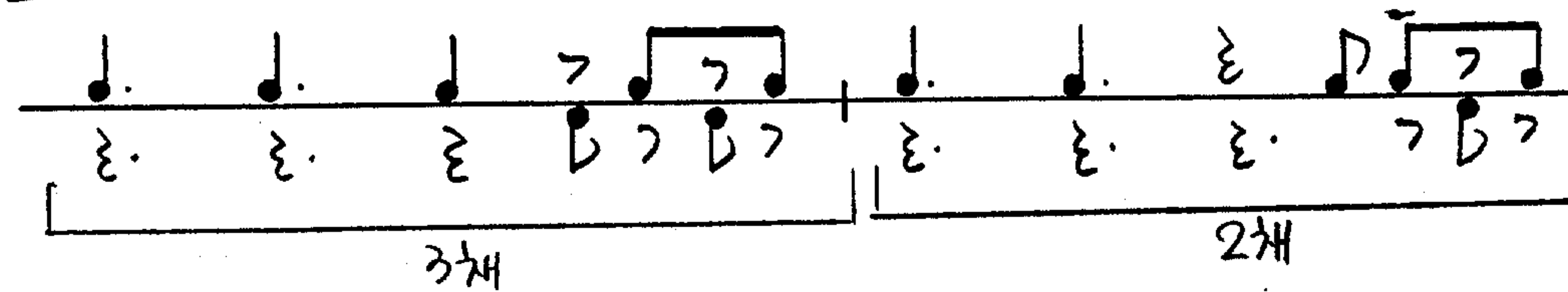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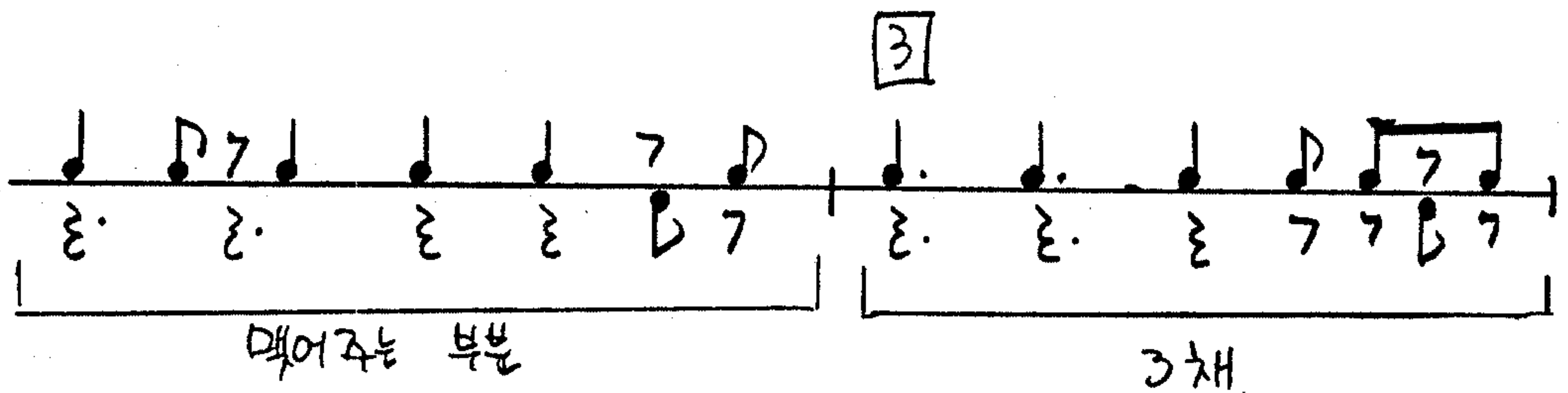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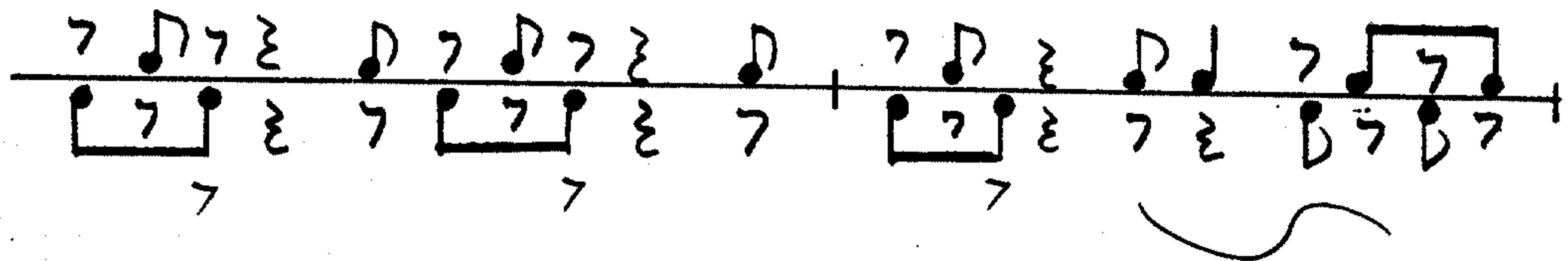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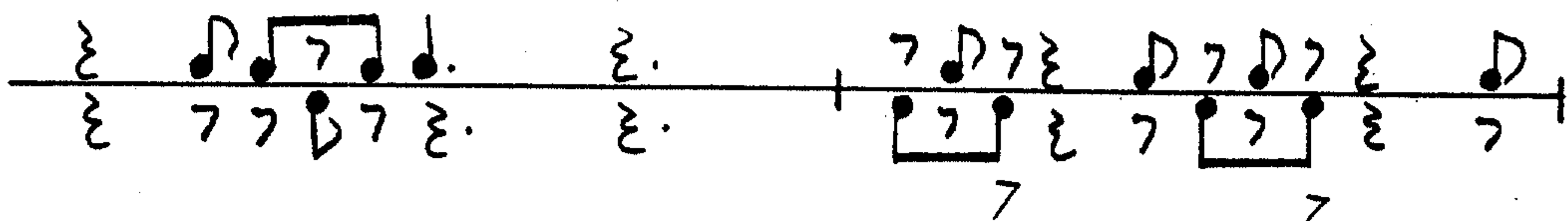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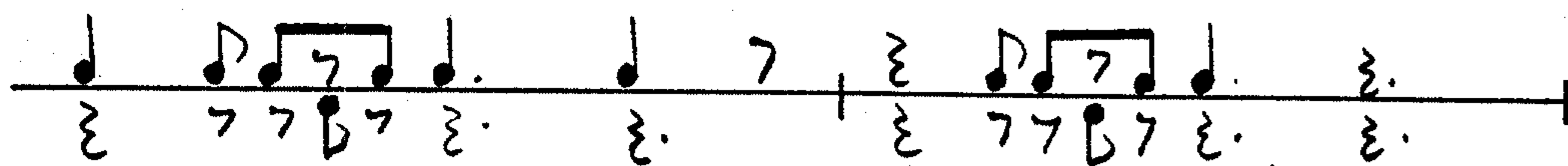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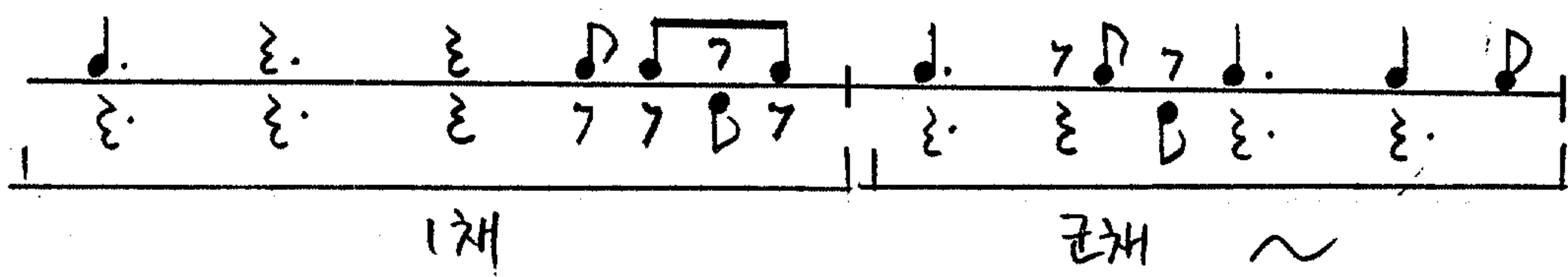
권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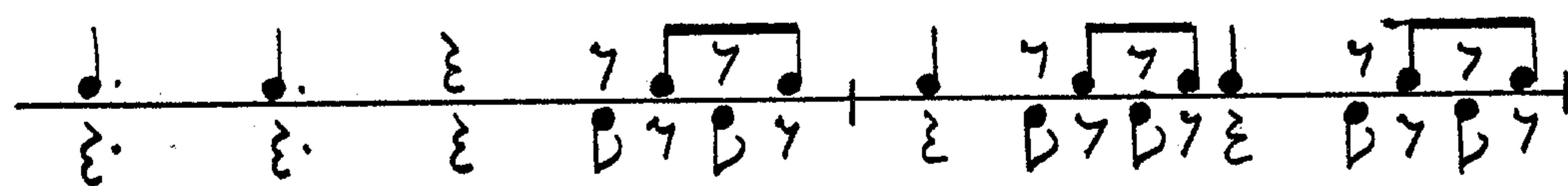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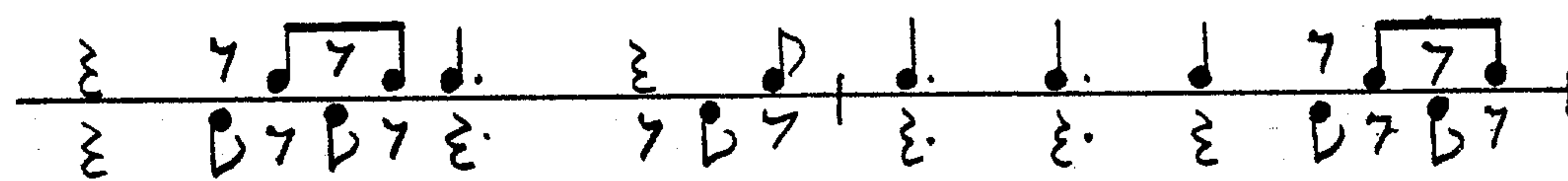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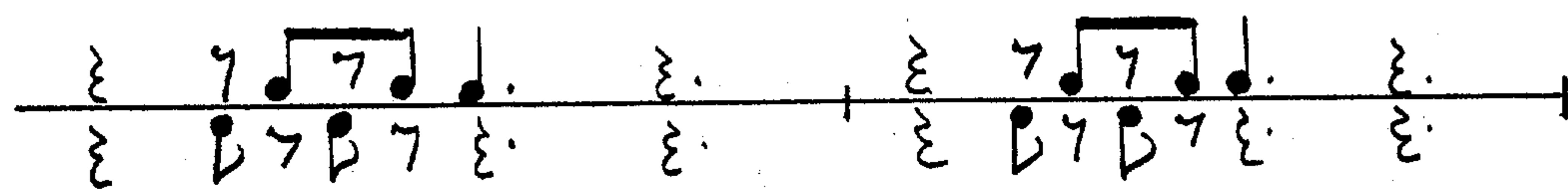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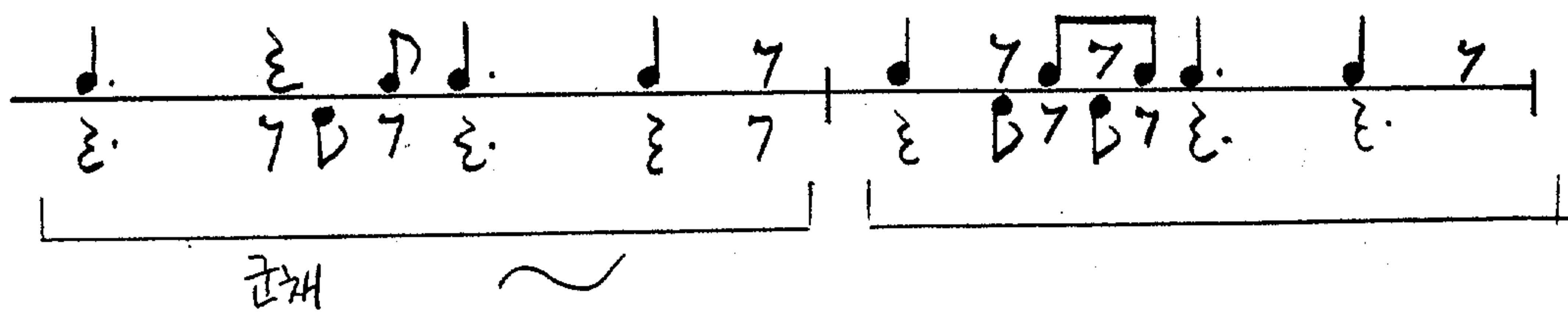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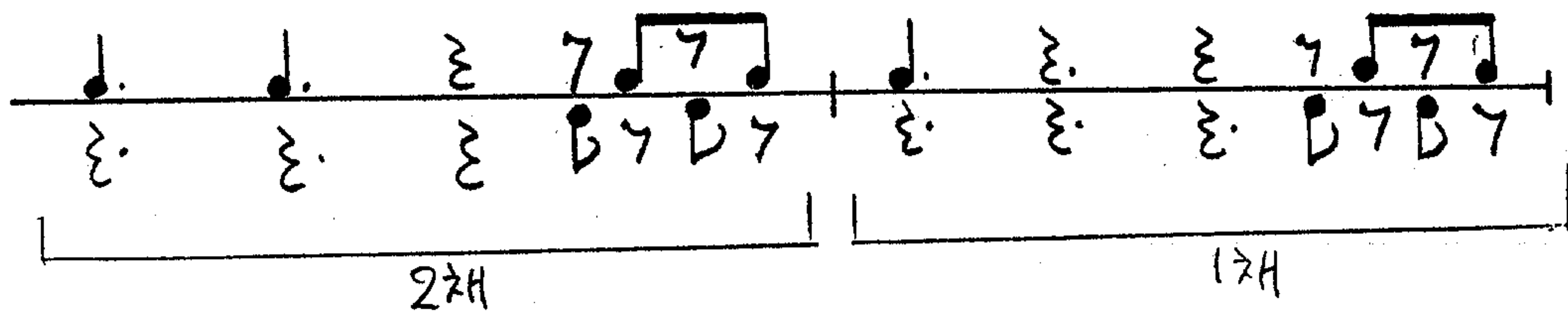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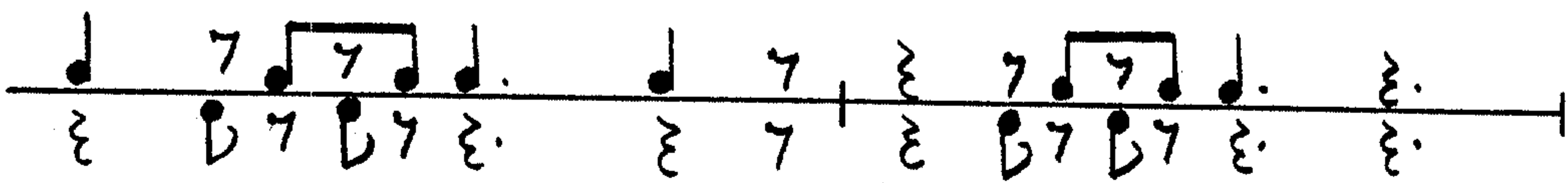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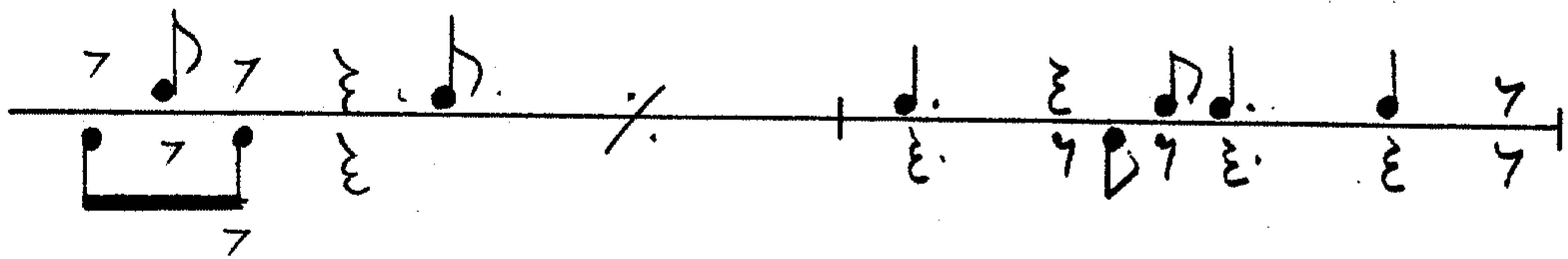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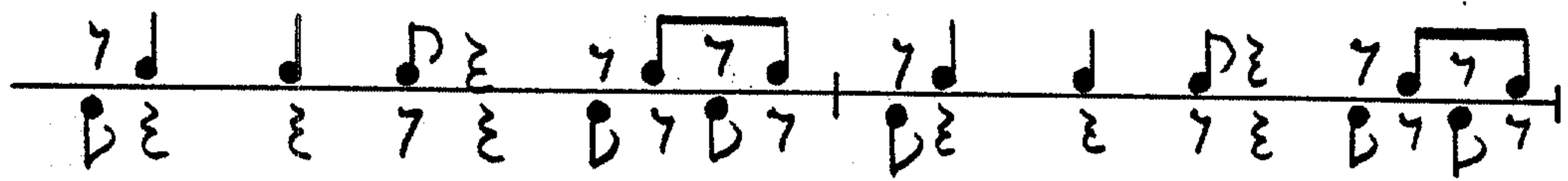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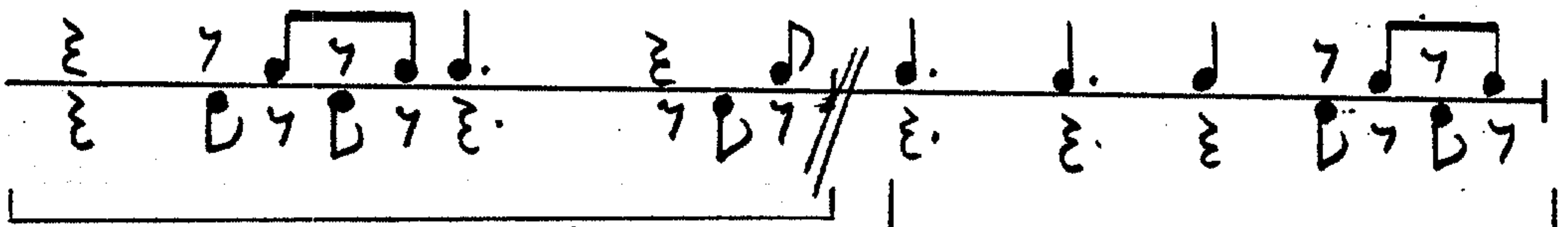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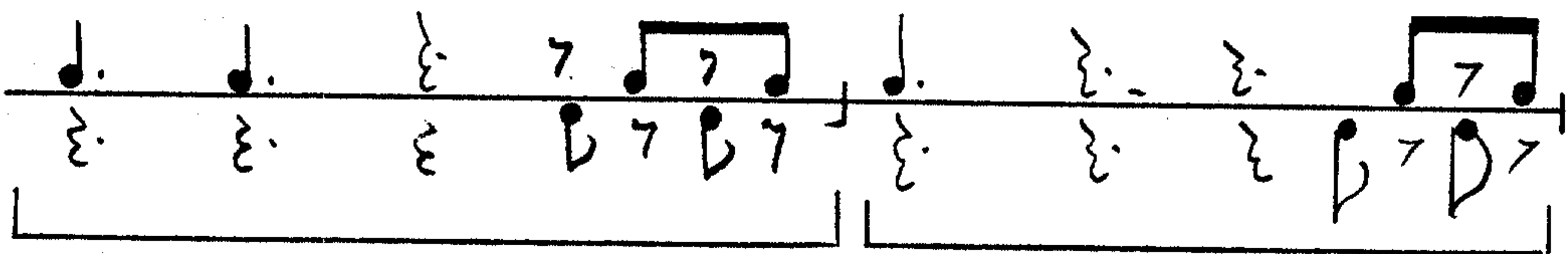


4



매어주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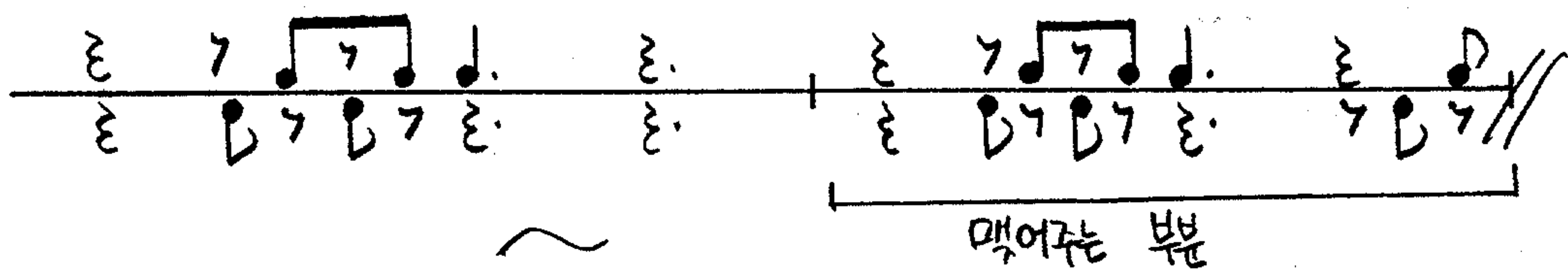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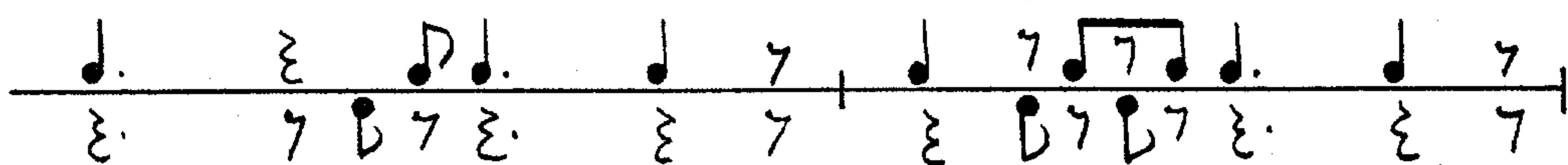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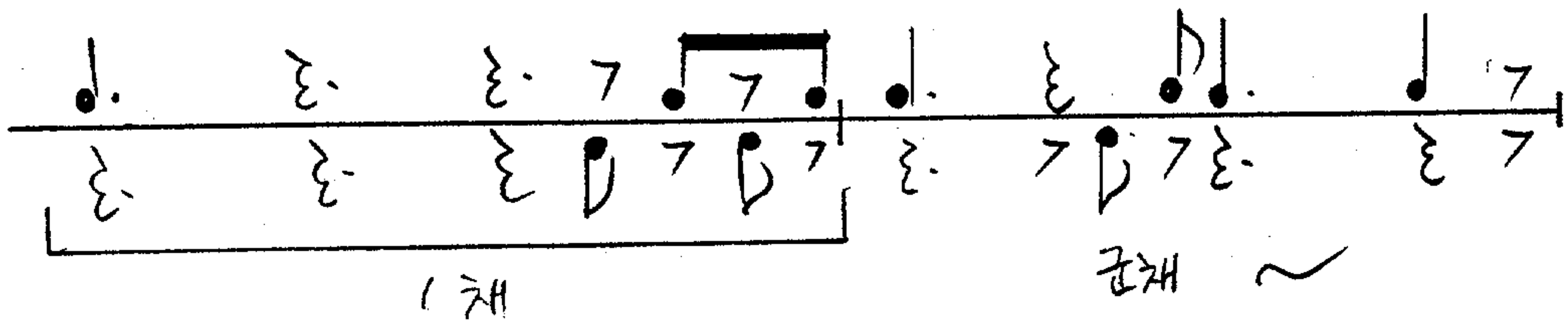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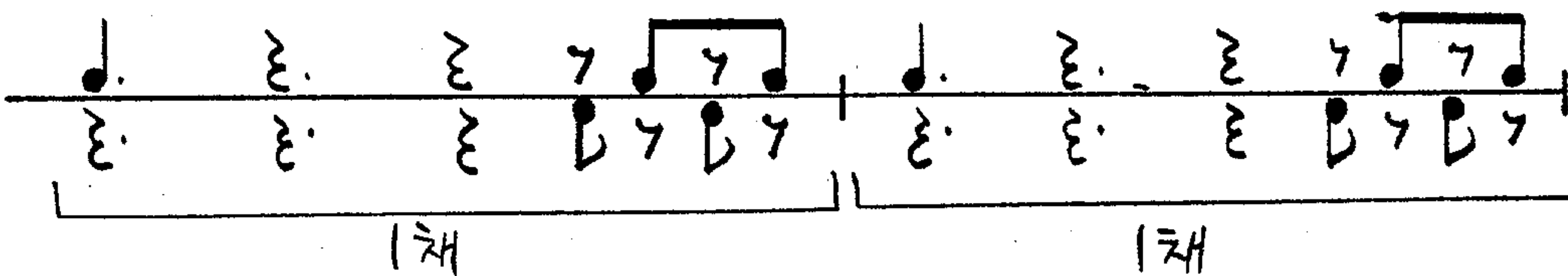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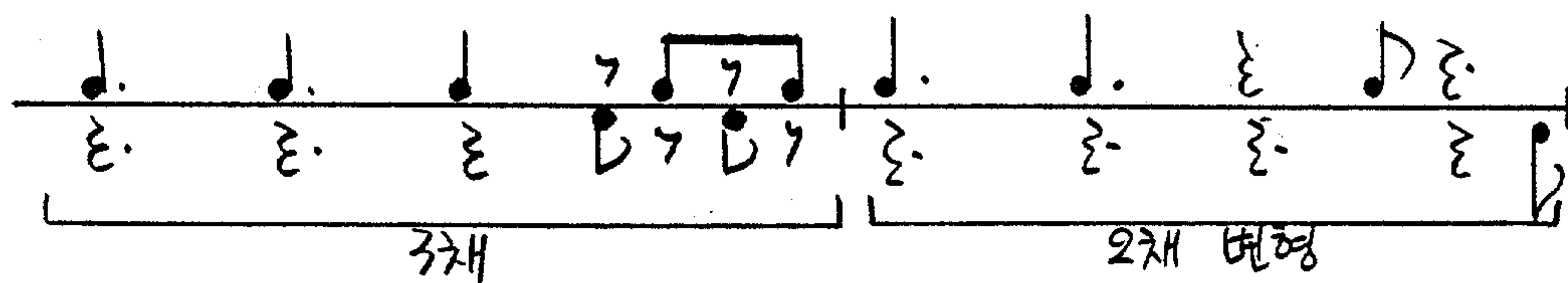
2개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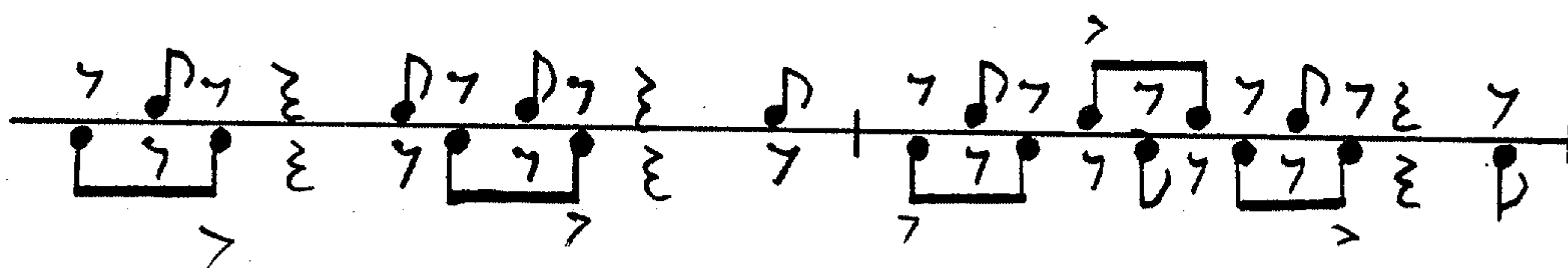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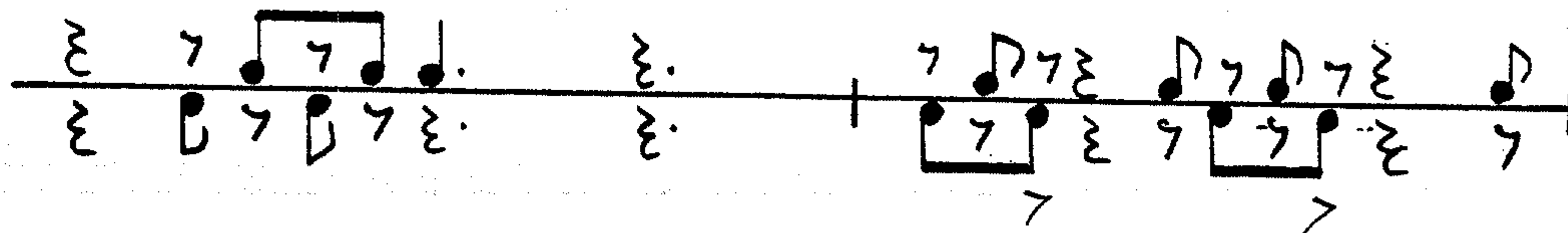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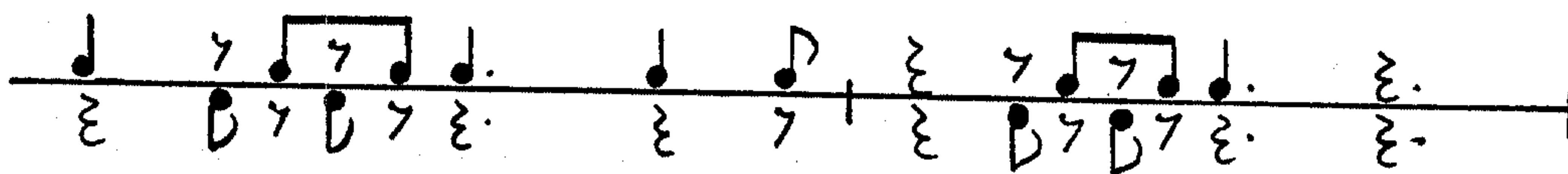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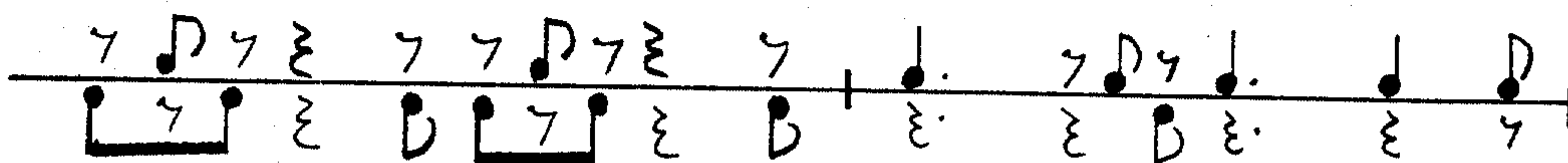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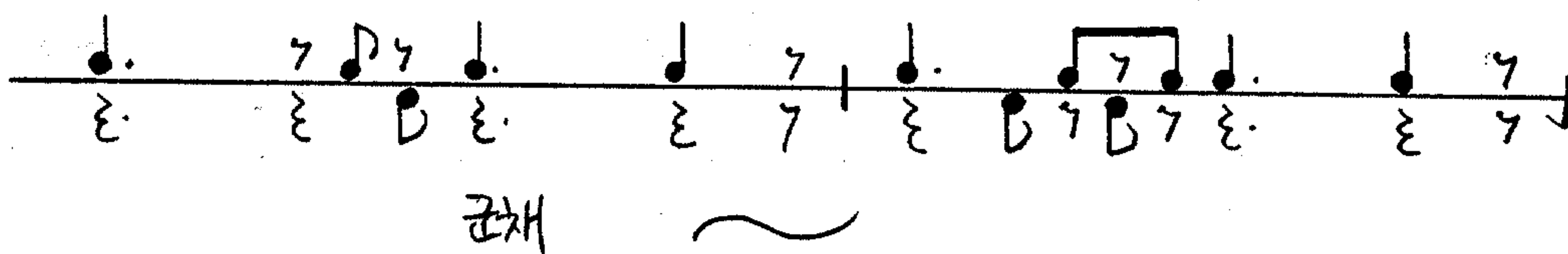
♩. = 116



[5]







대어주는 부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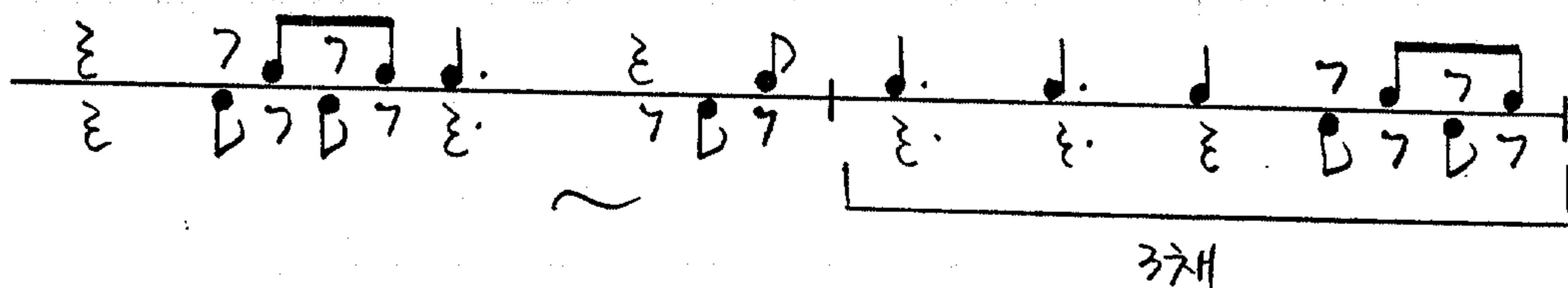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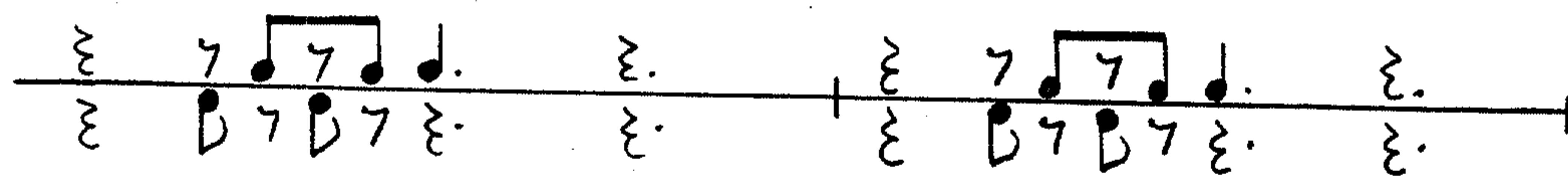
대어주는 부분 ②      대어주는 부분 ③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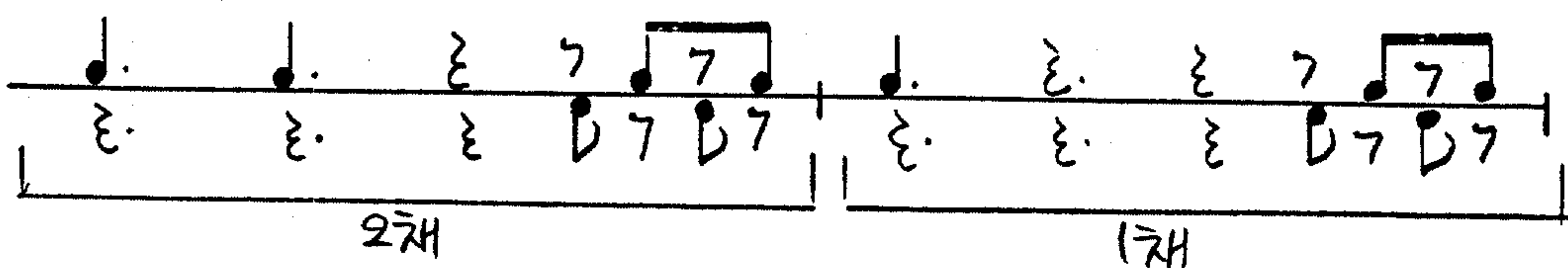
3차      2차

1차      1차

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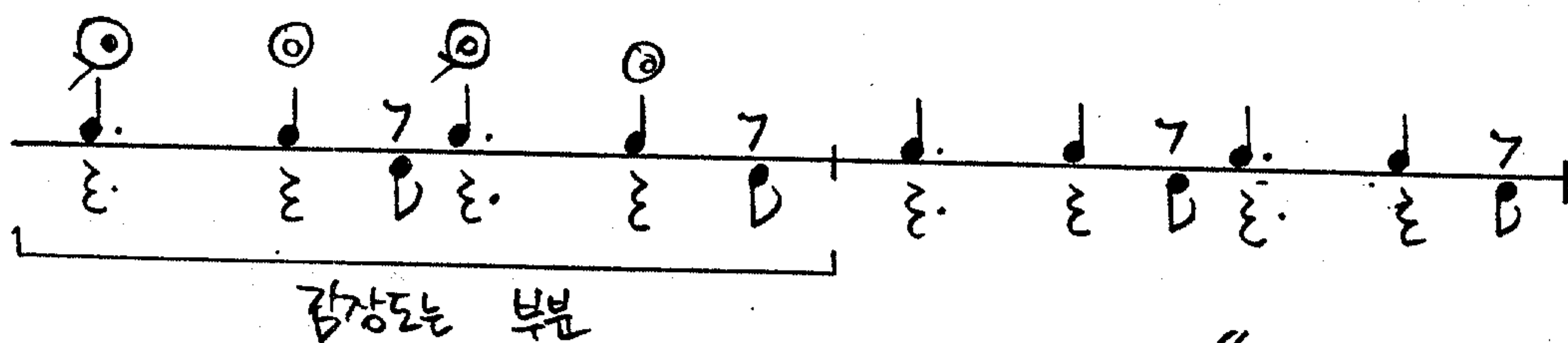
3개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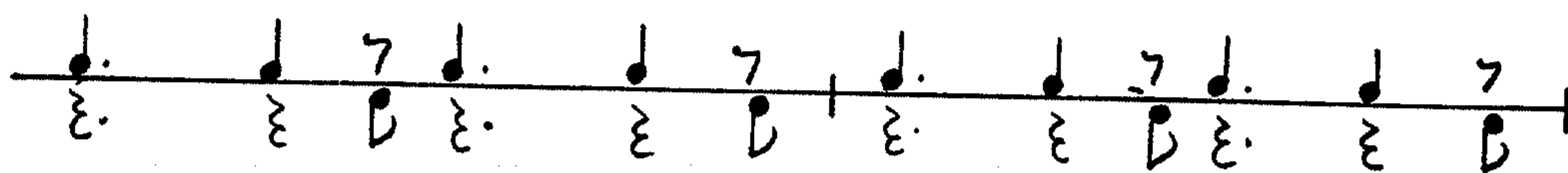
1개

♩.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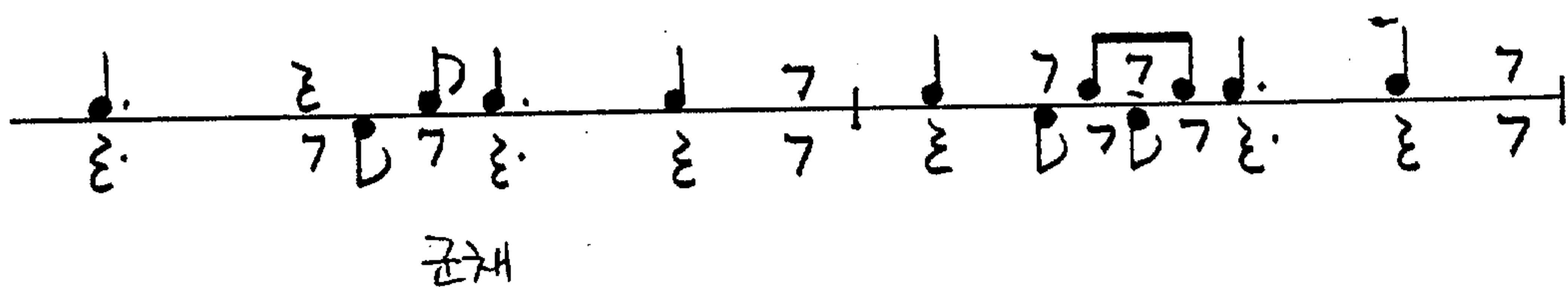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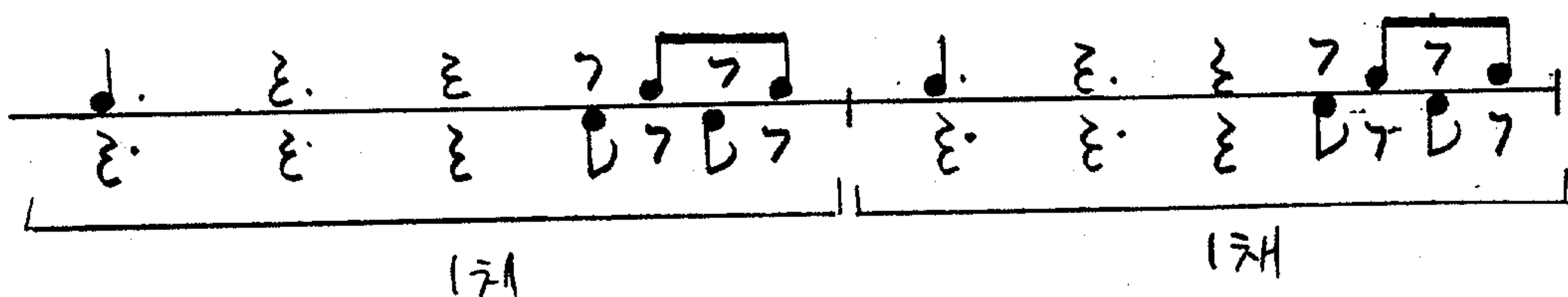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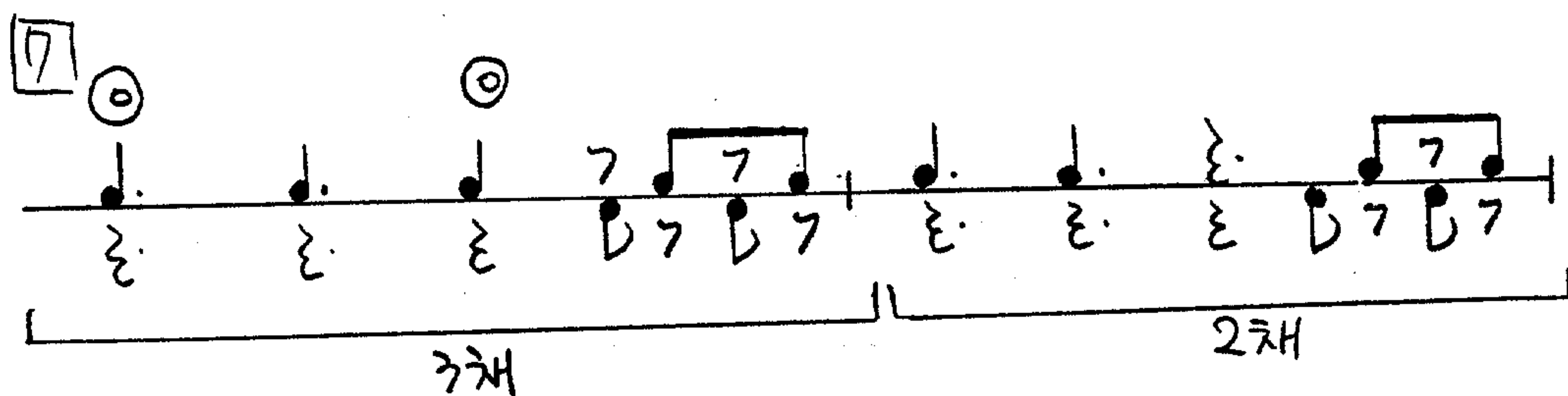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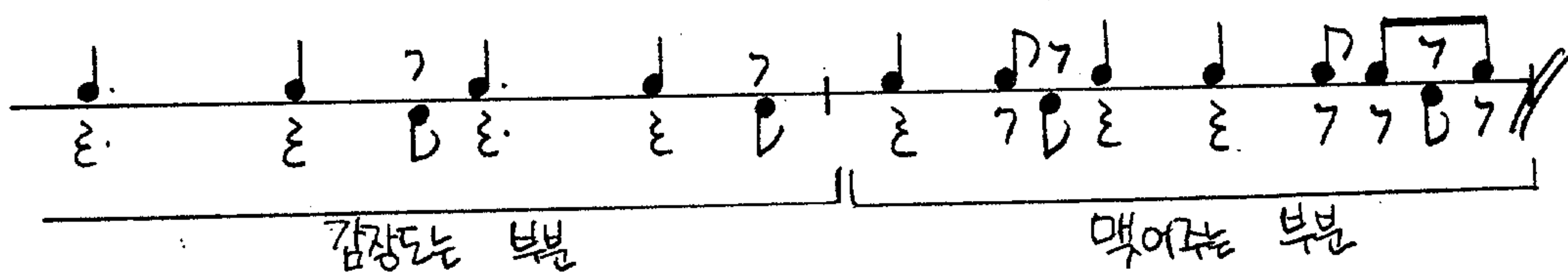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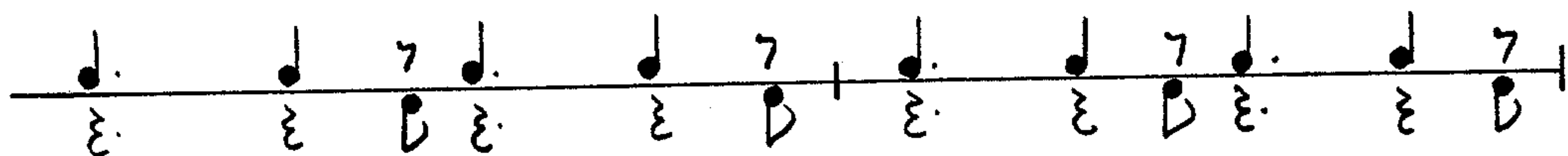
감상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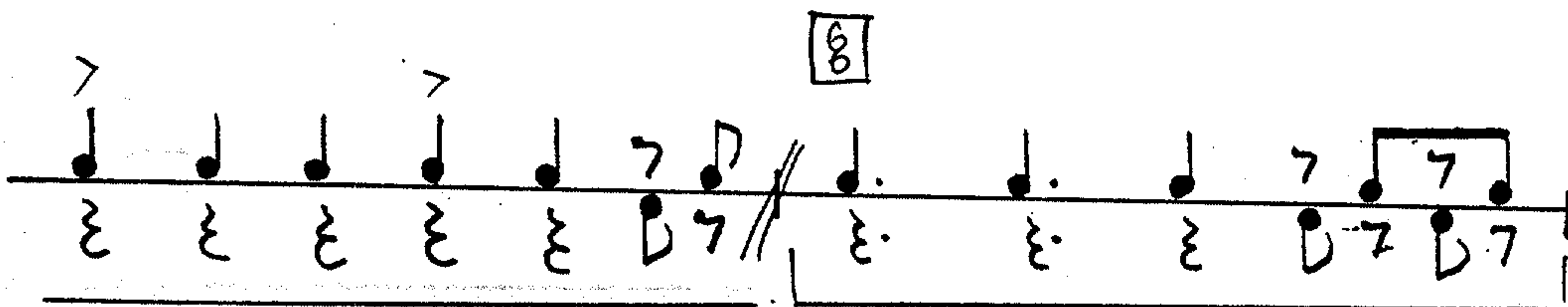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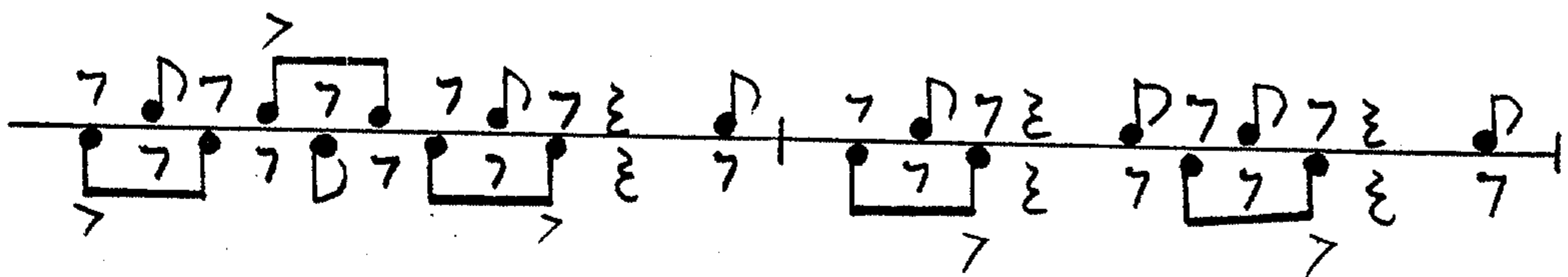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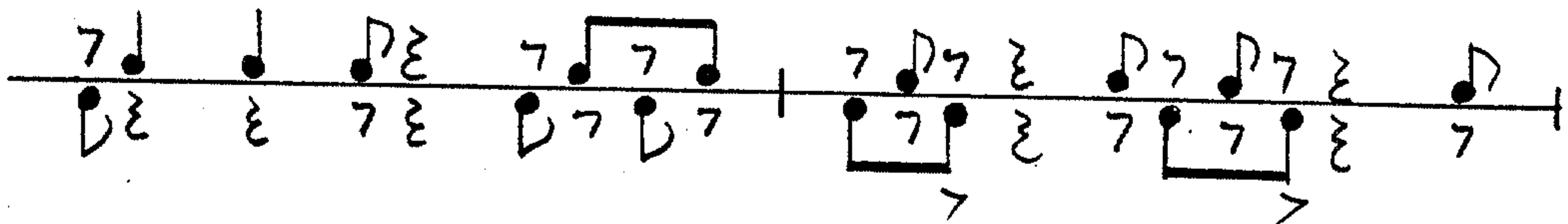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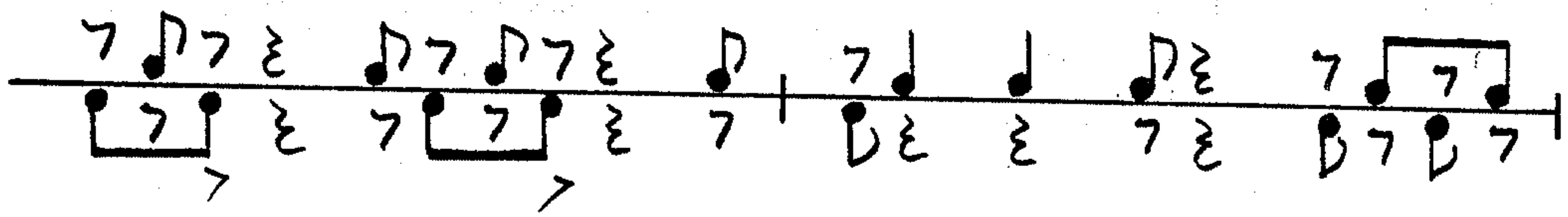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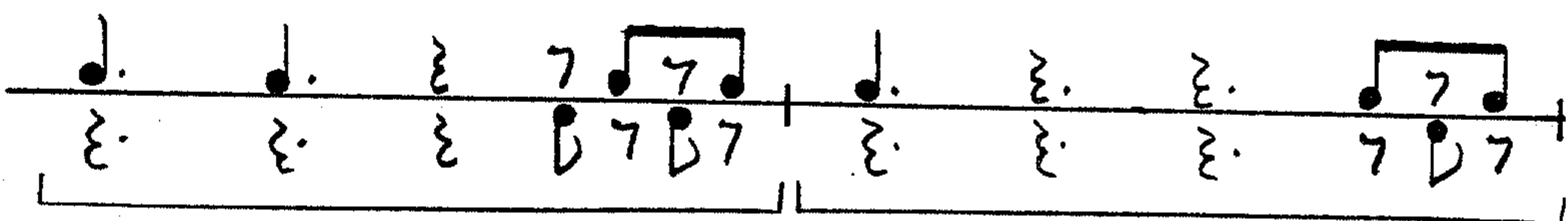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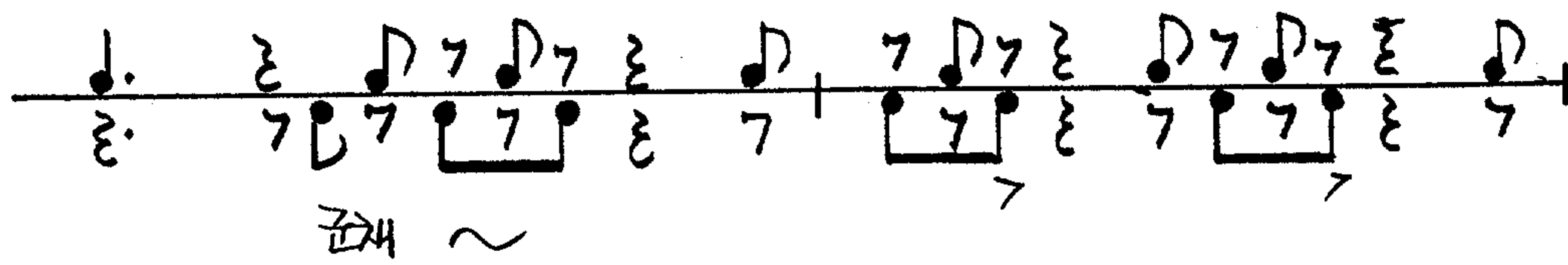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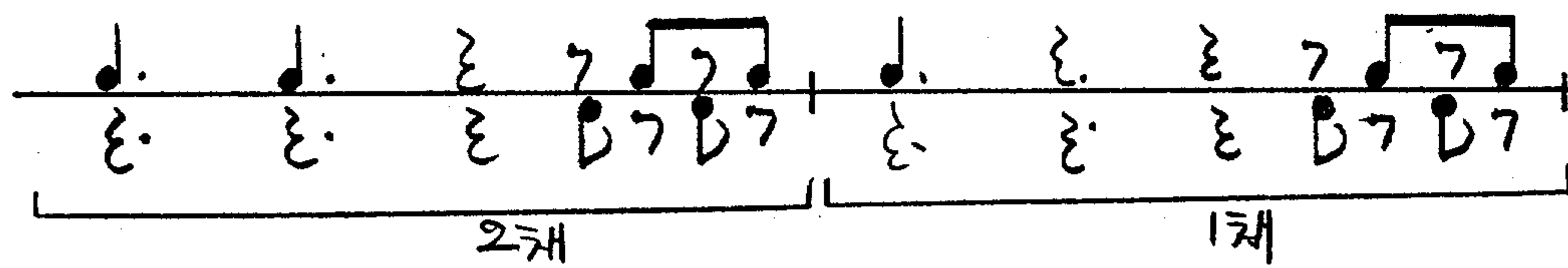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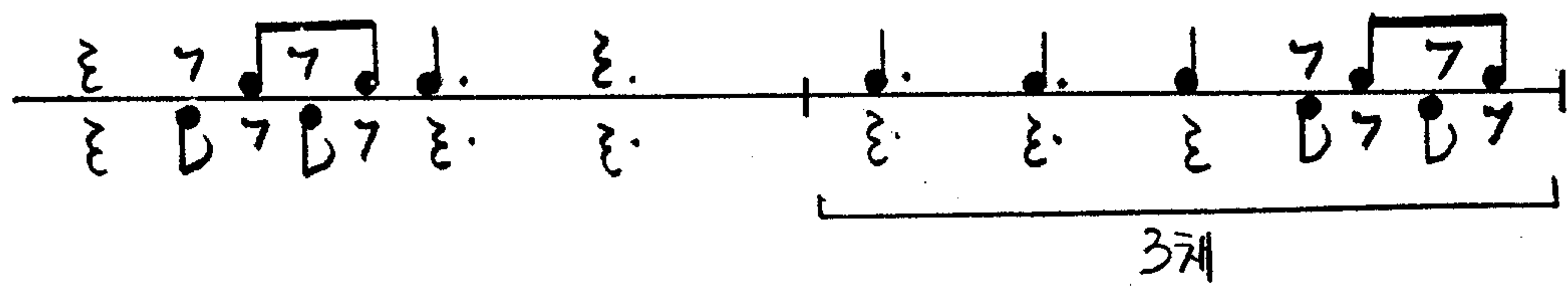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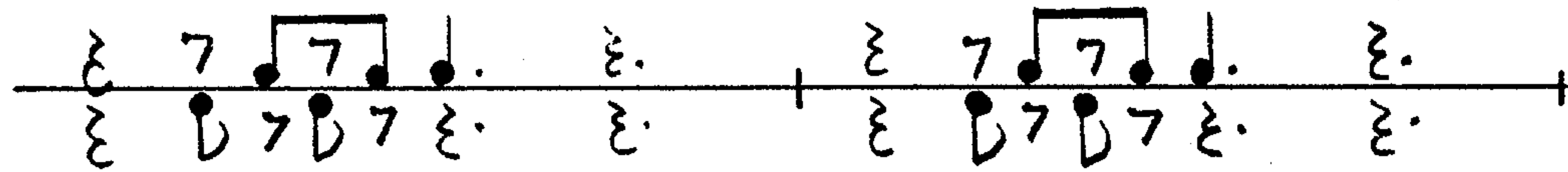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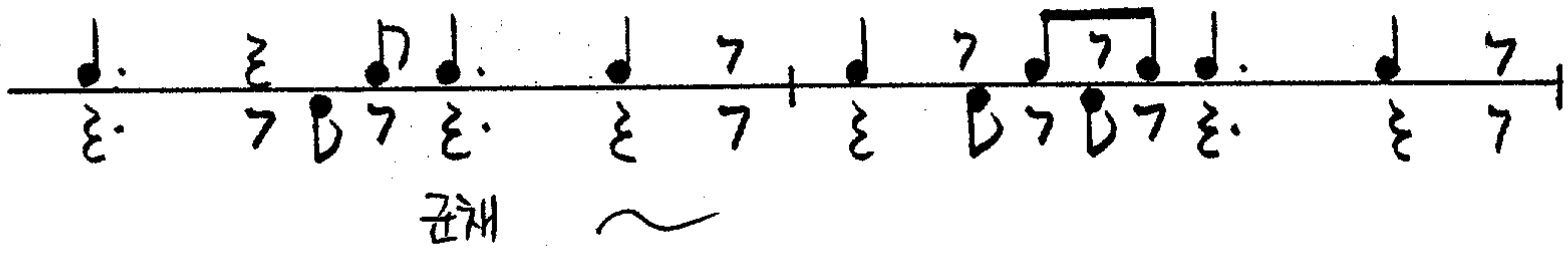
맞아주는 부분

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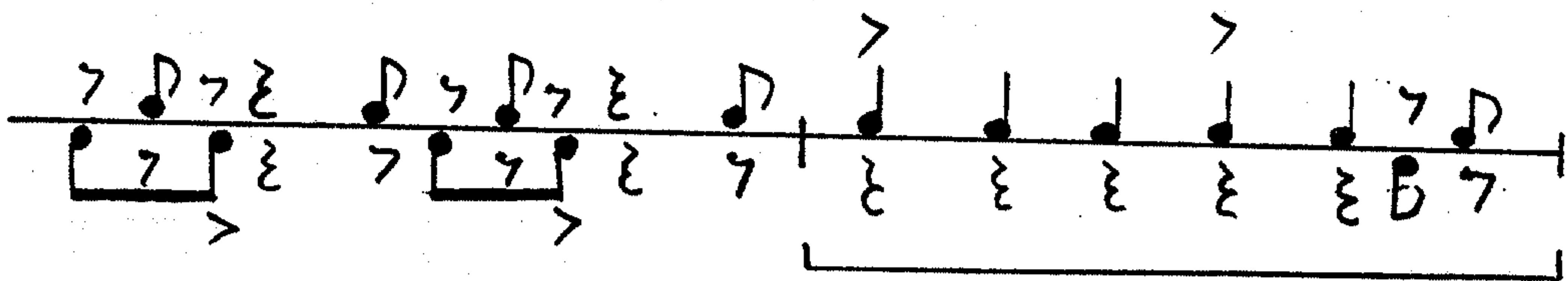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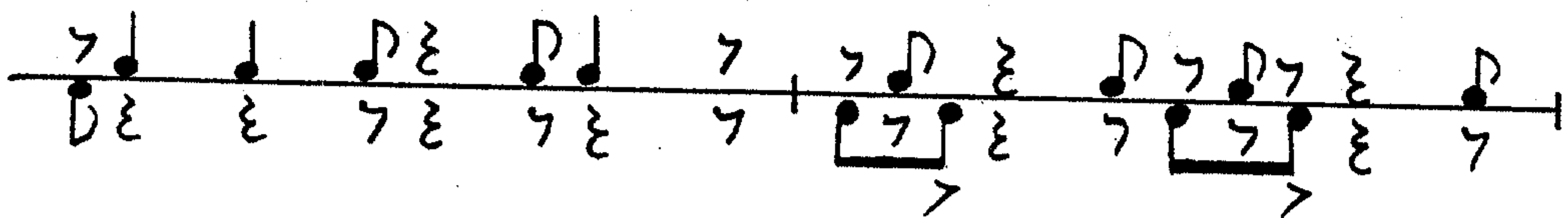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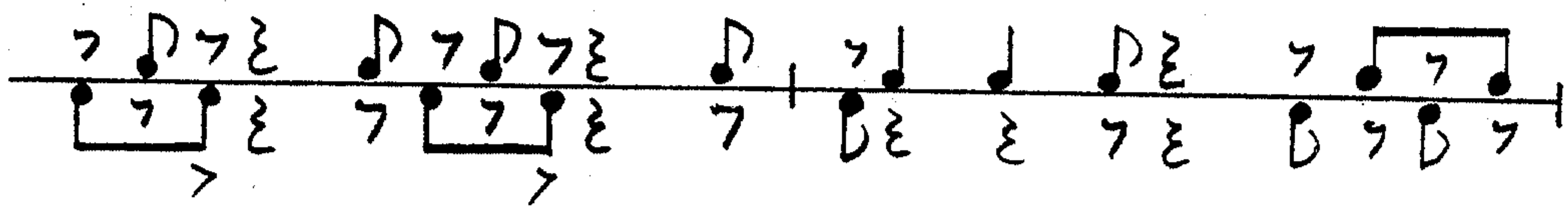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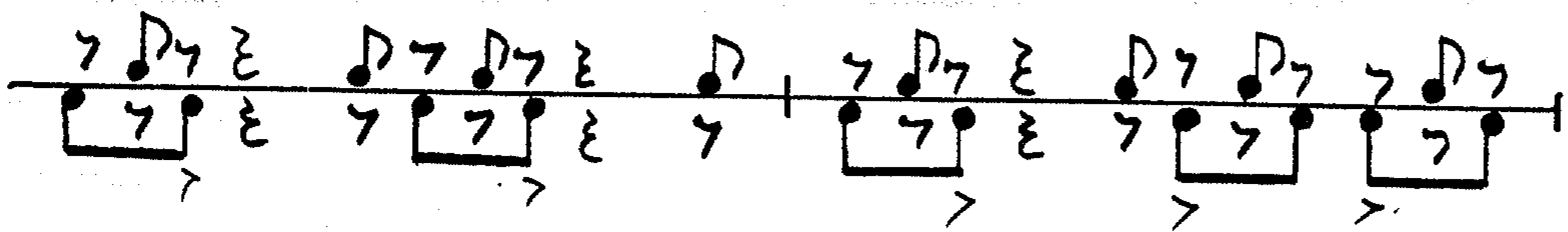


2차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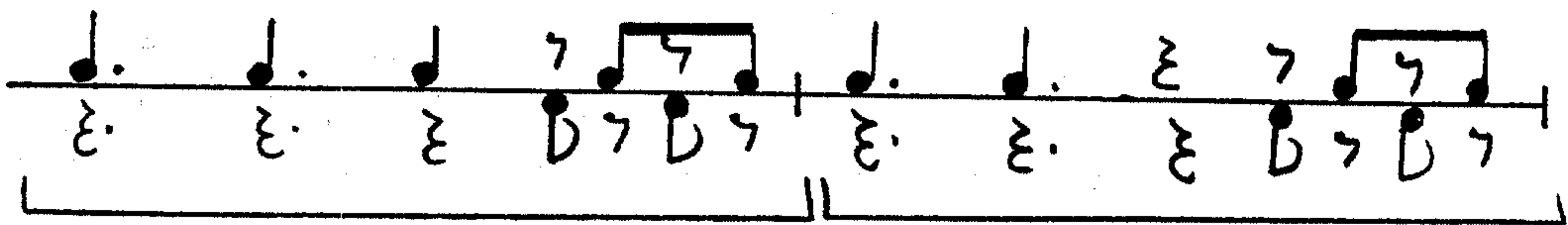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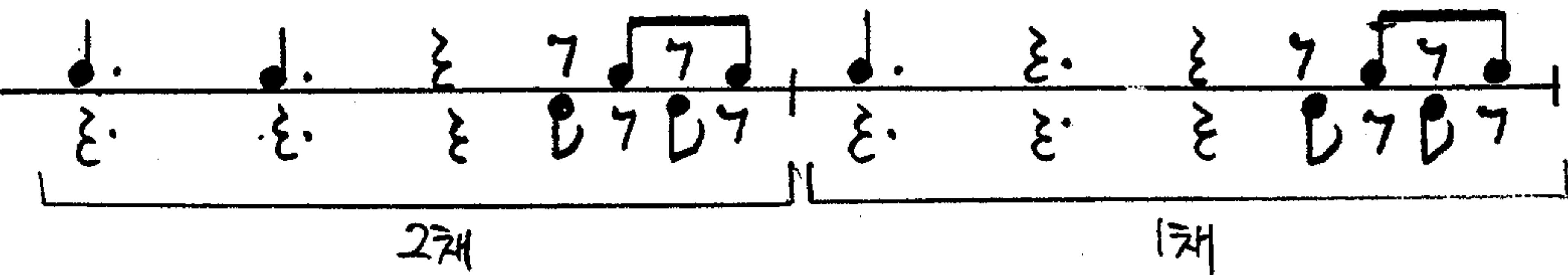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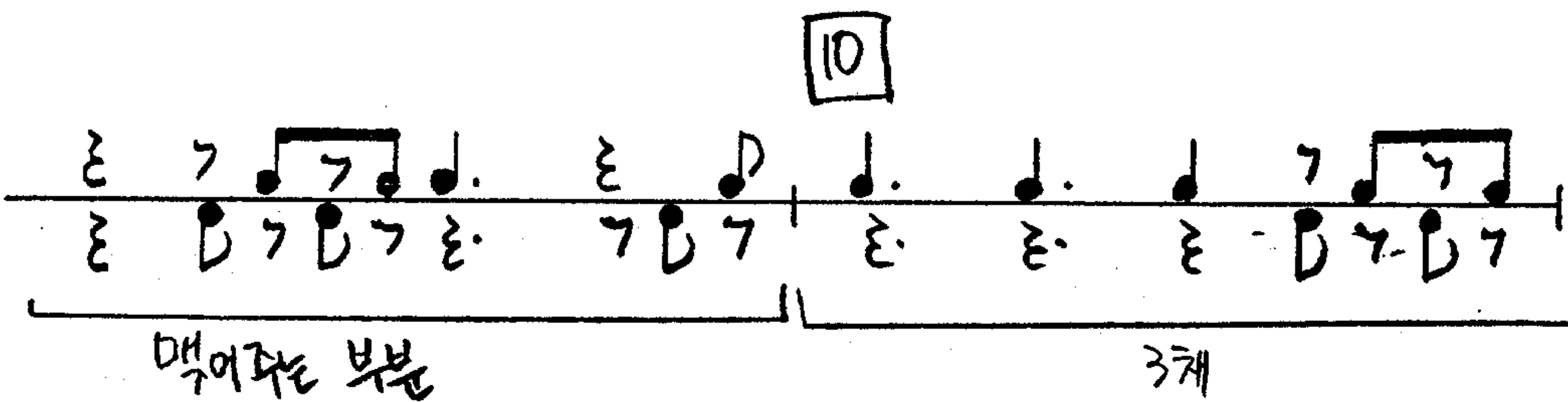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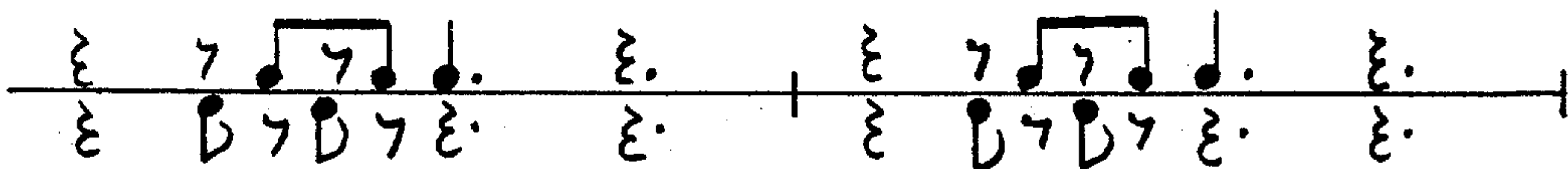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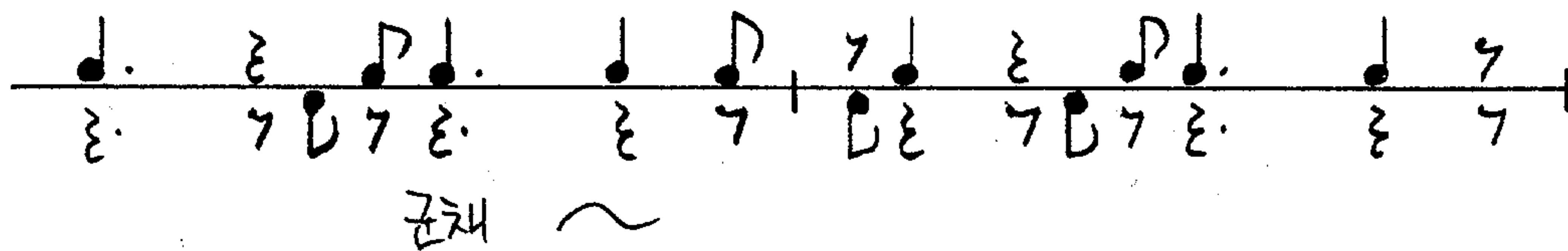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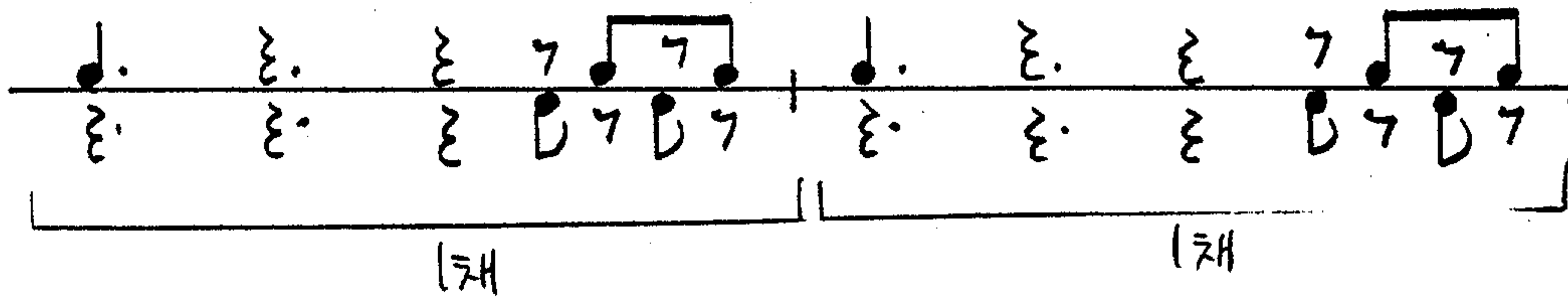
맺어주는 부분

9



3차

2차



6/8 의 형태

맞아주는 부분

(11)

3개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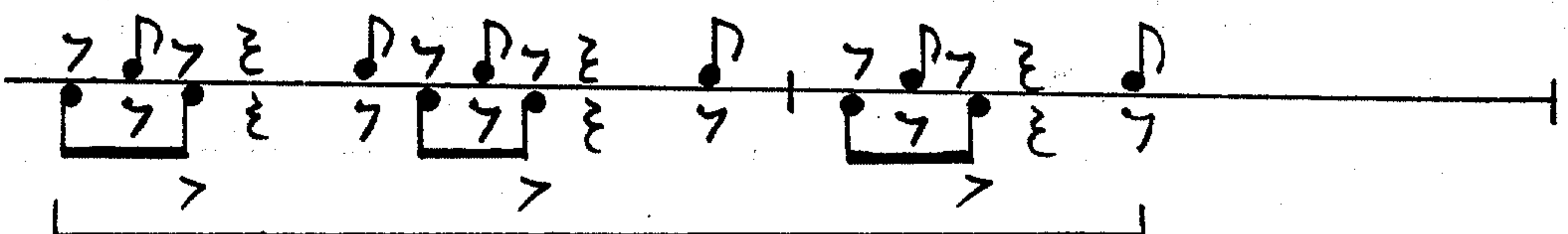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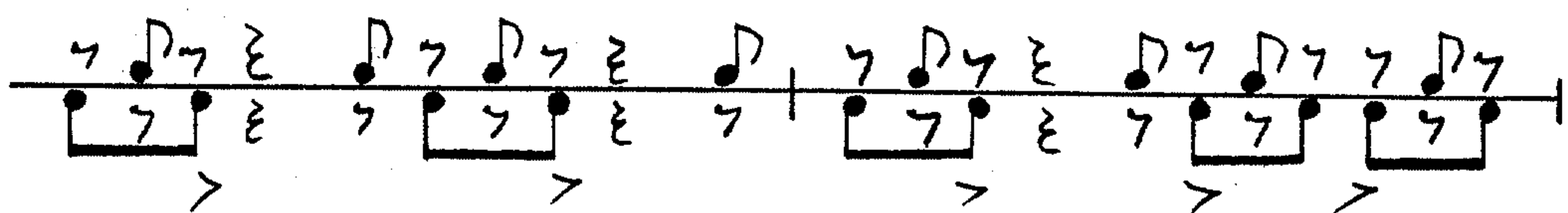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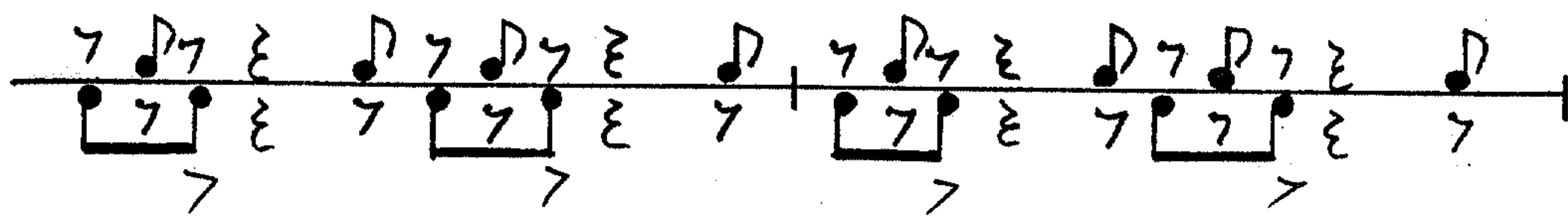
1개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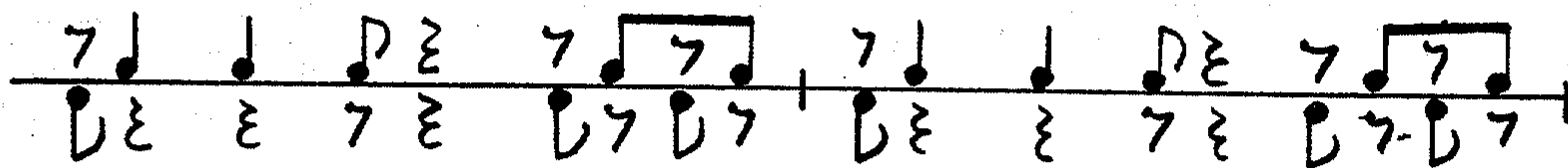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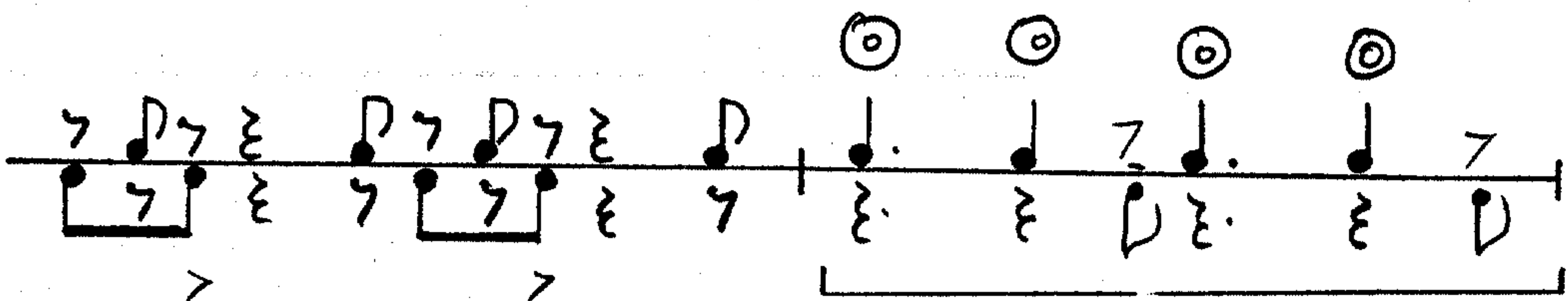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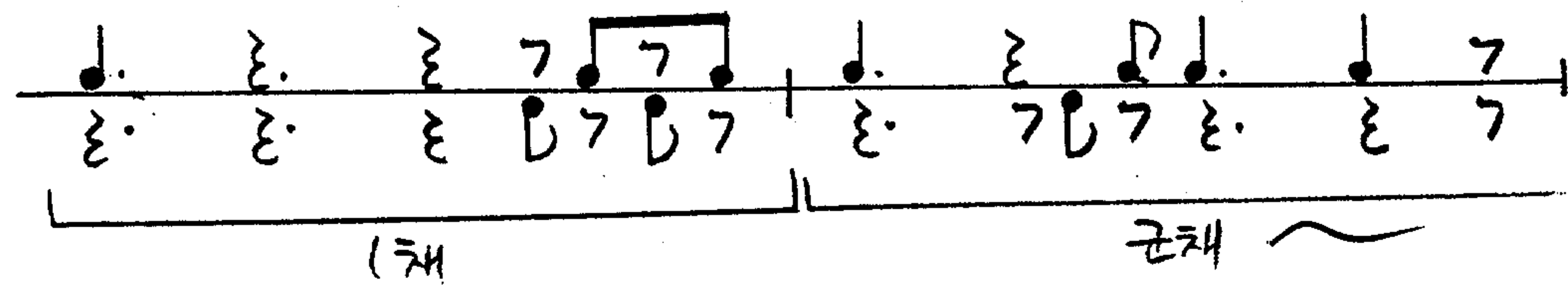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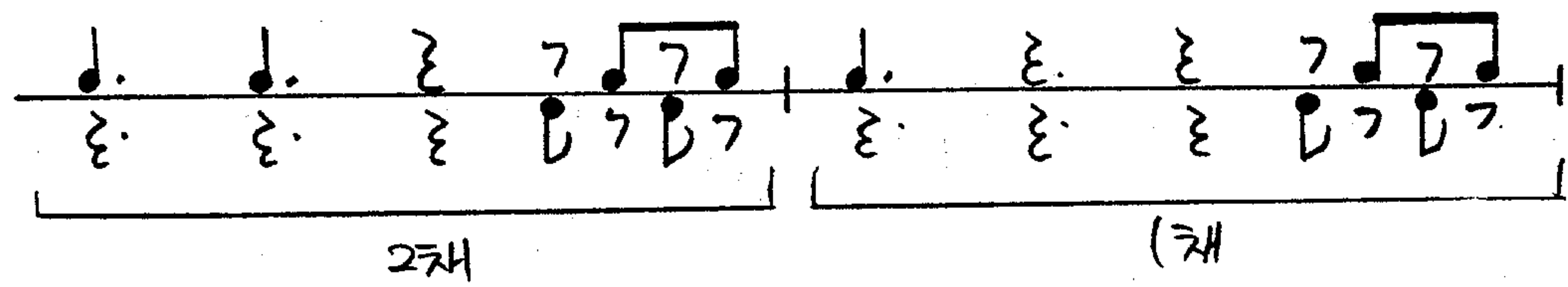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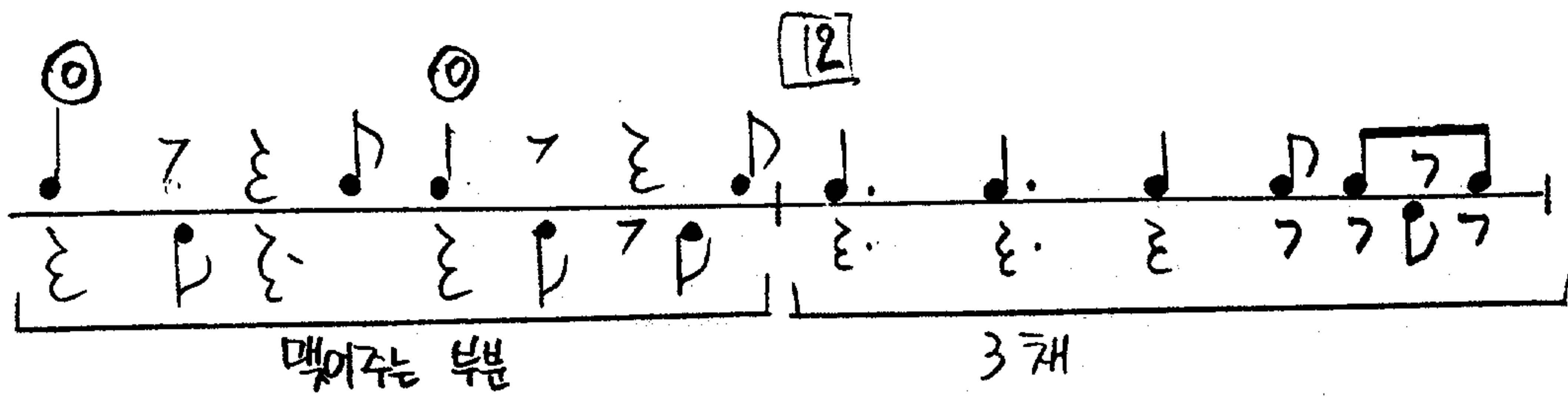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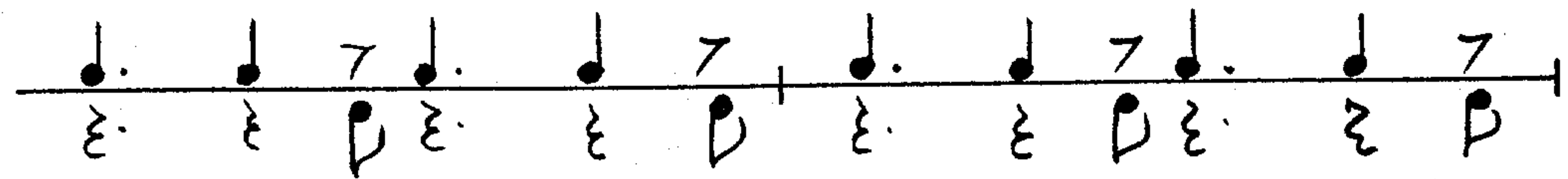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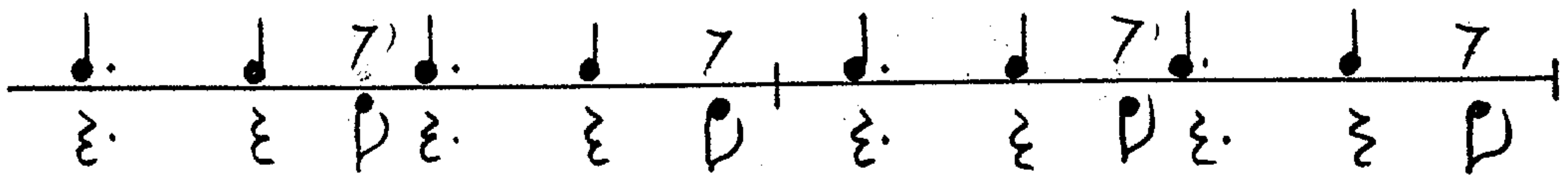
6/8 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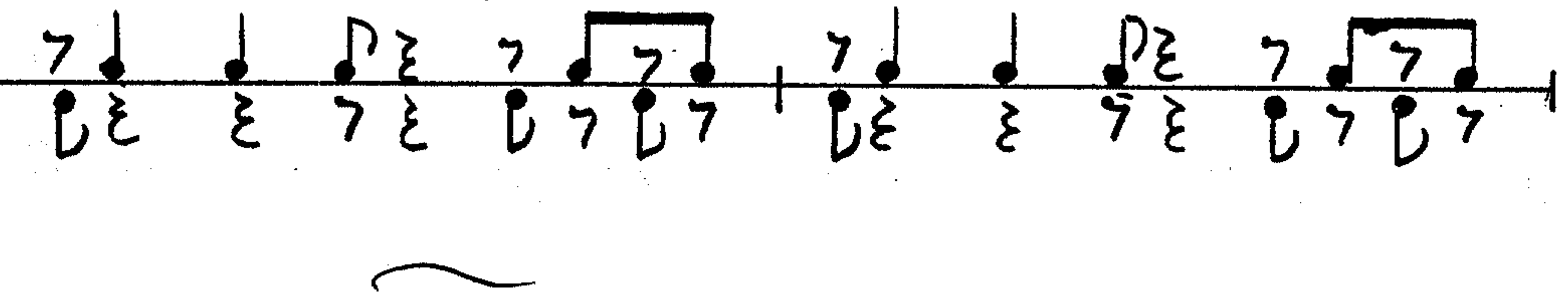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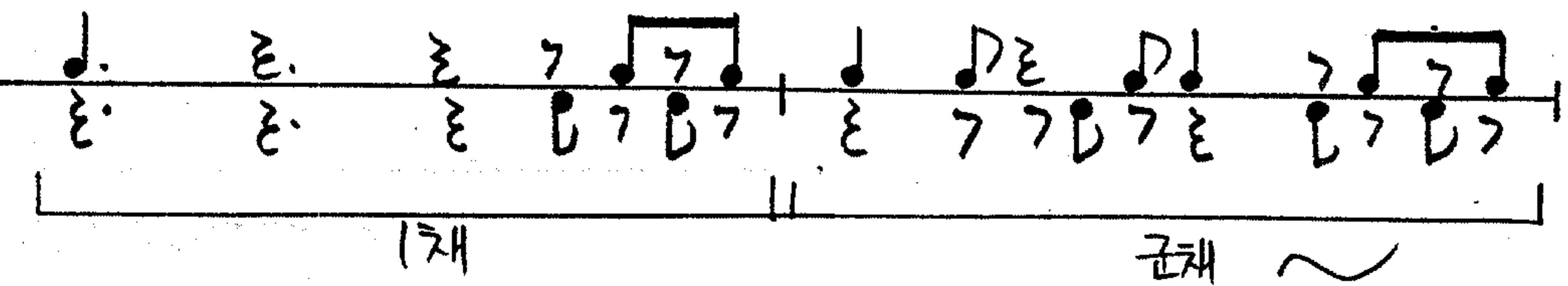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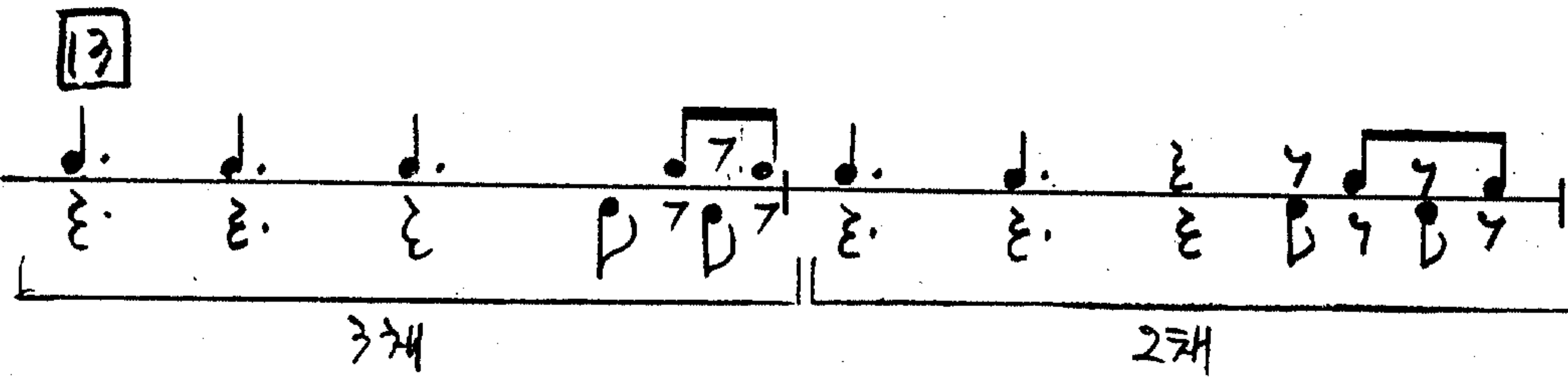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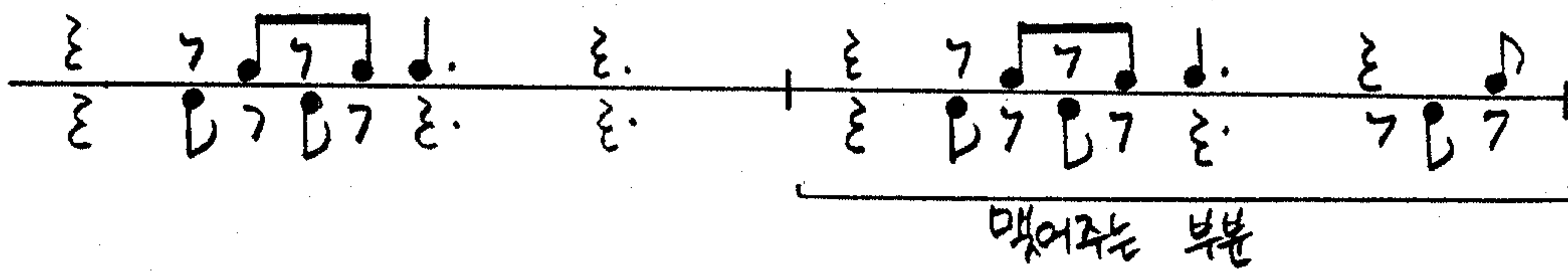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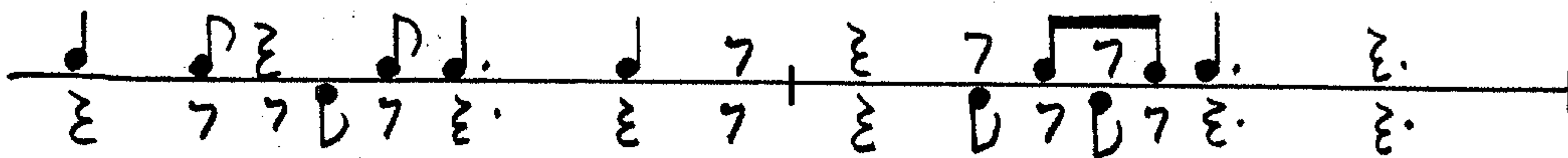
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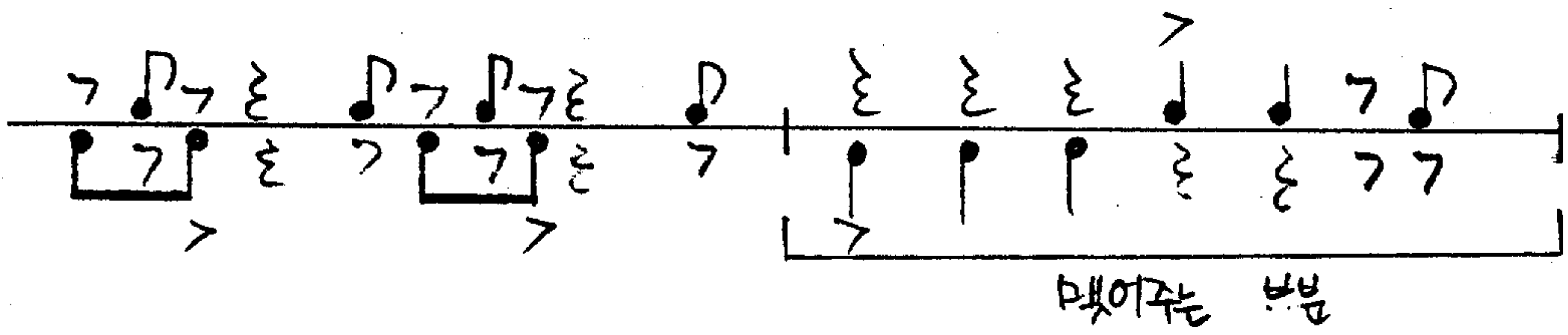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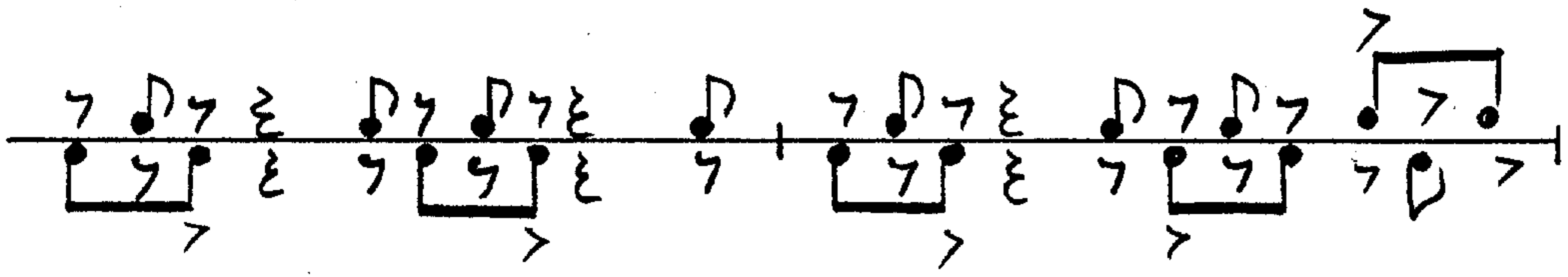


감강도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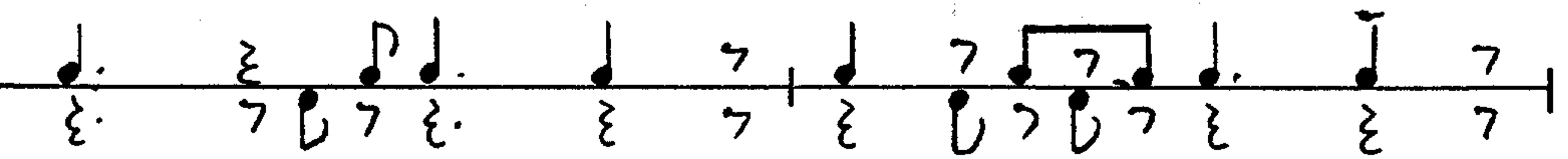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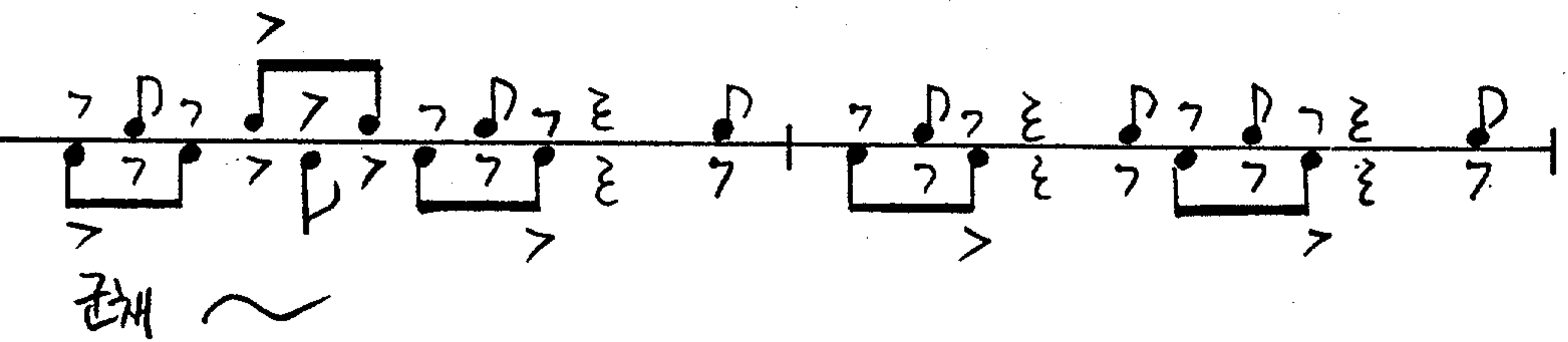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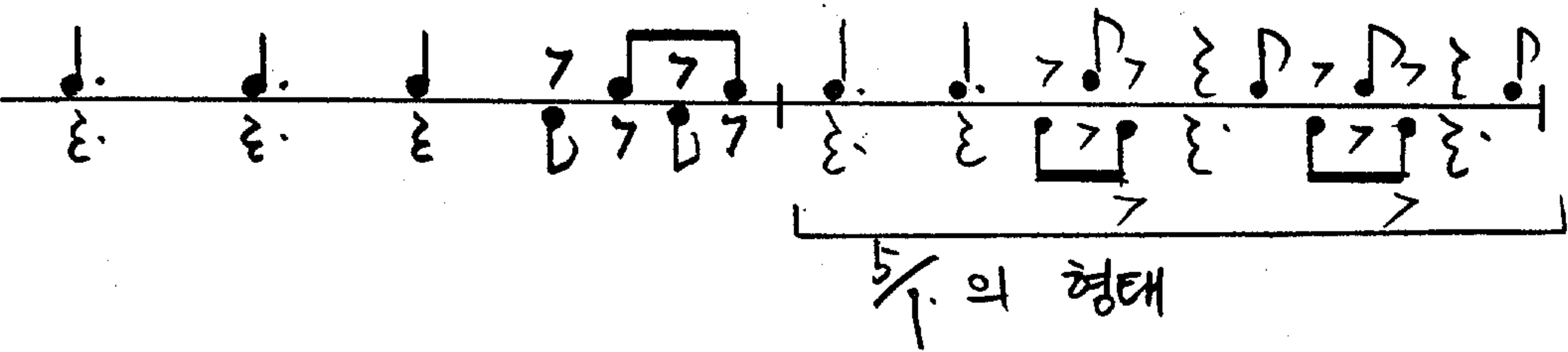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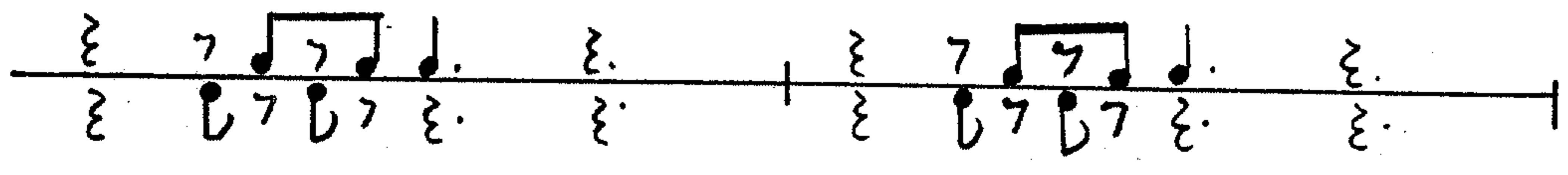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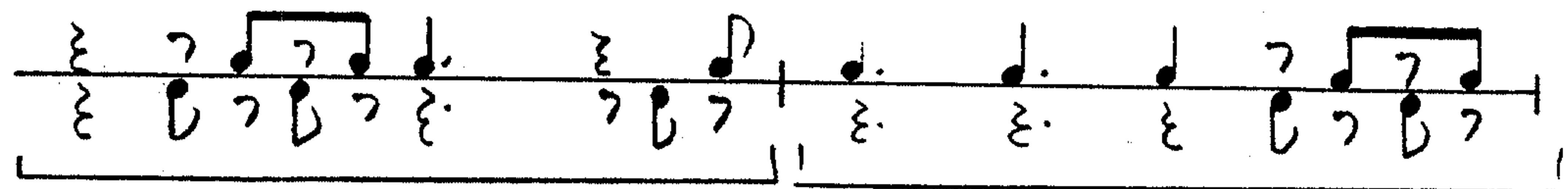


19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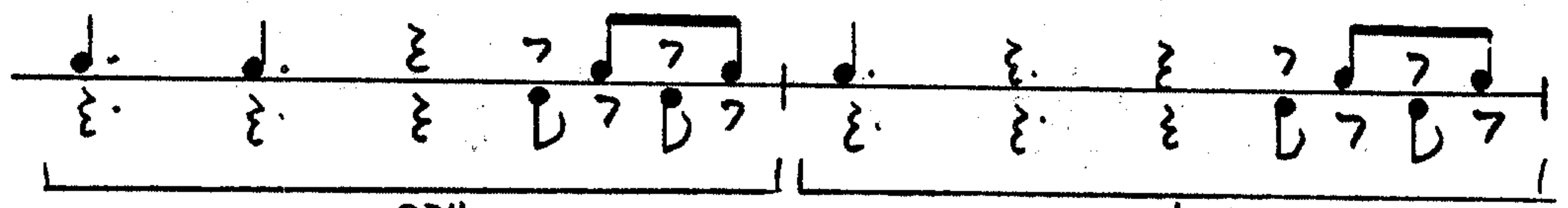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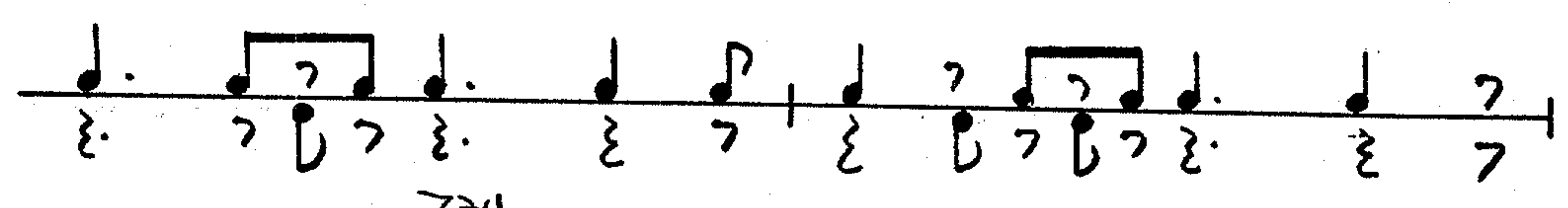
매어주는 부분

3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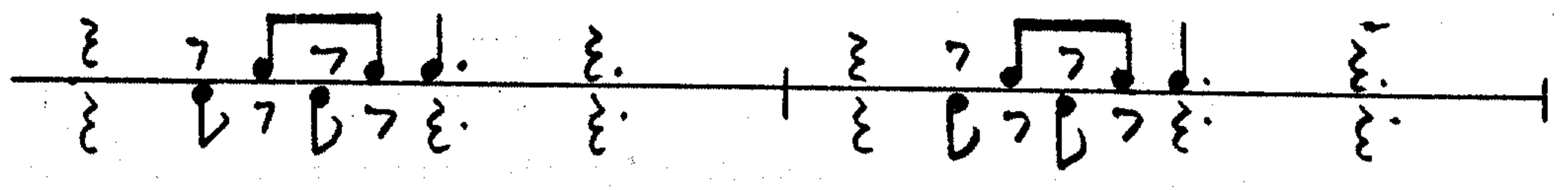


2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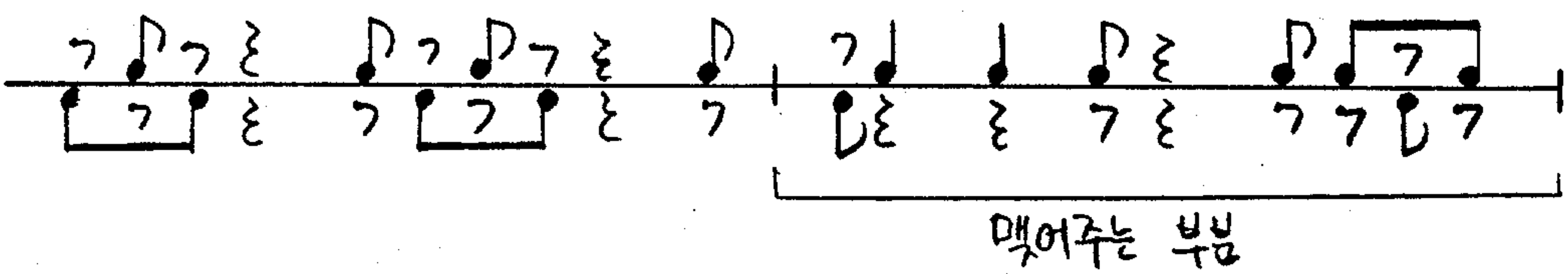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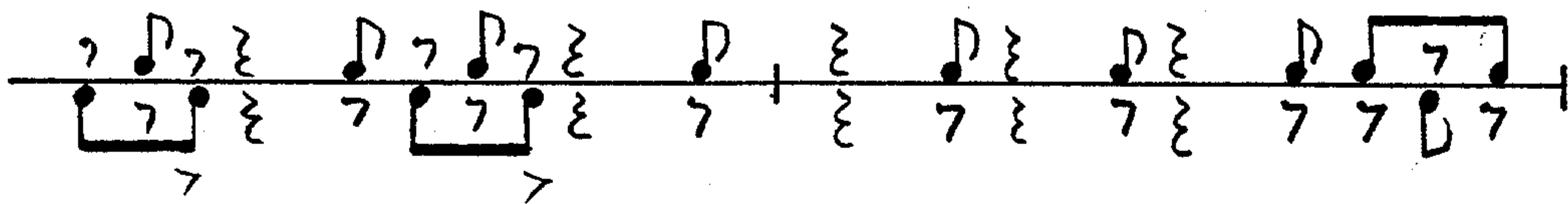
1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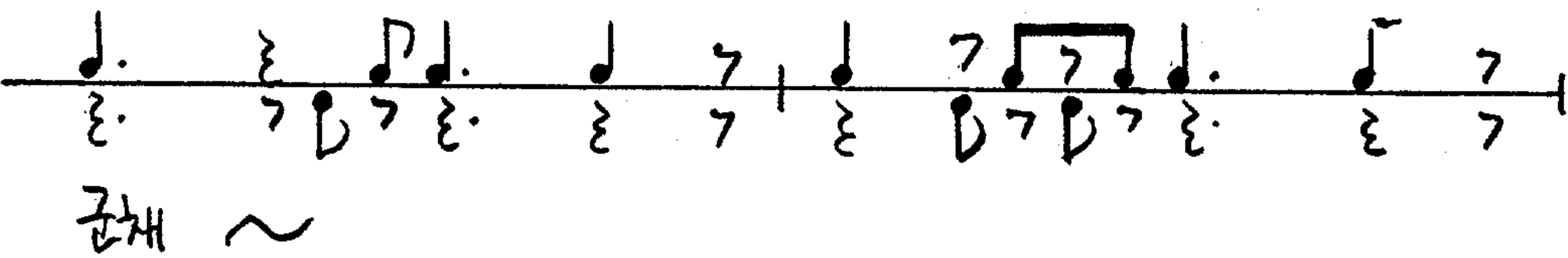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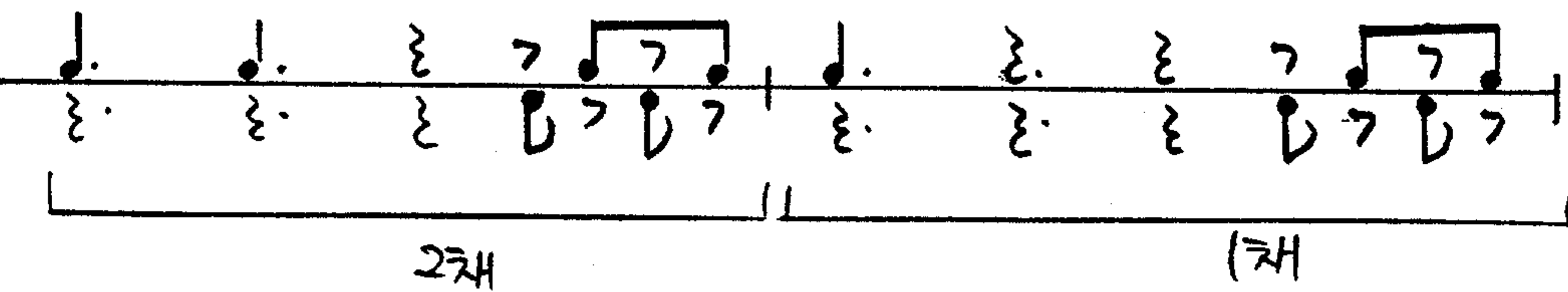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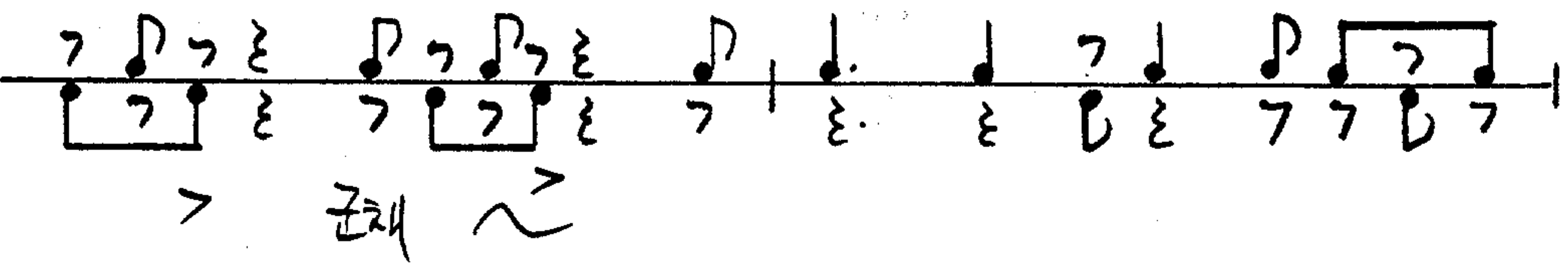
7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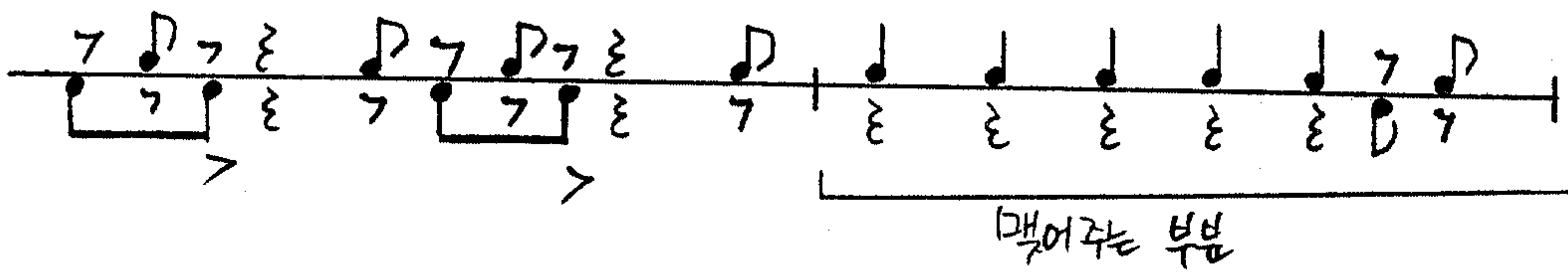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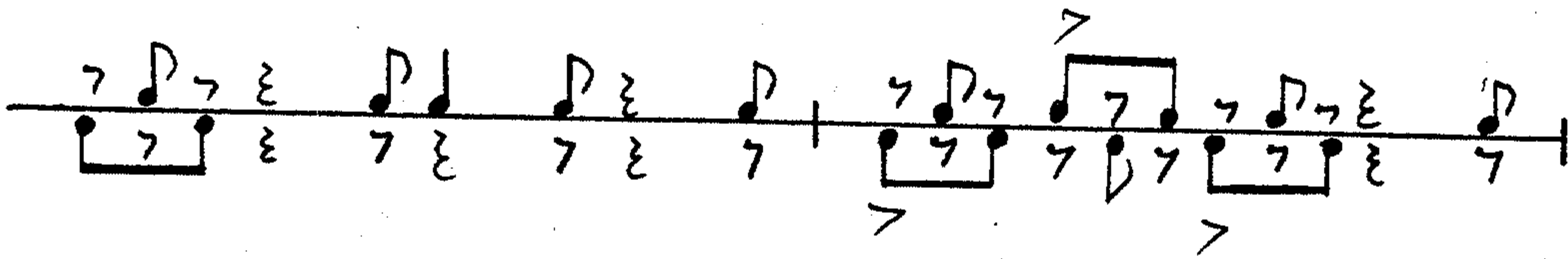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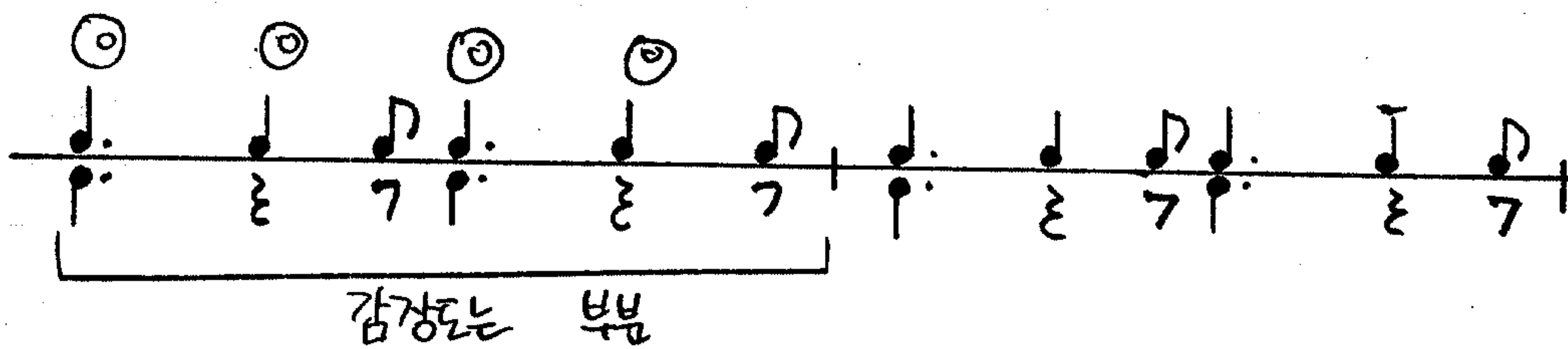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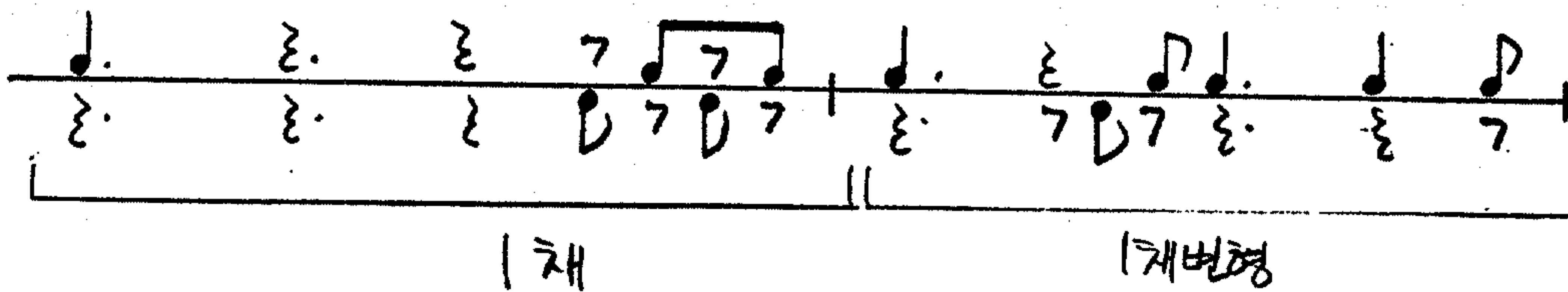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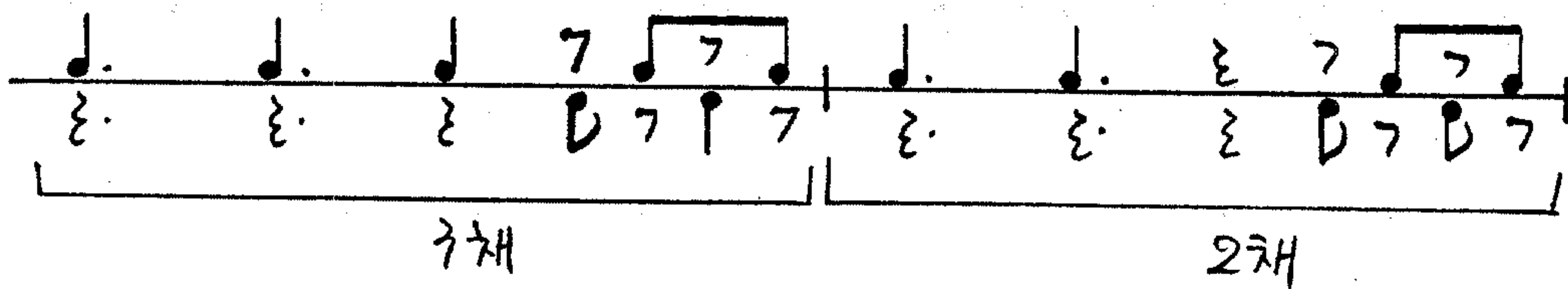
四-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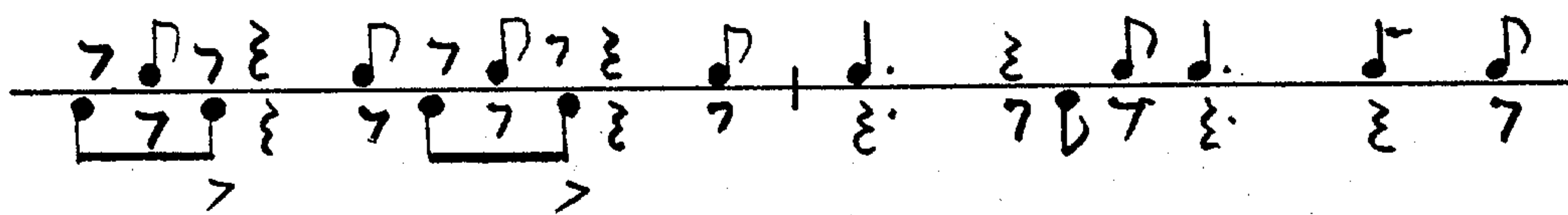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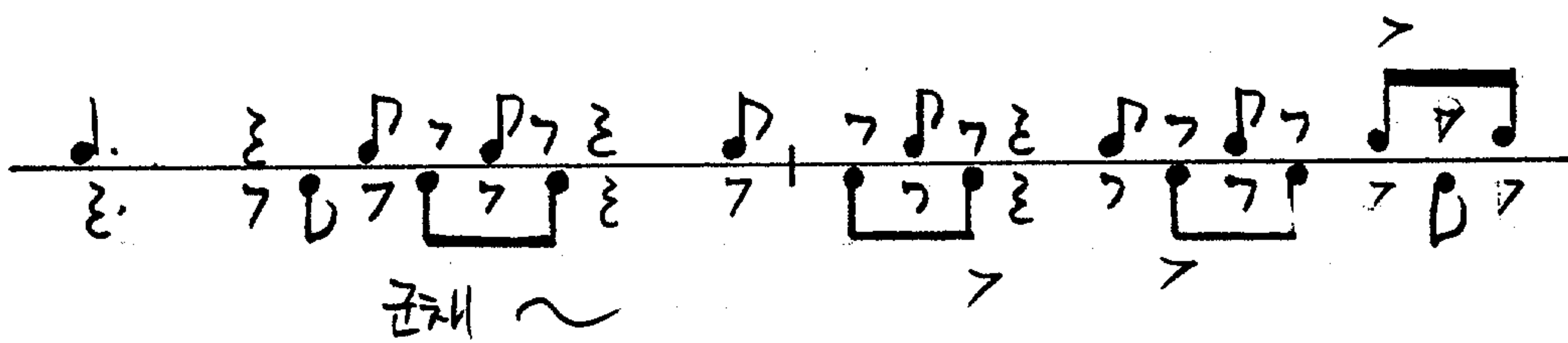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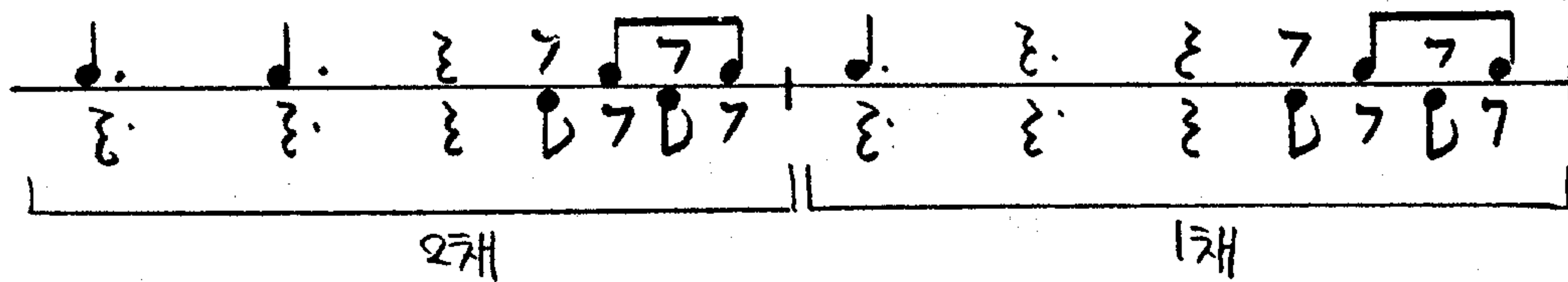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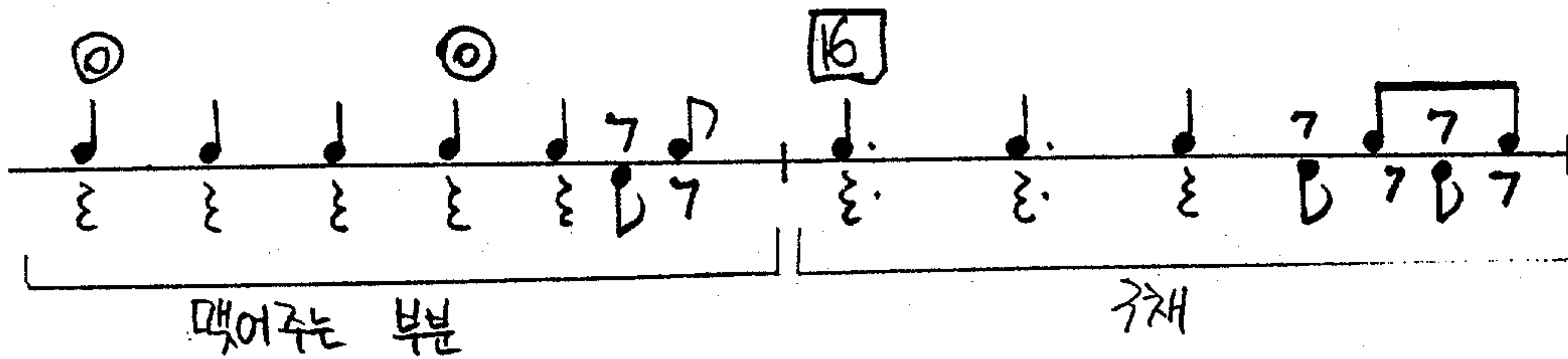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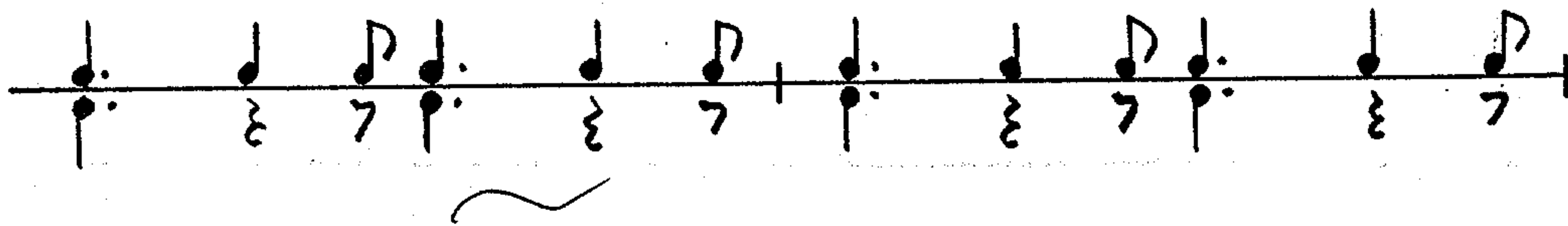


♩. =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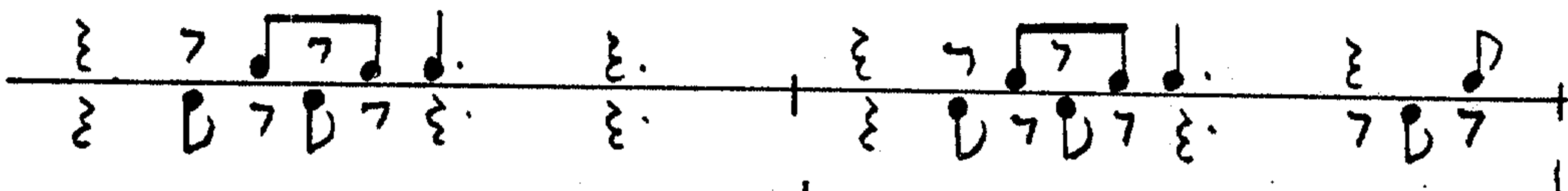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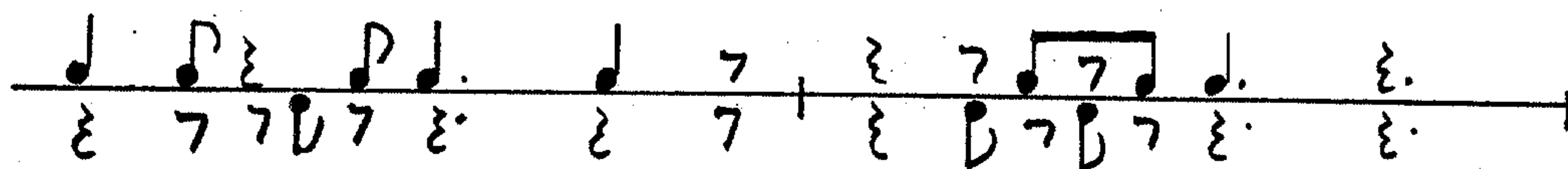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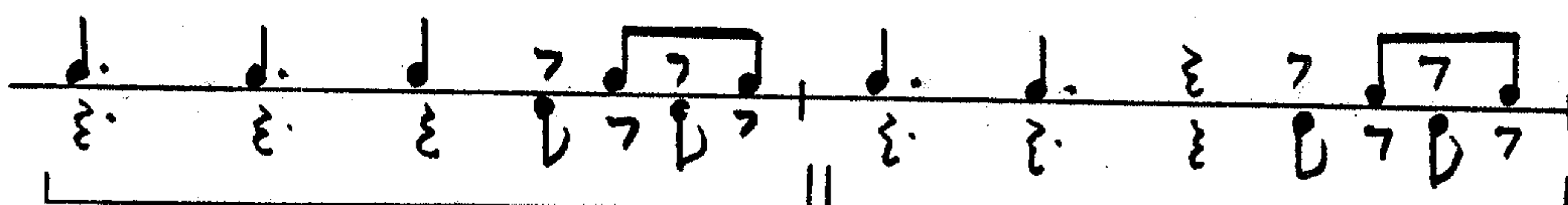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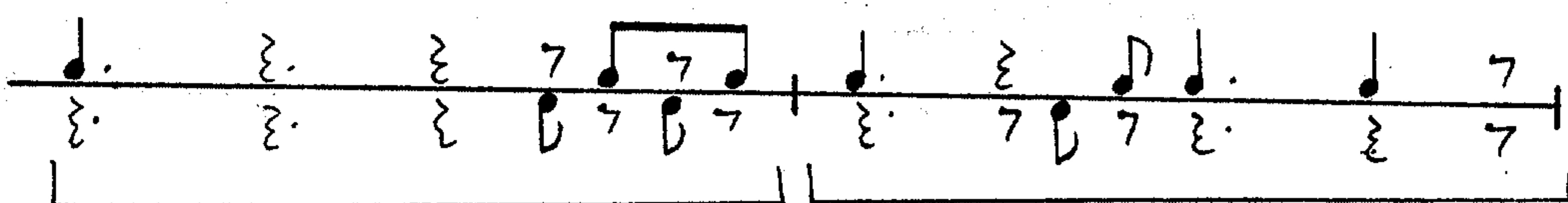
맺어주는 부분.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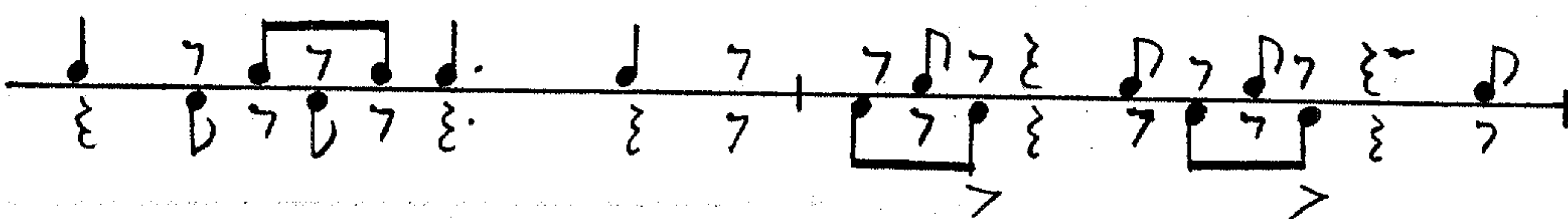
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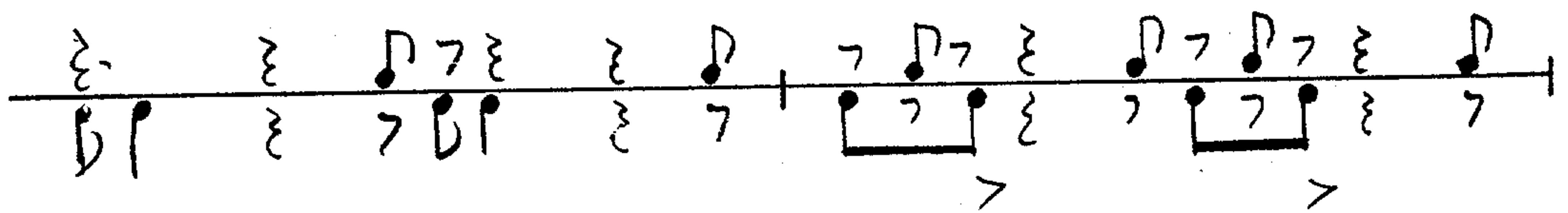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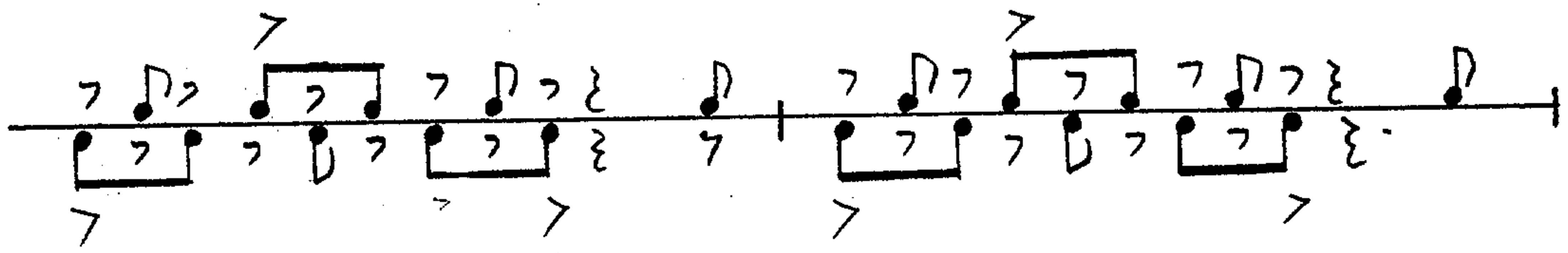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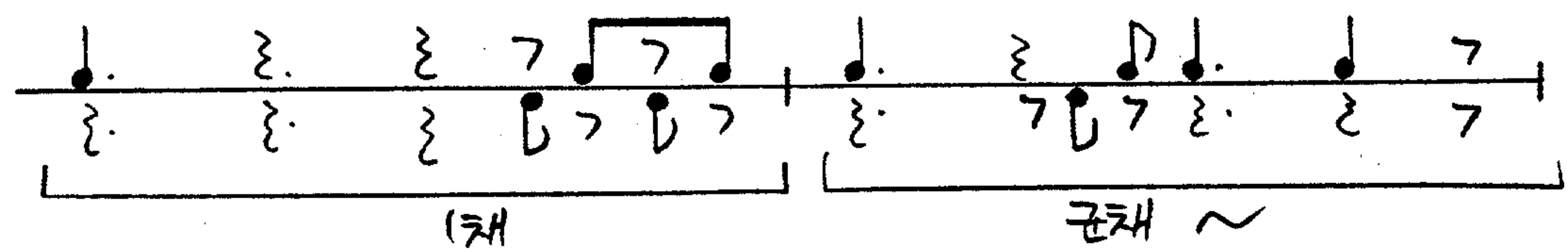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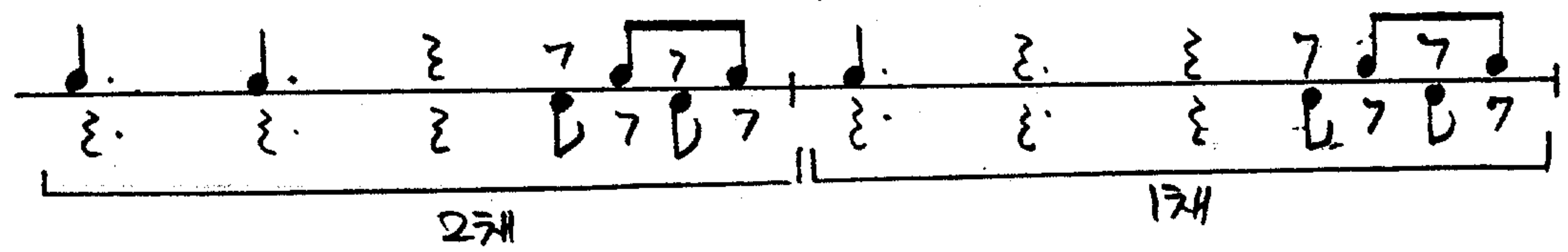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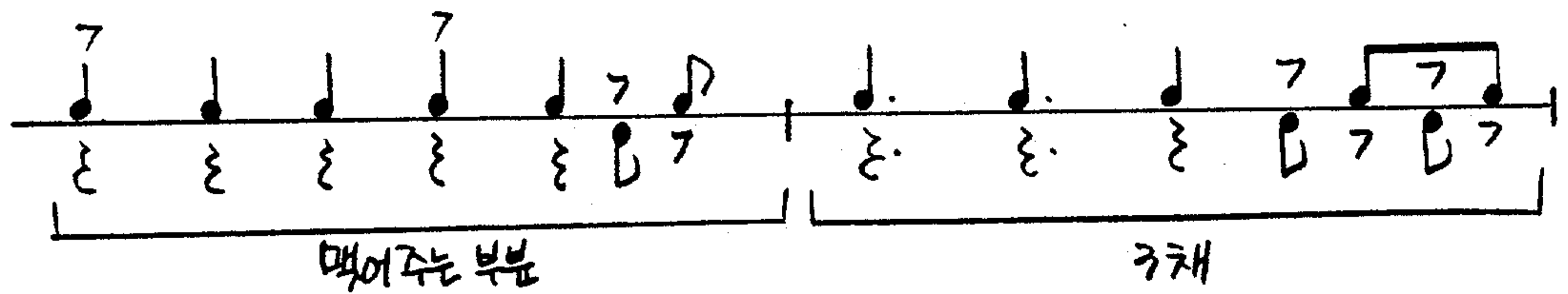
1차

준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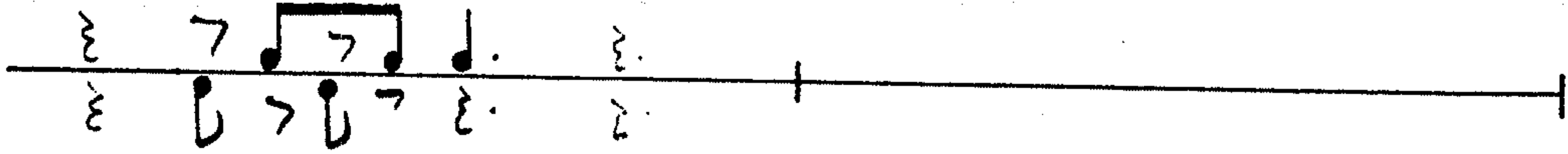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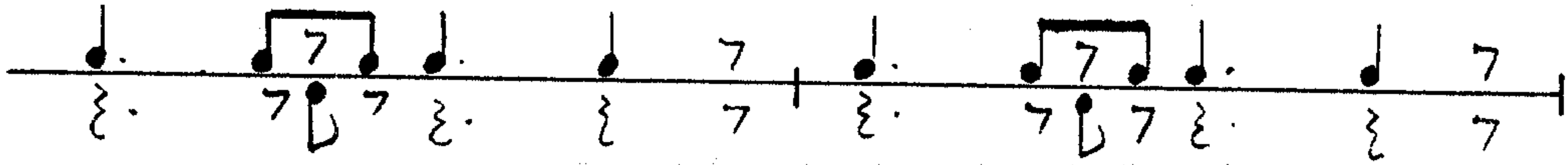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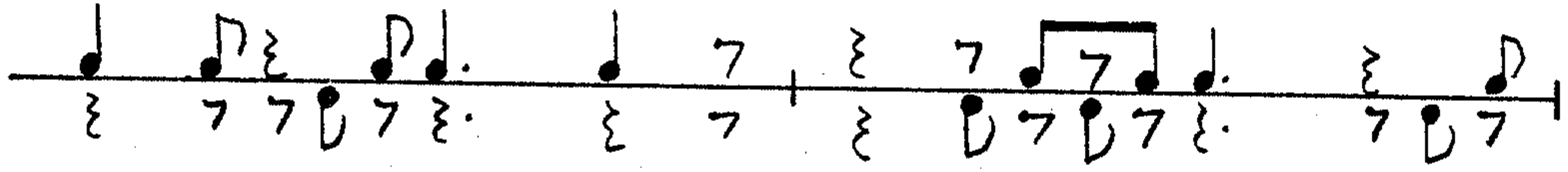




18



♩. = 160





! = 180 ~ 220 (권재가각)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a sequence of 10 staves, each with a 4/4 time signatur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notes, rests, and accidentals, with vertical arrows indicating specific points of interest or transitions between staves.

Staff 1: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Staff 2: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Staff 3: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Staff 4: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Staff 5: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Staff 6: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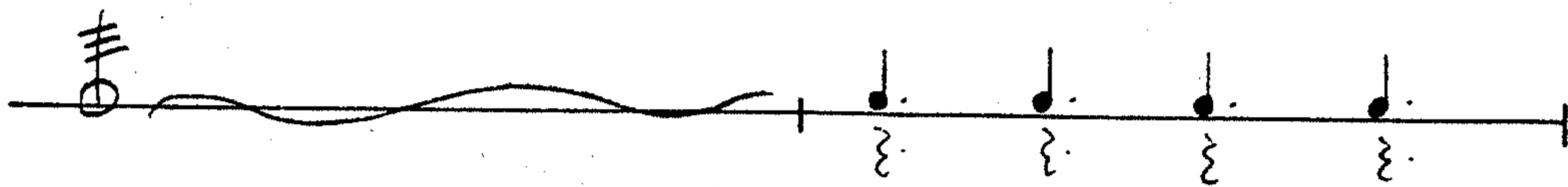
Staff 7: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Staff 8: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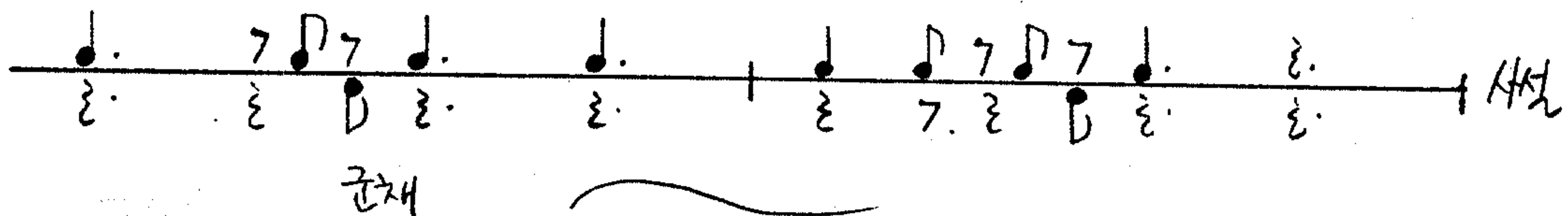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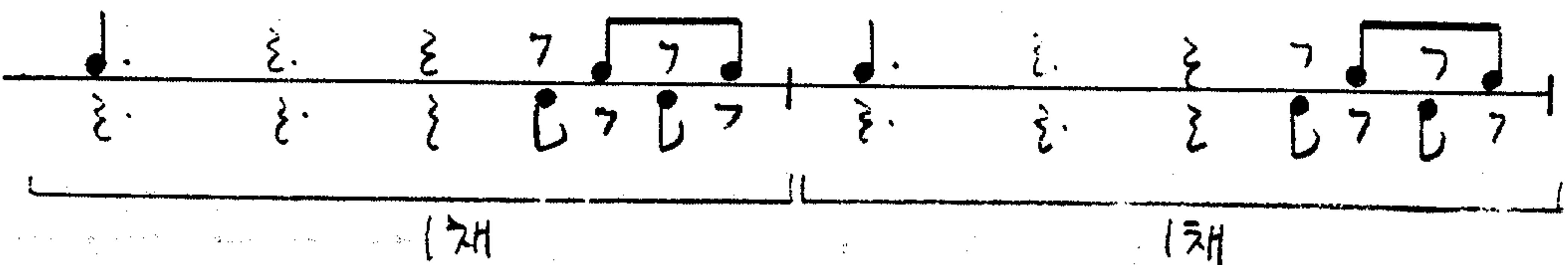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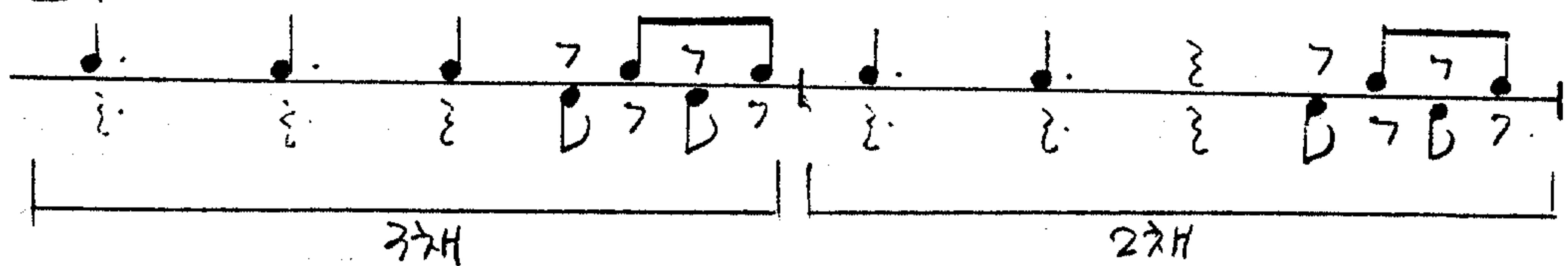
Staff 9: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Staff 10: 4/4 time. Notes: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Rests: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Vertical arrow pointing down to the 4th measure.

♩ = 116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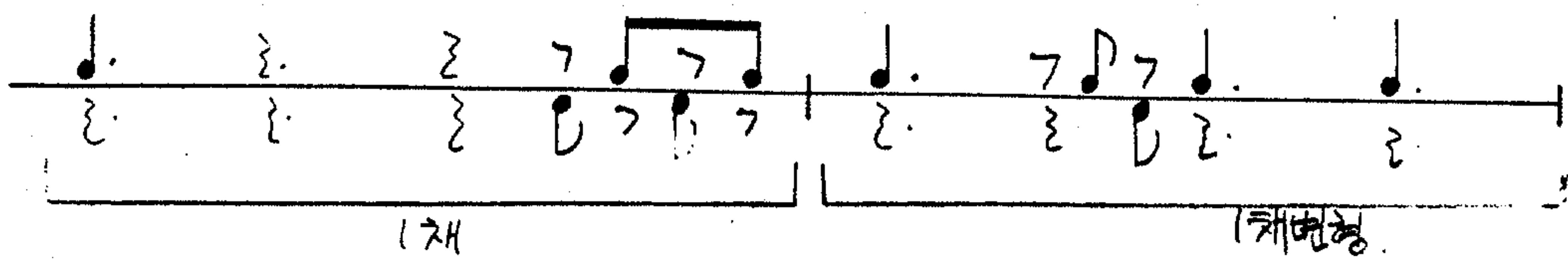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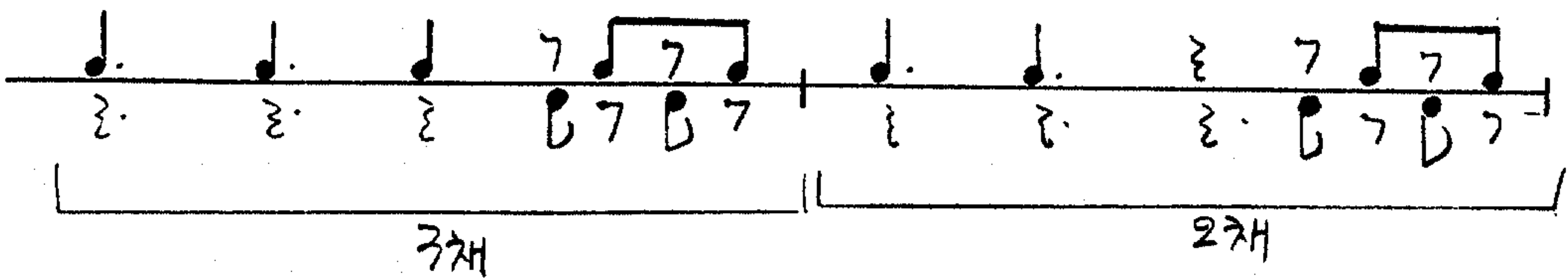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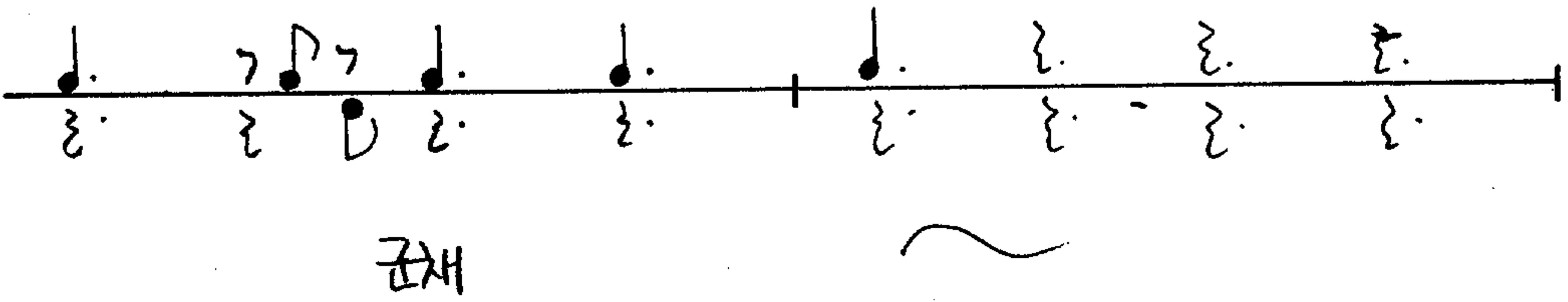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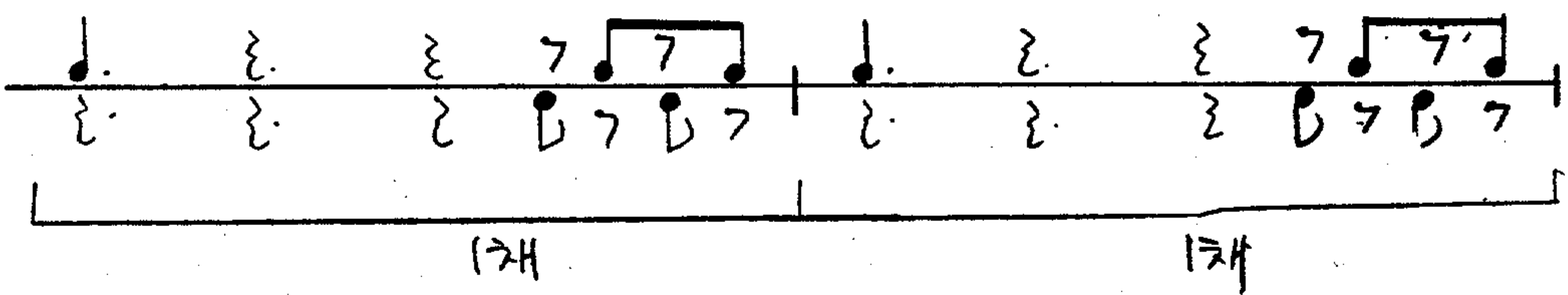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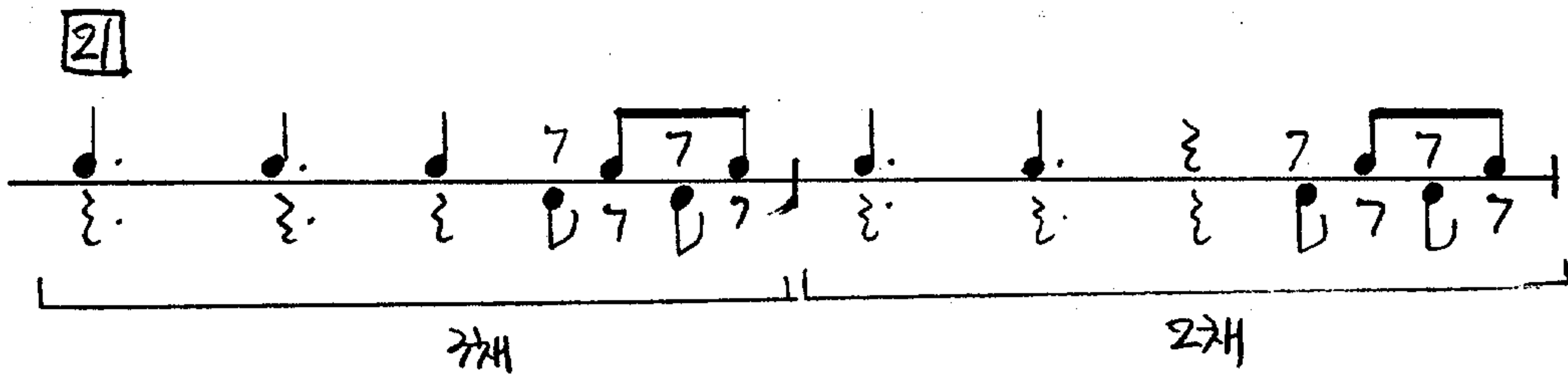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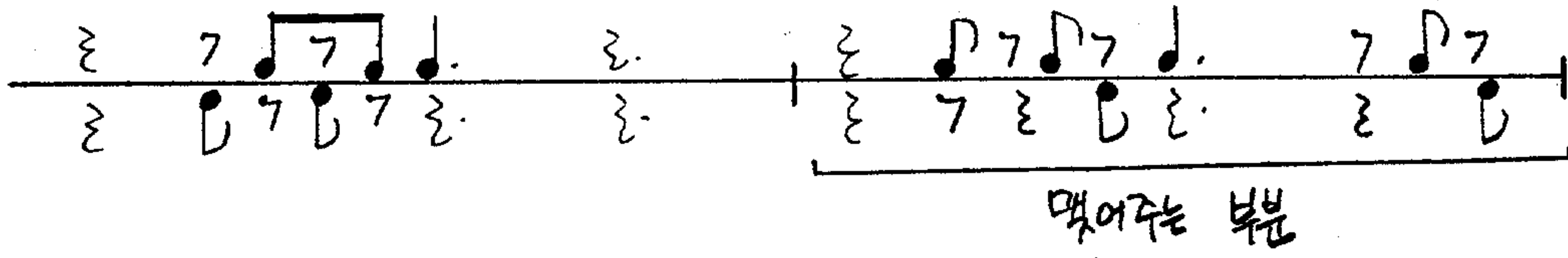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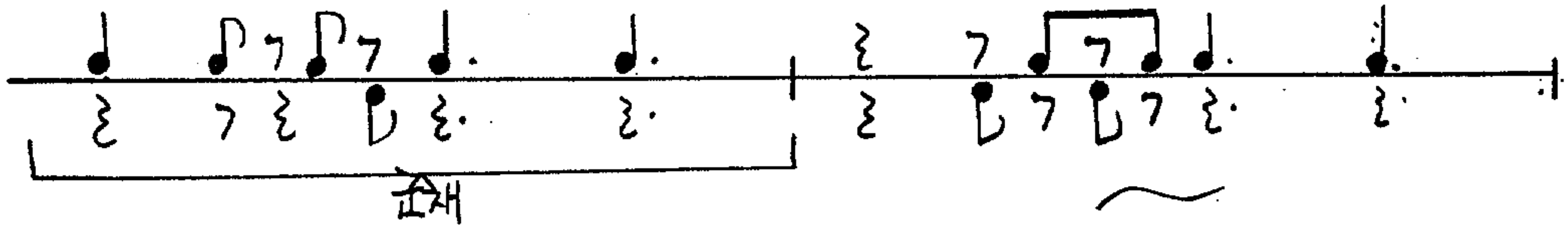
19



20

♩ = 132 -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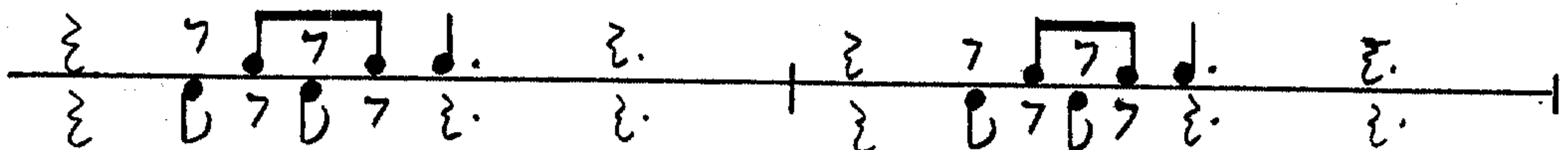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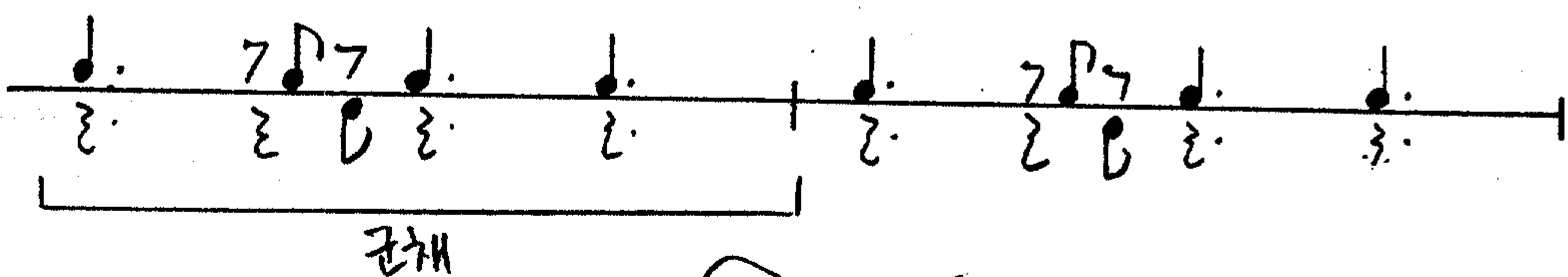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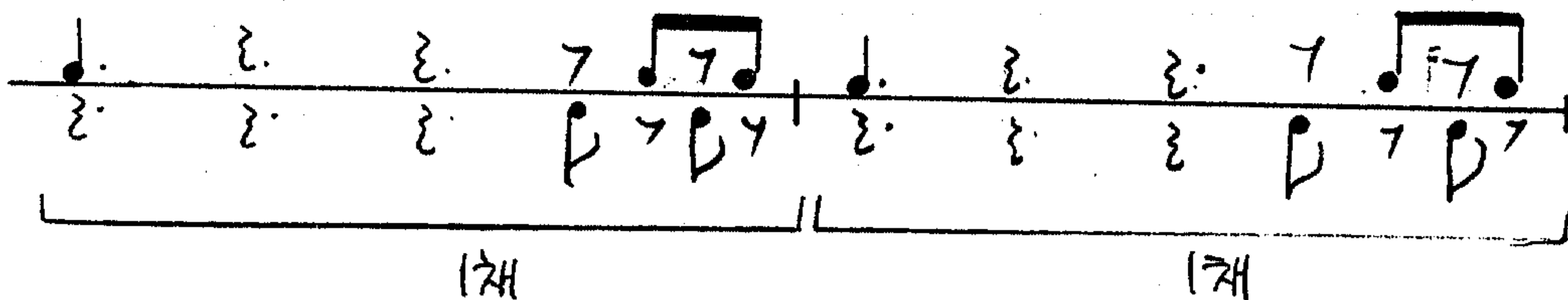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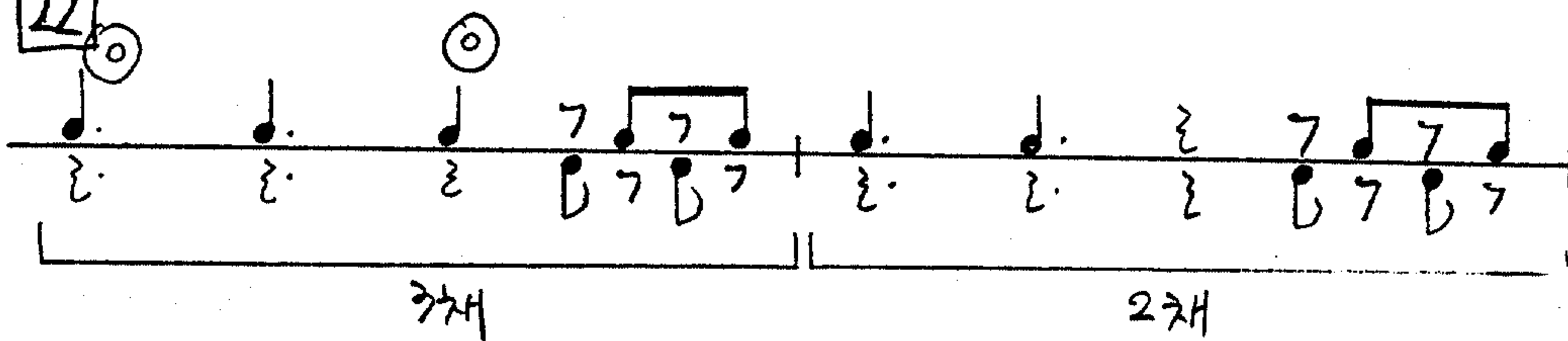




Atkh

♩. = 140 - 145

22





24 rit ...  $\frac{4}{p}$  - ♩.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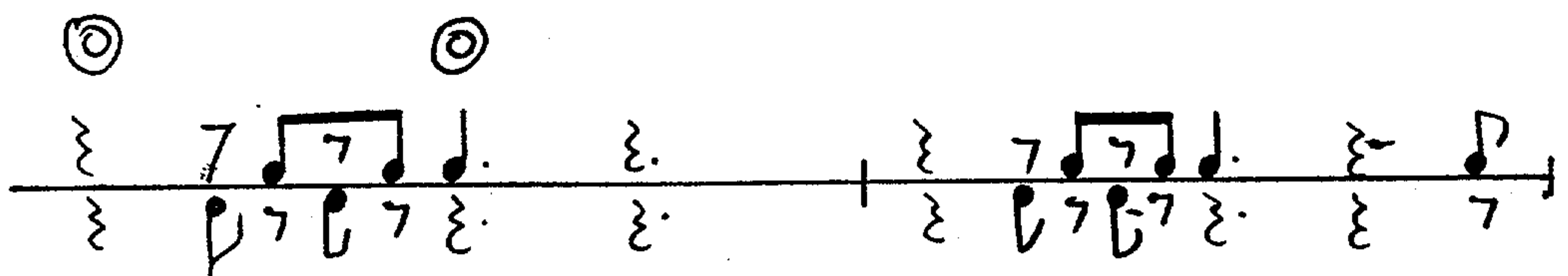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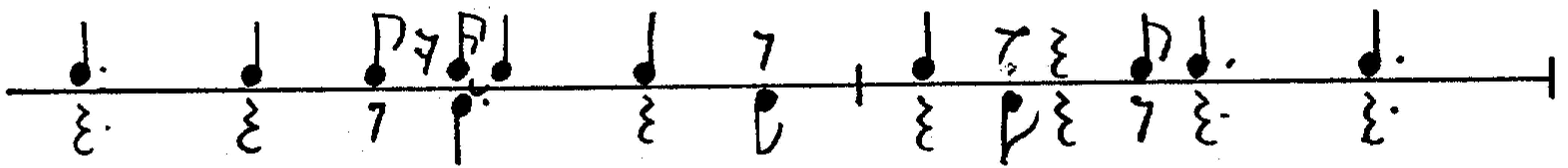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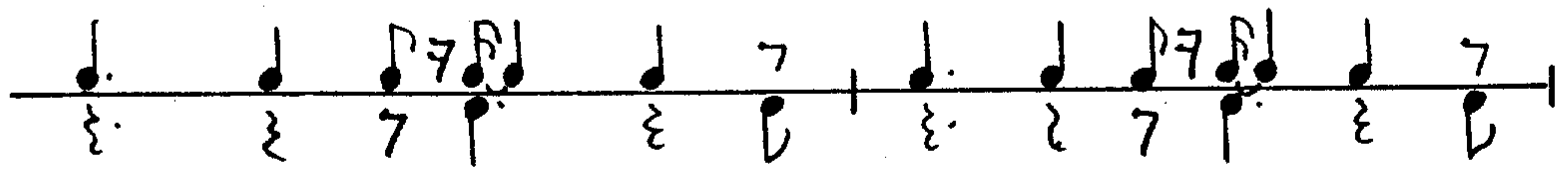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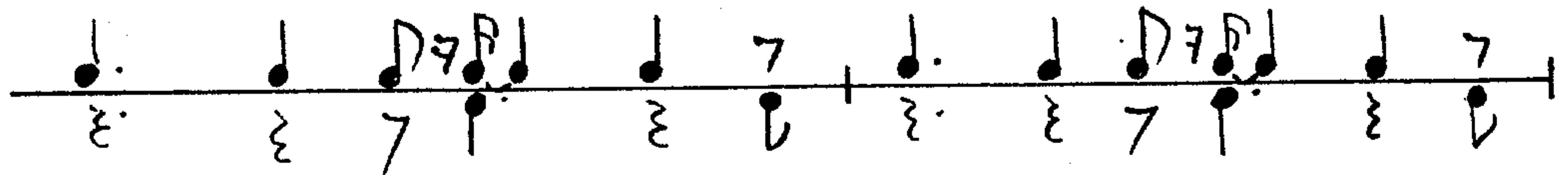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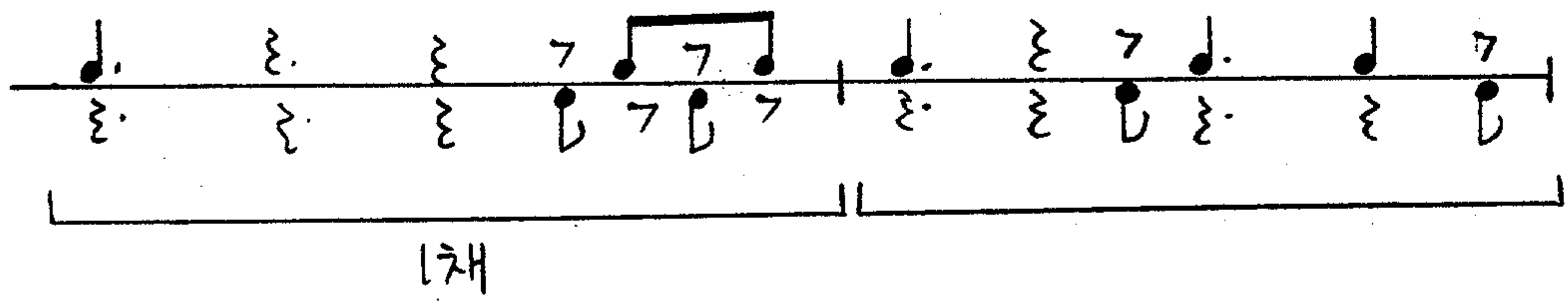
악보 4 <신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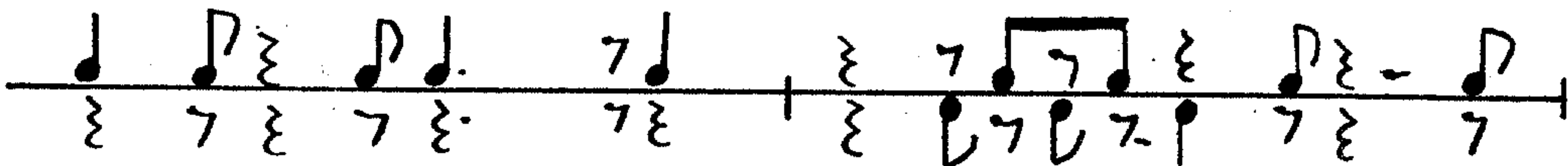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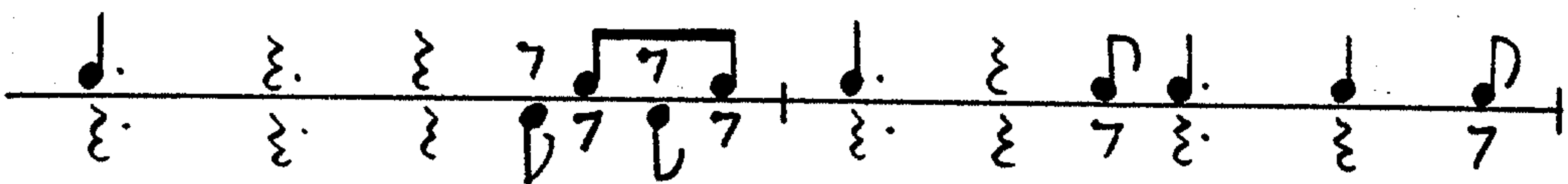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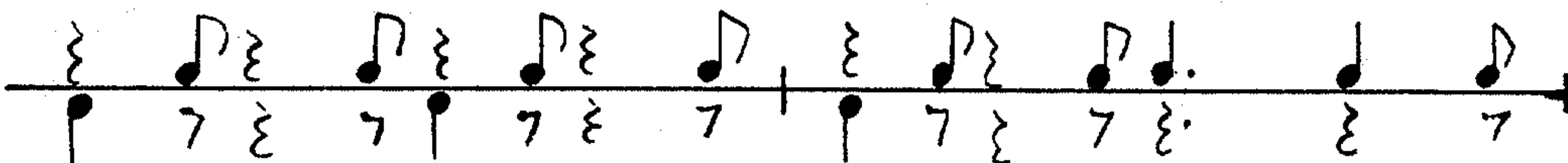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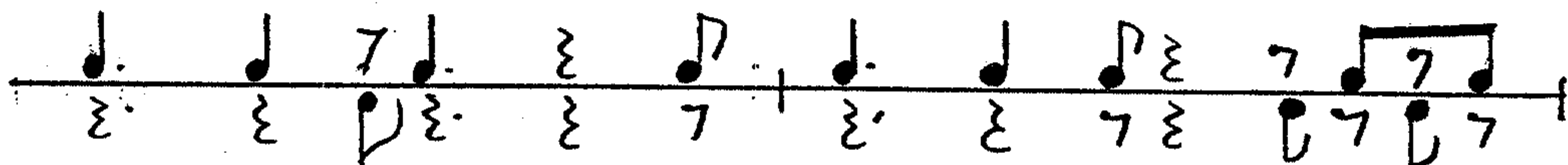
□ ♩. = 116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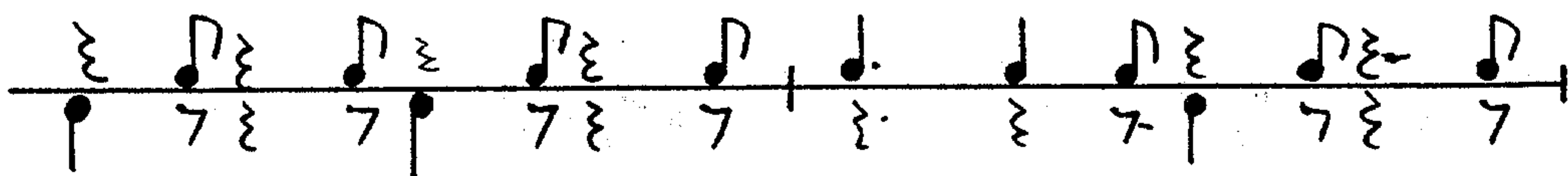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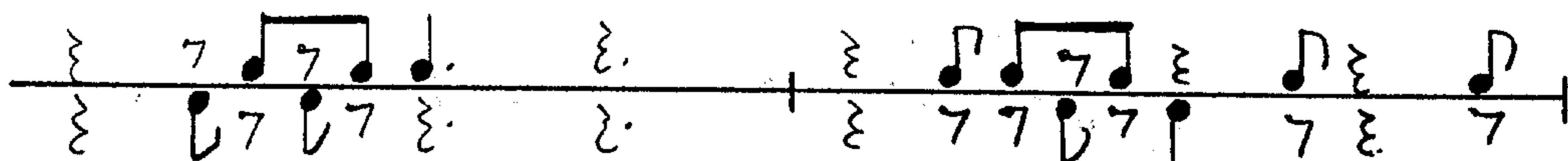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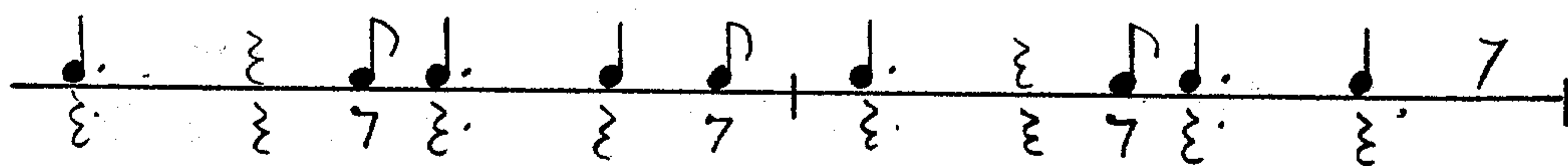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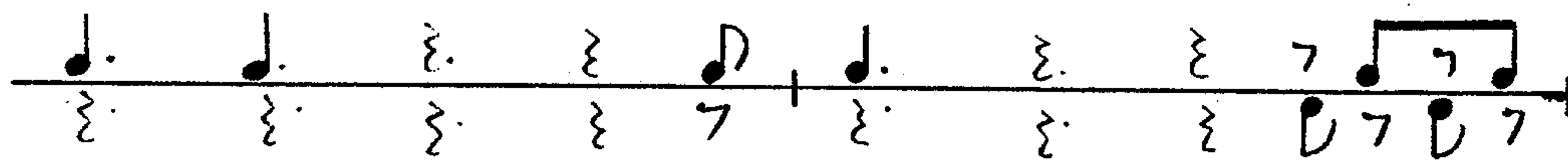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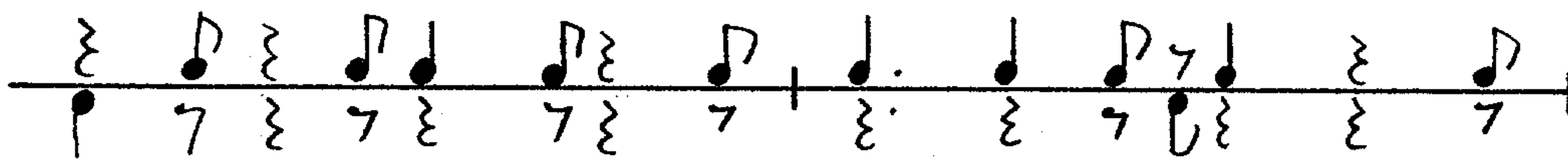
준제가락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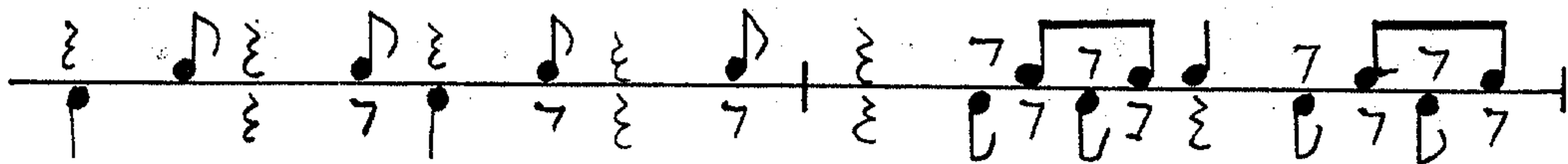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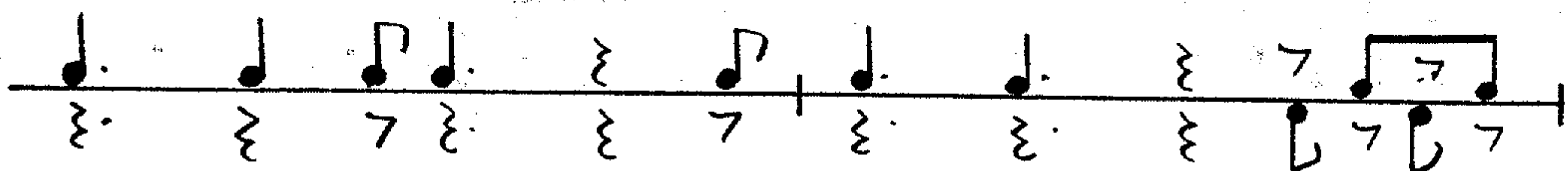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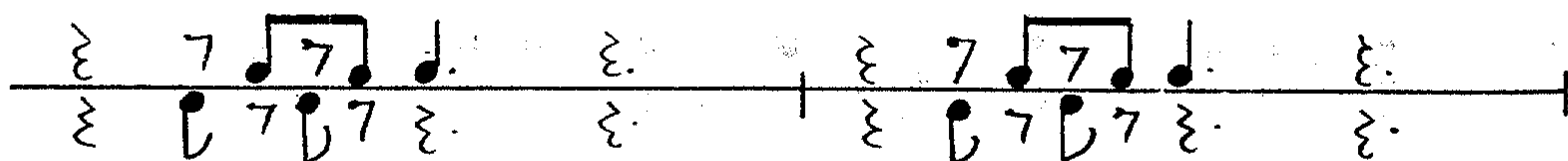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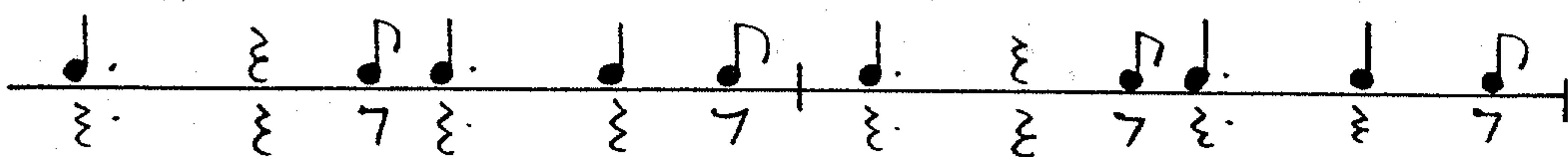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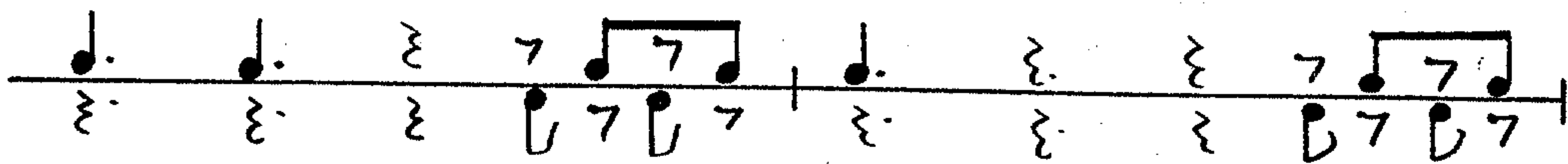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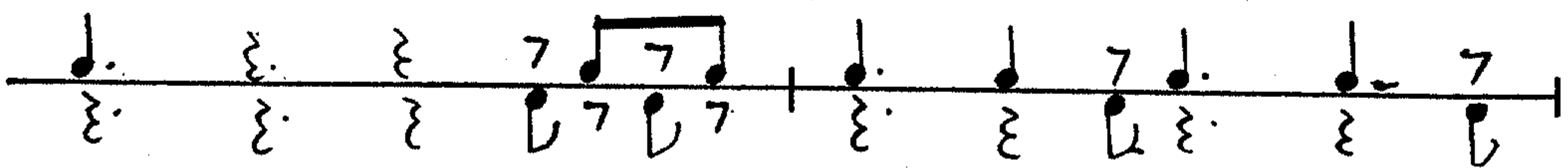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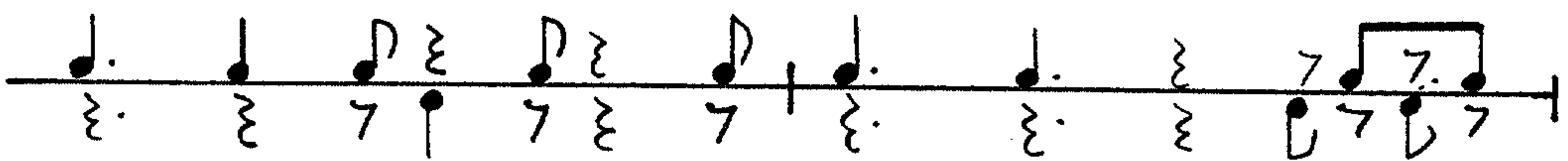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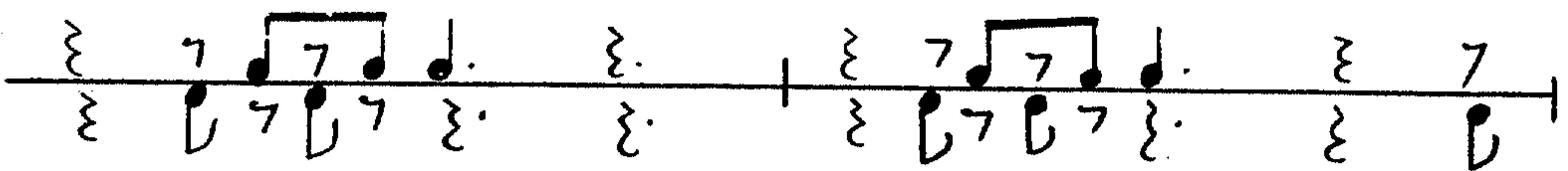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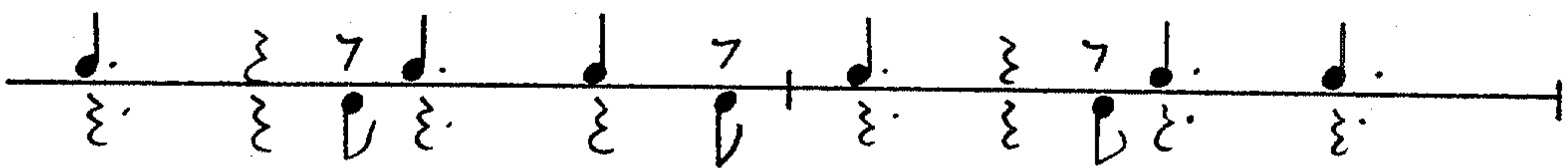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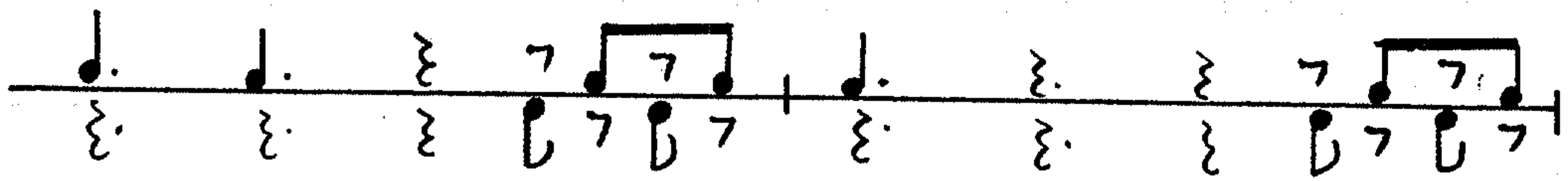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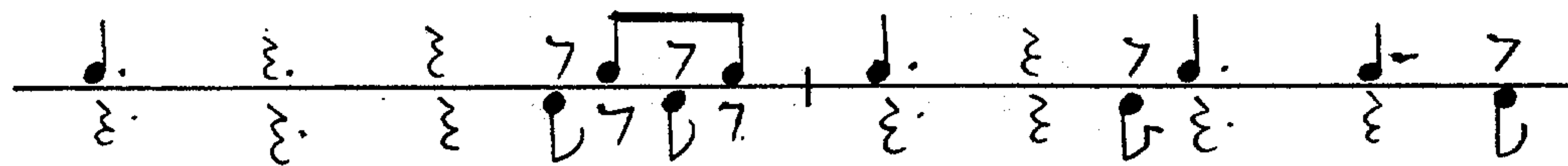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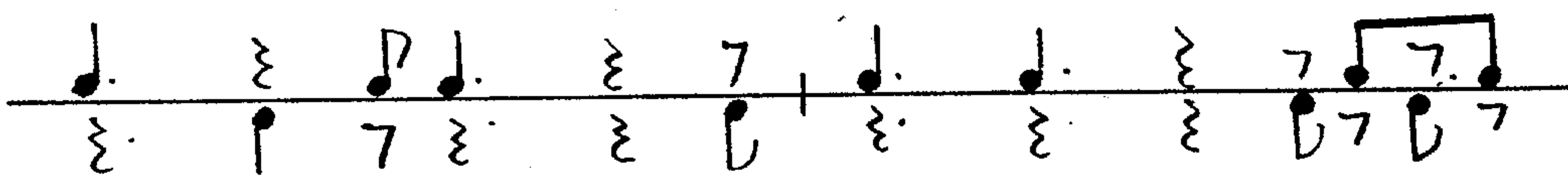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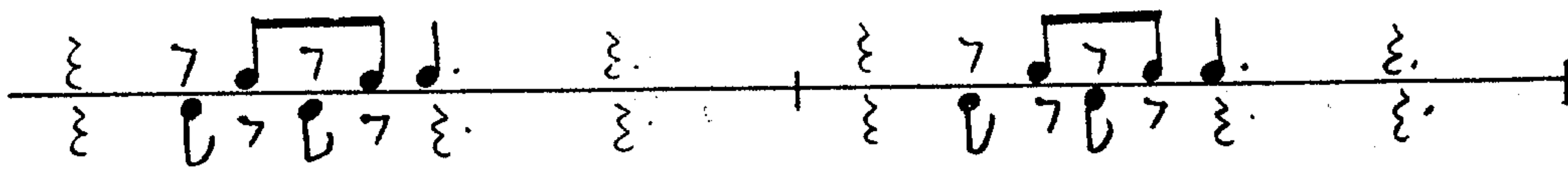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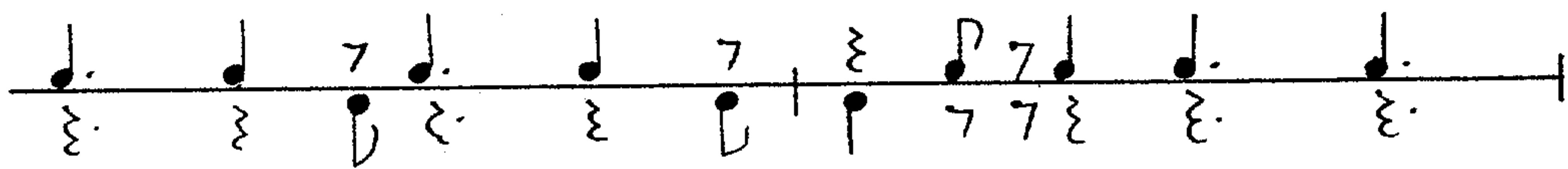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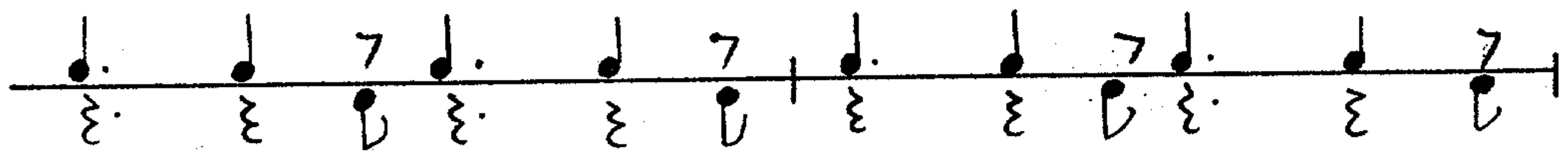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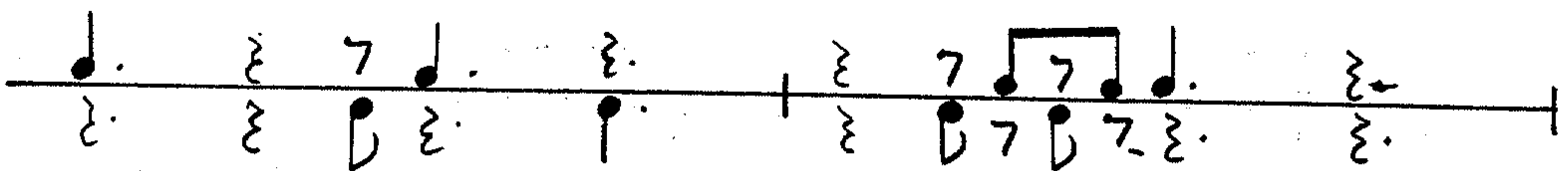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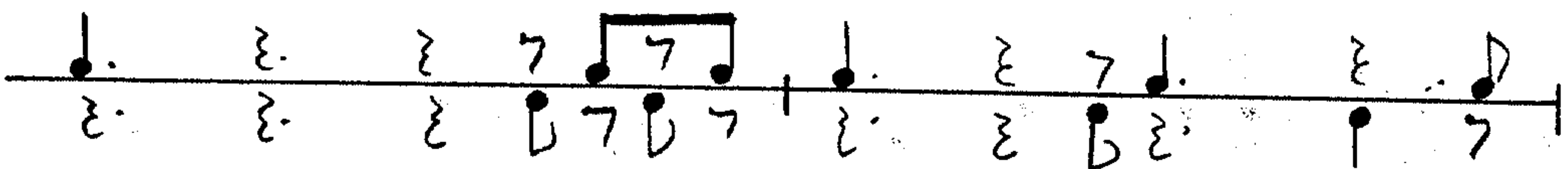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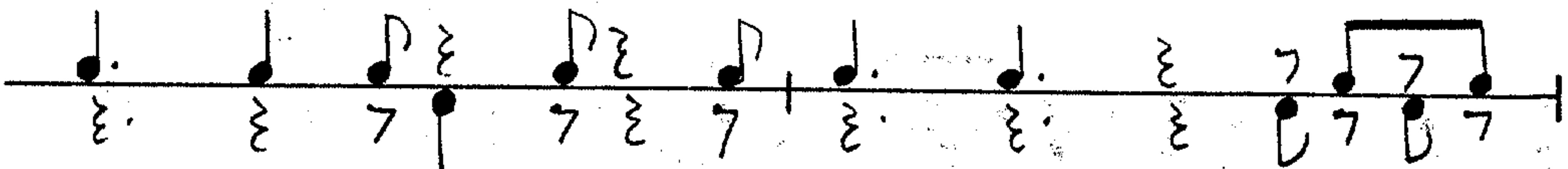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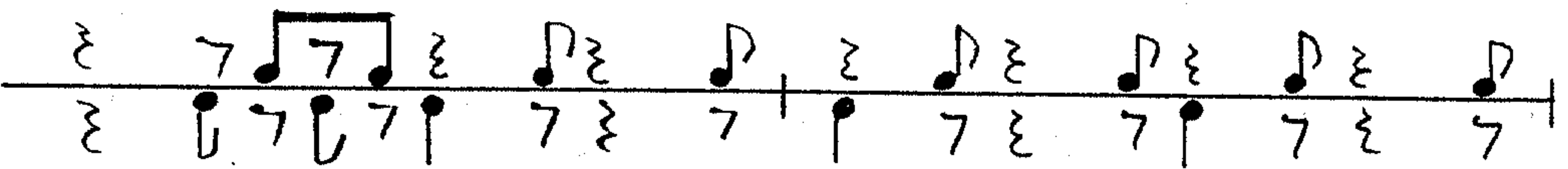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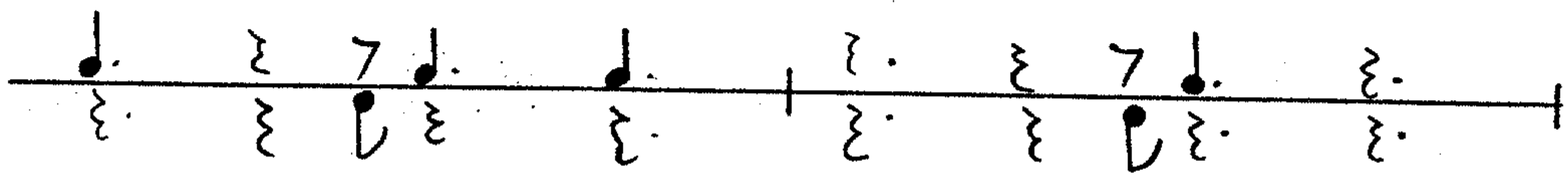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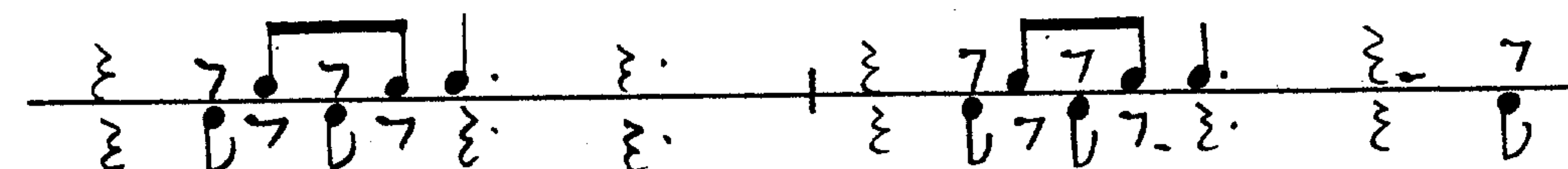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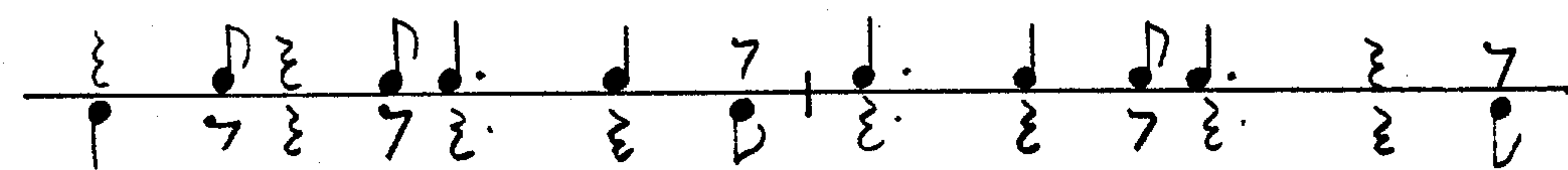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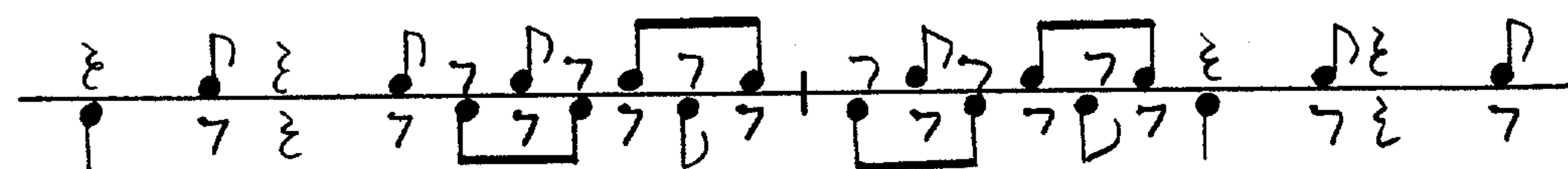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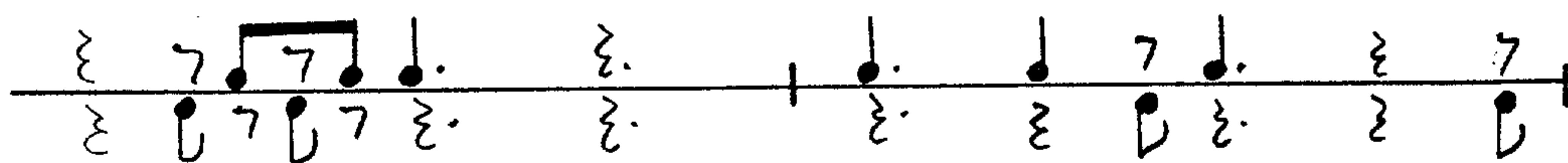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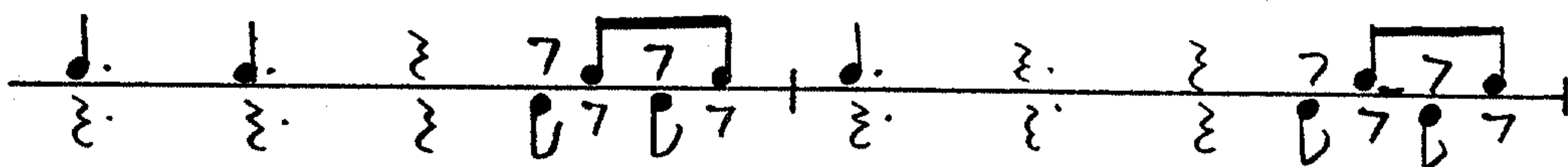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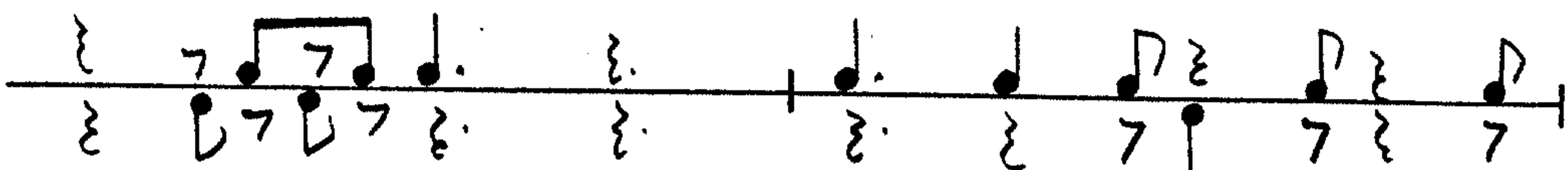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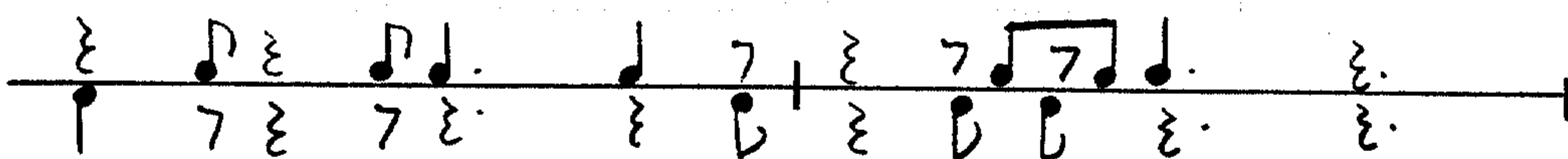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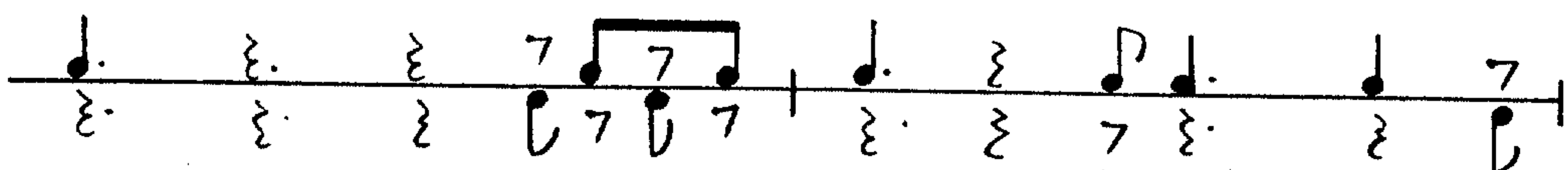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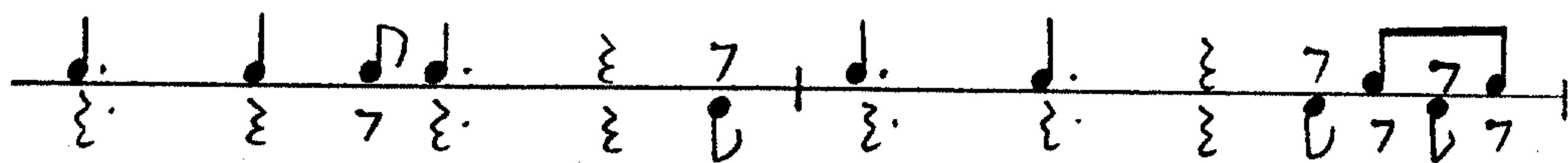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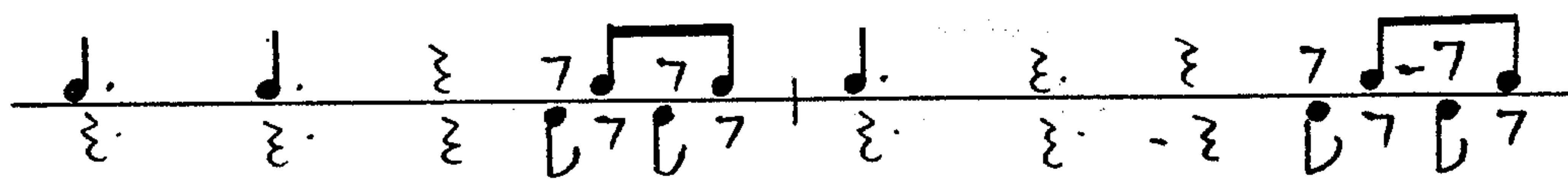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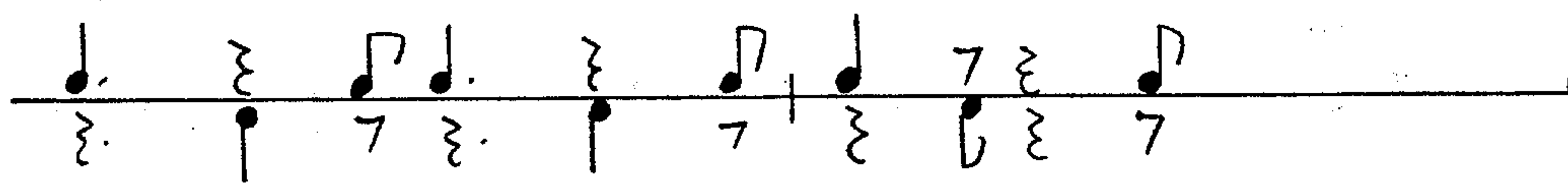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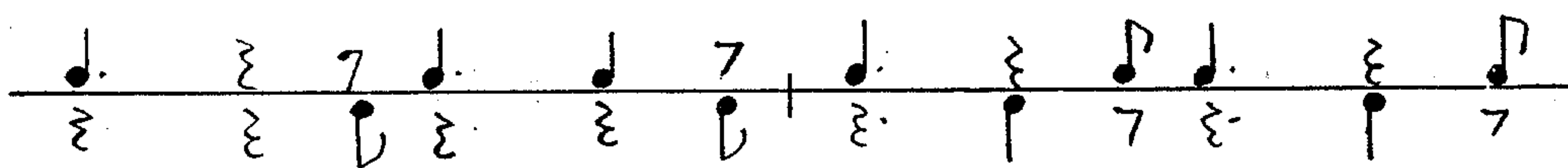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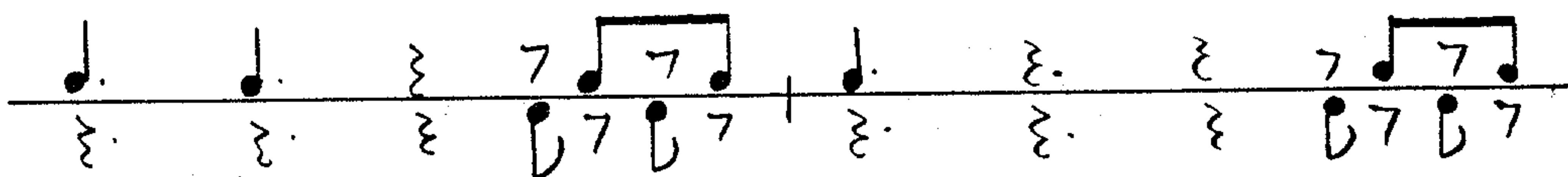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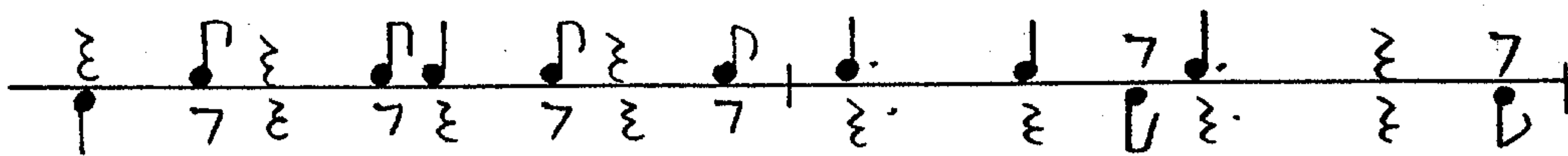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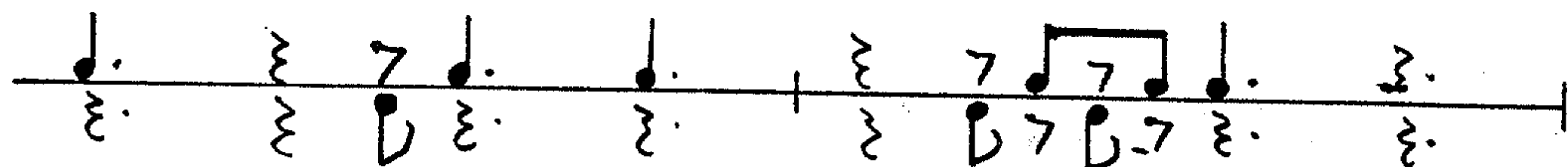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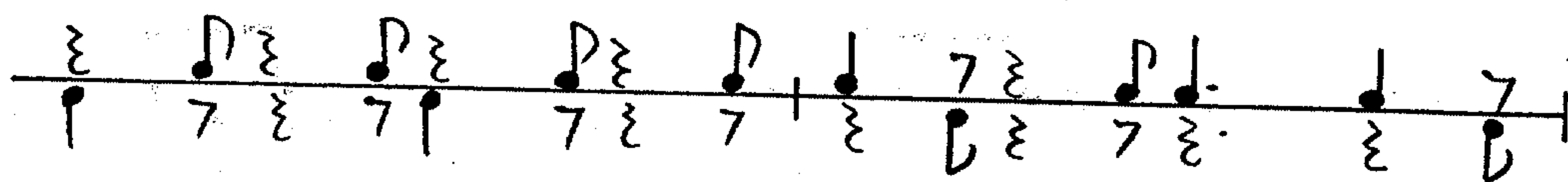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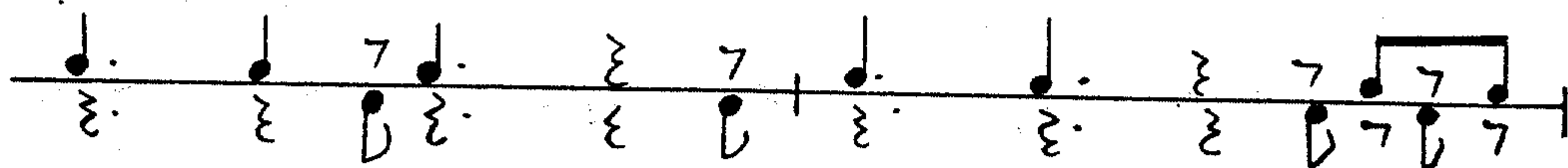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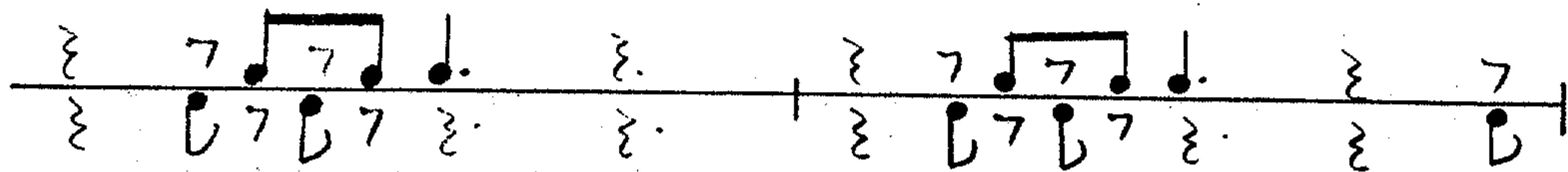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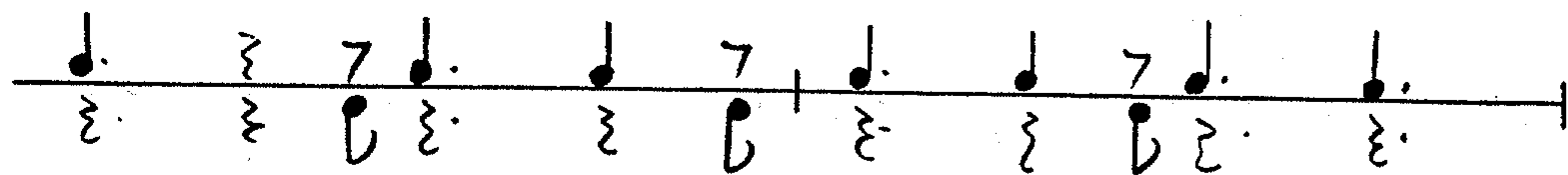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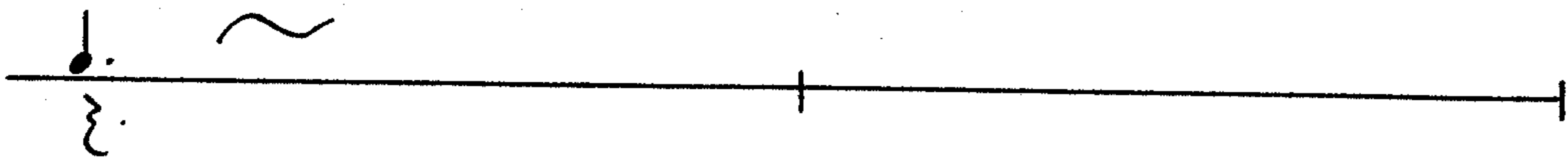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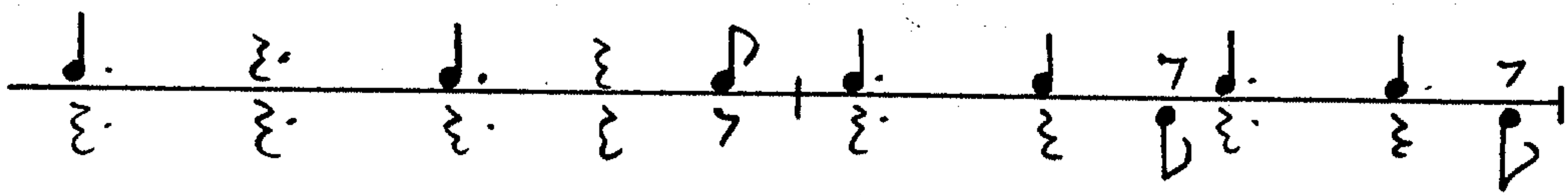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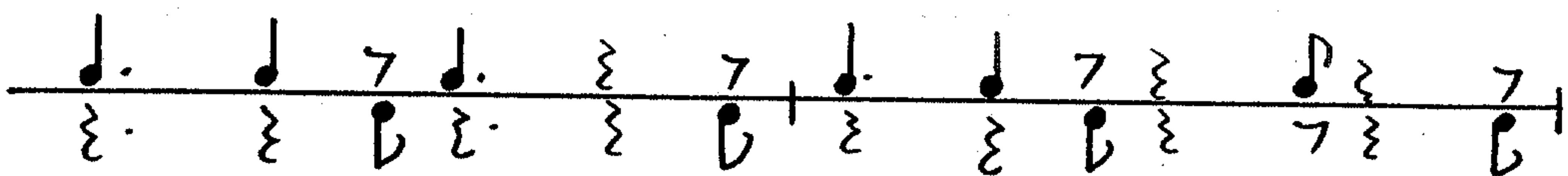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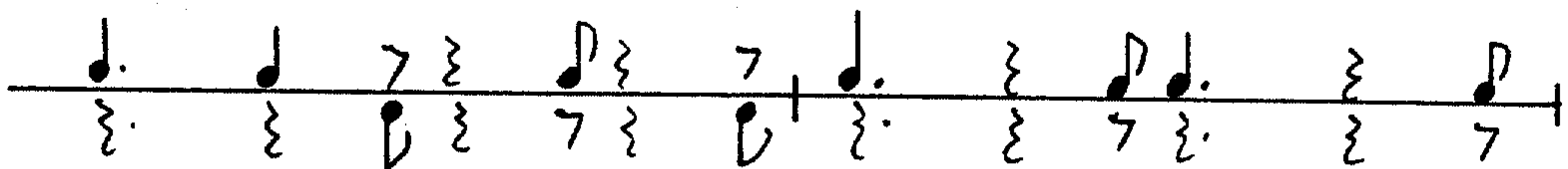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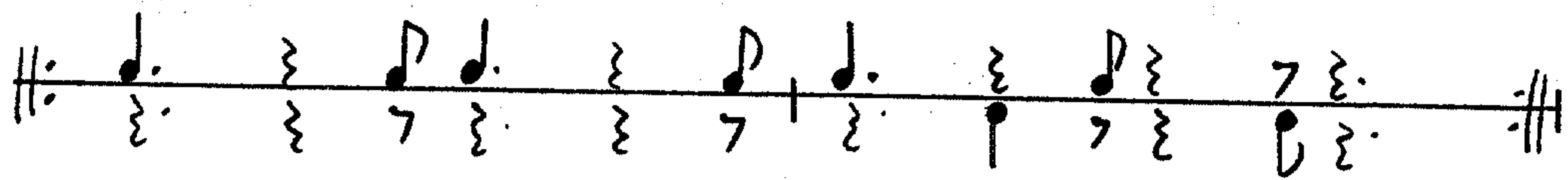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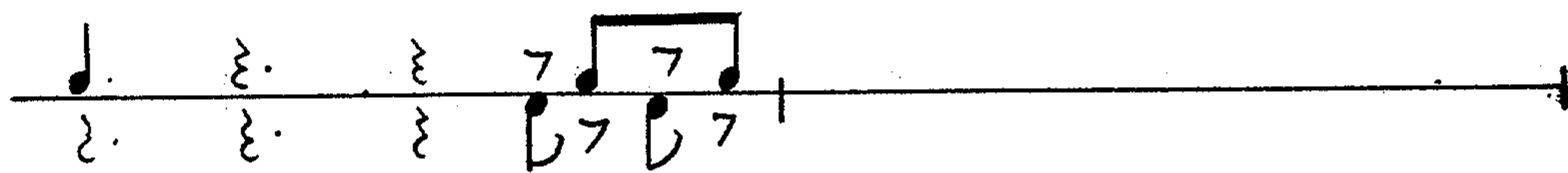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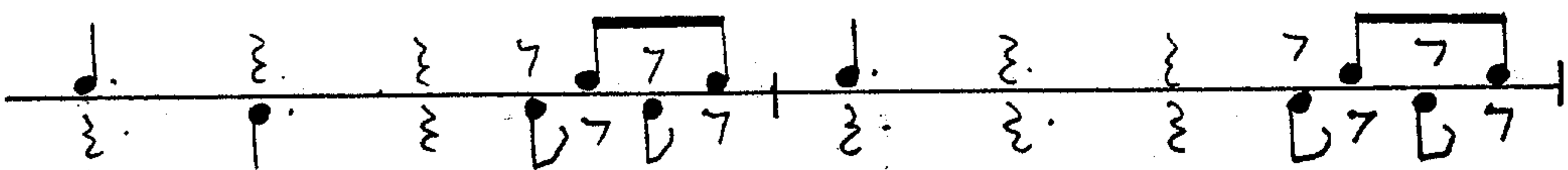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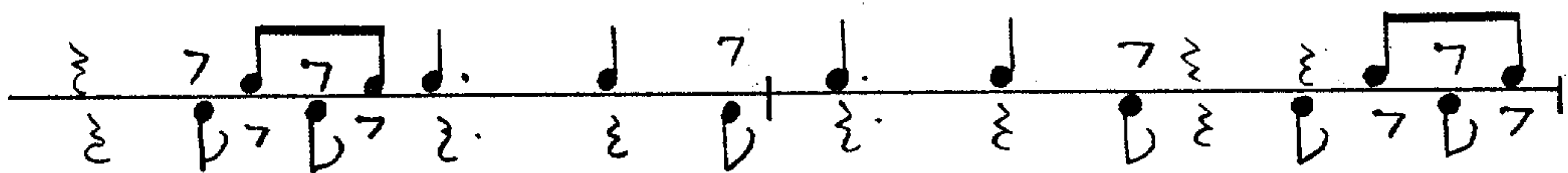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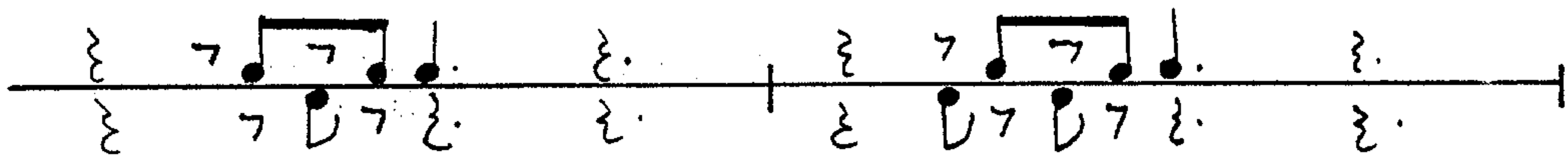






♩. = 35







<나까도전침> 악보 5.

♩. = 132

